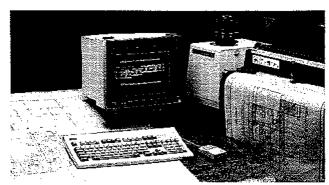


건축과 컴퓨터의 이상적인 만남과 조화를 추구합니다.

건축의 전문자식과 컴퓨터 활용기술을 갖춘 전문회사만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SOLUTION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건축 CAD전문회사로 출발한 (주)건케드는 건축을 아끼는 마음으로 고객에게 경제적인 CAD시스템과 효율적인 활용기술을 제공하여 실질적 이익과 만족을 드립니다.



●어떻게 도입해야 할까?

건축 CAD전문 컨설탄트가 귀사에 적합한 기종에서 활용까지 제반사항을 자세하고 찬철히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도입비용이 걱정인데…

저가격, 고성능의 신뢰성이 있는 다양한 제품을 구비하여 귀사의 실정에 맞는 CAD장비를 경제적, 단계적으로 도입토록 합니다.

●아프터서비스가 중요하다 던데…

만약 시스템이 이상이 있으면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해 드리며 신속하고 완벽하게 A/S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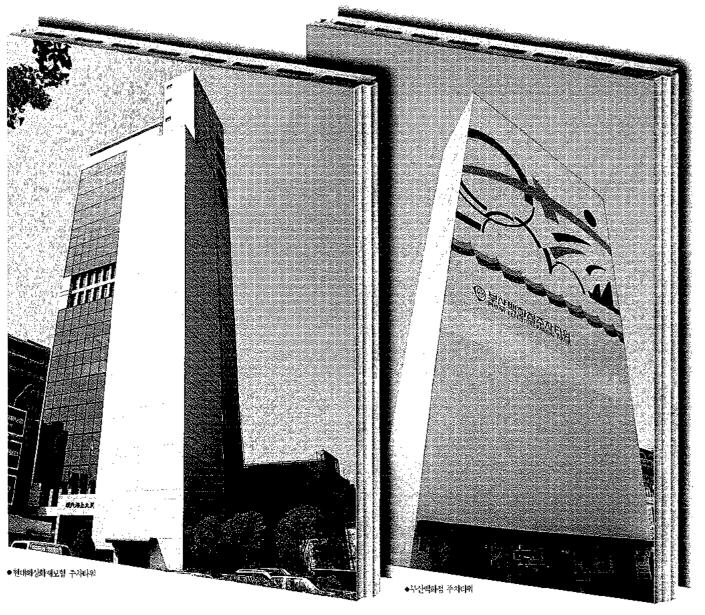
●CAD교육은 제대로 해주는지…..

건축 CAD실무자 출신으로 구성된 CAD교육팀이 기초부터 고급활용까지 실무적이고 체계적으로 성실히 가르켜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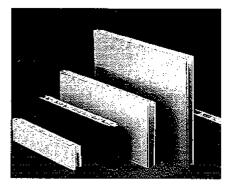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까?

최신 CAD활용기술과 CAD데이타 등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수시로 활용사항을 검토하여 성공적인 건축 CAD활용을 추구합니다.





가장이상적인외장재베이스판넬-주차타워에도 잘 어울립니다。



베이스란 시멘트를 주원료로 진공 압출성형하여 생산되는 경랑의 조립식판넬로서 제품 내부에 이상적인 공간이 형성되어 있어 강도가 높고 처음 내화 단열성이

우수한 내구성 자재입니다.

내구성 /내통결 융해성이 우수하고 강도가 높아 영구적입니다. 안정성/고압 증기 양생하므로 시공후 수축 팽창 뒤틀림이 전혀 없습니다.

경향성/M²당 무게가 50kg으로 건물의 구조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의장성/건물의 외관에 따라 판넬의 표면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감성 / 타일, 본타일, 페인트등 자유롭게 시공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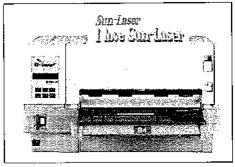
내진성/이상적인 조립방법에 의해 사공되므로 지진에 의한 충격을 흡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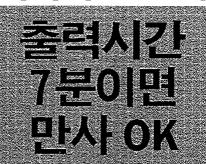
용도 : 건축물의 외택 · 칸탁이 · 계달 · 도로변의 지음병

치밀한 고강도 압출판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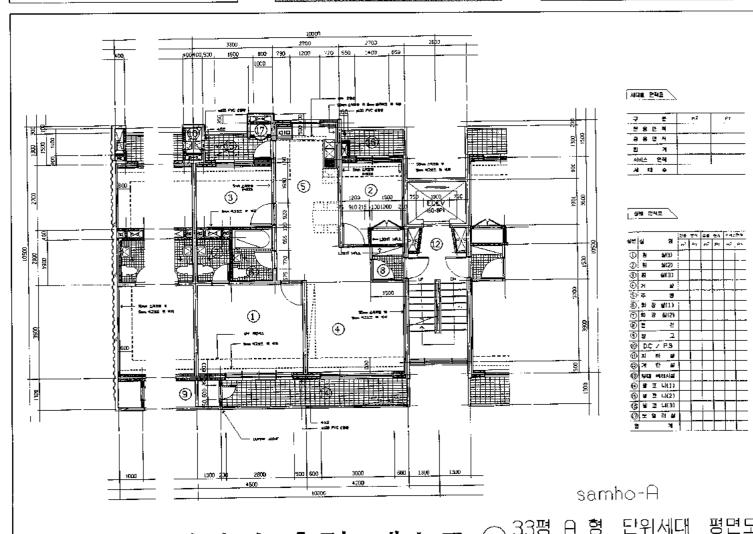
solution 1. 서통AI사업부가 국산화를

CAD 겸용 레이져 프린터 썬레이져 탄생!





- 해상도: 300dpi
- 프린트속도:11 PPM
- 용지 Size: B4,A4
- 무한대 확대,축소 회전기능
- Emulation Version
 - -KS(NAIS) -IBM 5540/50
- -KSSM
- -PS-55xx
- -EPSON
- -HP II



테스트

SUN 레이져 출력

ARRISZEED: ÉALE!

92.51

9/2/7/5/(1)

실현하는 두가지 SOLUTION!

이 사이 인공지능 3S 기능을 채택한 해인 슈퍼 하우징!



■해인 슈퍼 하우징의 특징■

-ARRIS CAD의 한국형 건축지원 프로그램 -2차원 도면에서부터 완벽한 3차원 모델 구현 -사용자의 단순 반복 작업을 최대한 배제

■ 해인 슈퍼하우징의 주요기능 ■

-중심선 작도에 의한 다양한 벽체 작도 기능 -창호도 자동 작도 기능

-벽체 마감 자동 작도 기능 -벽체 해칭 자동 작도 기능

-물량 산출 기능

-KS 규격의 다양한 심볼 제공

-다양한 계단 작도 기능

-각 설계사무실에 맞는 SHEET 저장기능

-다양한 모양의 창호제공 -입면도 자동 작도 기능

-MULTI WINDOW 기능 - 벽체의 각각 LINE 성문화기능

-완성형 한글(약 3,000자) 및 복선체 한글 한자 (약 7,500자)제공

-DATABASE 관리기능

-작업시 필요한 각종 UTILITY 기능 제공

♣캐드축제'92 문의전화 서울:514-0386 /대구:(053)421-2856 캐드축제담당자



▶캐드축제'92 기간중에는 다양한 PACKAGE 상품을 준비하여 특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울러, 기존 AutoCAD 사용자를 위하여서도 국내에서 제작된 3rd Party S/W CADSPEED와 우일 Detail Library를 특별 지원하고 있습니다.

판매원: \mathbf{B} \mathbf{S} \mathbf{C} (주)빌리언시스템









1969년 국내 최초로 무대기계에 첫발을 내디딘 대아공전 주식회사는 선진기술의 도입과 독자적 연구 개발을 통하여 국내주요 대형 무대를 독잡하여

설계·시공해 왔으며, 그 실적과 경험을 인정받아 명실공히 무대 메카니즘의 최정상의 위치를 꾸준히 지켜가고 있습니다.

주요 공사실적

- ◦세종문화회관 o 유관순기념판
- 국립극장○ 쉐라톤워커힐
- »충현교회본당
- ⇒문화예술진흥원(문예회관)
 - * 리틀엔젤스 전용공연장
- o 롯테호텔 ⊗ 부산문화예술회관 ○ 서울·제주 신라호텔
- 2 수인보 와이키키관광호텔 이화여대강당
- 안양문화예술회관 » 중앙대예술대학강당
- a 계몽센타 예술극장
- o 육군박물관
- 의대전시민회관
- **의부곡하와이 등**

주요생산품목

- STAGE & STUDIO BASIC EQUIPMENT SYSTEMS
- THEATRE STAGE
- -TELEVISION STUDIO
- -OPERA HOUSE
- -CONFERENCE ROOM -SCHOOL STAGE
- DESIGN & ENGINEERING
- MANUFACTURE
- TURN-KEY PROJECTS



大雅互電株式會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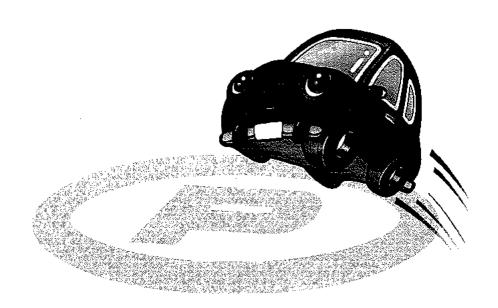
DAE AH ENGINEERING & ELECTRONIC CO., LTD.

서울特別市 麻浦區 城山洞 108-1 TEL. (02) 332-4500(代表), (02) 335-4642(代表) FAX. (02)392-2751

京畿道 金浦郡 金浦邑 大串面 山209-1 松麻里 山209-1 TEL. (0341)987-4184, (02)632-0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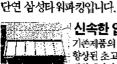
利全昌喜工

어느 회사에서 만든 주차설비인지가 중요해졌습니다.



설계의 차이에 따라 비용이 절감되듯.주차시스템에 따라 효율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0여년전 국내에 처음 기계식 입체주차 설비를 소개한 삼성은 그동안의 축적된 경험과 첨단기술을 비탕으로 하여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로 고객여러분의 보다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기계식 입체주차설비 -좁은 면적에 고수익을 생각하신다면



신속한 입출고

기존제품의 속도보다 25% 향상된 초고속형과 이느 방향에서나 출고가 가능한 던테이블 내장형의 삼성타워 파킹은 신속한 입출고를 통해

단축된 시간만큼의 이익을 고객여러분께 돌려드립니다.

첨단 COMPUTER 제어시스템

삼성타워파킹전용의 Computer제어시스템과 기계의 작동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삼성만의 특허 Panel은 자동 입출고를 통한 간편한조작과 탁월한 운전관리를 보장합니다.

저소음,저진동 특수감속기의사용 및 특수방진설계의 채택으로 저소음, 저진동을 실현하였습니다.

'동출고기능 삼성만의 브레이크해제장치와 핸드체인의 장착으로 정전 및 기계적 고장시에도 인력에 의한 차량출고가 가능합니다.

완벽 A/S실현 최고기술진의 완벽A/S는 언제어디서나 고객 여러분의 긴급한 요구를 만족시켜 드립니다.

다기종 축적된 가술의 크기만큼 선택의 폭도 다양한 삼성타워파킹은 구매자의 예산과 입지조건을 동시에 반족시켜 드립니다.

케이지(Cage)를 매달아 순환이동시키면서 입출고하는 방식.

- 초고속형 : 출고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 ●턴테이블 내장형 : 케이지 자체가 회전하여 전후좌우로 입출고 가능.
- ●이중탑재형 : 파레트 히나에 두대 주차

BH(E) 일리베이터에 차를 싣고 오르내리면서 좌우 주차구역으로 차를 입출고하는 시스템(횡식, 종식)

္ञ지하 다충 순환방식 : 다충으로된 지하주차 공간에 상하수평으로 순환이동시키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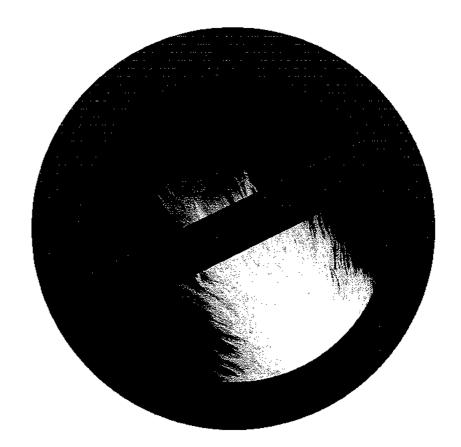












화/M/S/T/O/P

MBU GLASS WOOL PANEL

인슈그라스울파넬— 더욱 우수한 1급불연파넬입니다./

■ 인슈그라스울파넬이란?

INSU GLASS WOOL PANEL은 내부단열재를 1급 불연재인 유리섬유를 사용함으로써 단열효과가 우수함은 물론 화재시 불에 타지않는 불연성이고 유독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화재의 위험율을 국소화하며, 특히 유리섬유의 입자들이 음의 진동을 완충시켜주므로, 차음 및 방음, 흡음성능이 더욱 우수한 획기적인 소재입니다.

■ 인슈그라스울파넬의 3대 우수성

1. 무수한 불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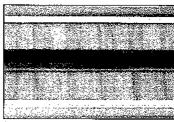
인슈그라스율과넬은 내부단열재가 KSF2271, BS476 Part4의 관련 규격에 의하여 1급 불연재로 인정받은 무기질 단열재인 유리점유를 사용 하므로서 화재의 위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불연파넬이며 내화 구조체로도 사용합 수 있습니다.

최고사용은도
85°C
110°C
180℃
200°C
350°C

(단열재의 화재안전도)

2. 우수한 견고성

인슈그라스울파넬은 내부단열재인 유리 섬유의 결을 수직으로 세워 성형한 제품이므로 기존의 섬유의 결을 수평으로 성형한 제품보다 압축강도가 10배나 뛰어나 매우 견고하고 균일한 무께유지가 가능하며 박리현상을 완전방지합니다.



(인슈그라스물파넬의 단면구성)

3. 우수한 단엺성

인슈그라스울파넬은 내부단열재가 1급 불연재인 유리섬유로 되어 섬유질이 가늘고 군일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어 보다 안전함은 물론 열전도율이 낮아 단열효과가 우수하여 건물의 유지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단열재명	열전도율
그라스울	0.029
스치로폴	0.0285
암 면	0.053
발포 CONC	0. 15

(단열재의 열전도율 비교표)



주식회사 연합인슈



본사및공장: 경기도 이천군 백사면 도령미 39 - 2 TEL: (02) 745-0687, (0336) 34-8880 FAX: (0336) 32-4243 서울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역산동 773-6 연합인수반당 TEL: (02) 555-6891, FAX: (02) 553-1651

유원의 첨단기술이 탄생시킨 — 컴퓨터 주자타워



● 한국일보사신관 주차타워 컴퓨터 콘트롤 룸

13평의 땅에 50대 주차 설비를 세운다.

올림퐉대교를 건설한 유원건설이 첨단 기술로 탄생시킨 컴퓨터 주차타워. 유원은 한국일보사 신판 주차타워와 현대해상화재보험 명동사옥 주차타워 등을 완공, 현재 가동중에 있으며 지금도 서울 부산 등지에서 크고 작은 주차타워 설치공사를 수행, 주차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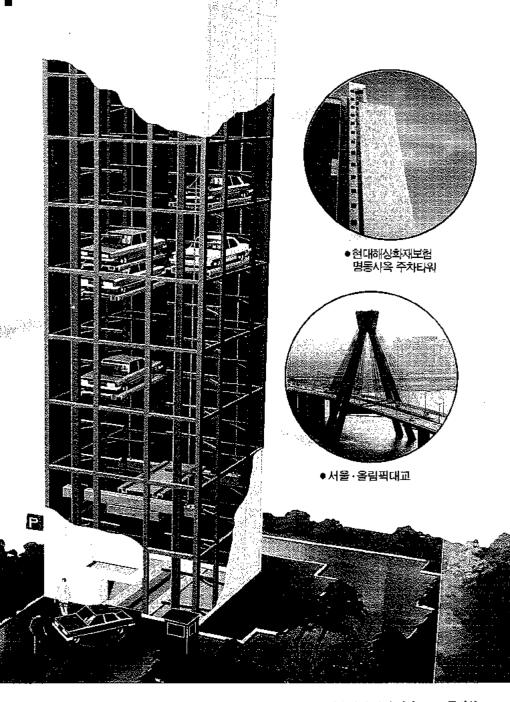
유원은 국내외에서 쌓은 시공경험을 바탕 으로 주차설비 분야의 기획업무부터 설계, 시공, A/S까지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YOP-A연립청



YOP-M형



유원 컴퓨터 주차타위 시설의 특징

7

- ●13坪에 50臺 주차설비 시설가능
- ◆지상,지하에 동시 운행가능
- ●트윈타입으로 설치원가 절감

유원 컴퓨터 주차티워시설의 7대 장점

1. 경제성 - 저렴한 시공비, 최소의 운영관리비 2. 안전성 - 16가지 이상의 COMPUTER 안전장치 3. 신속성 - 상승속도 60m/min이상, 1분내 입출고 처리

4. 간편성 – 차량번호만 입력, 자동으로 입출고 5. 정숙성 – 승객용 승강기에 버금가는 무소음 무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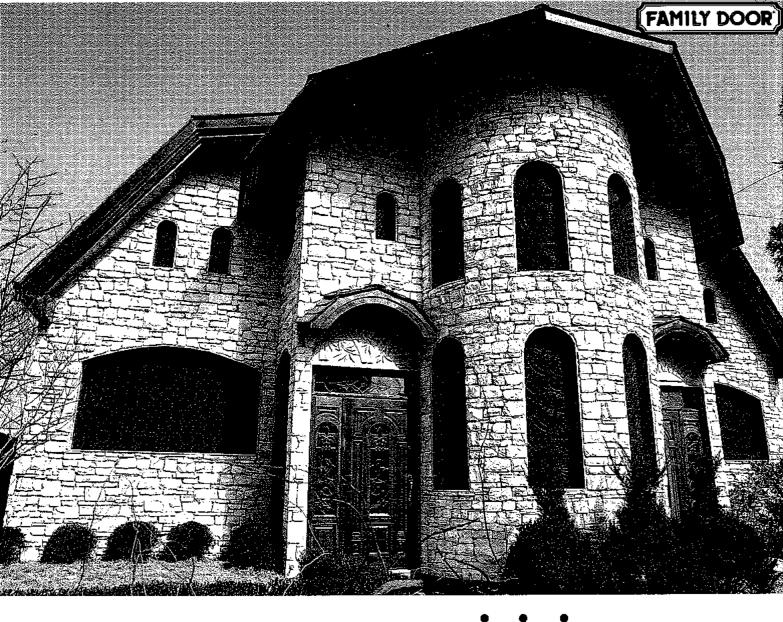
6.다양성 – 대지형태에 따라 선택 가능한 다양한 기종 7.독창성-국내 기술잔에 의해 개발 100%국산화

유원 컴퓨터 주자타위 시공 및 착공사례

- ●한국일보 신관 : 2기 48대
- ●현대해상화재보험 명동사옥:1기 40대
- ●부산고속터미날 : 3기 120대
- ●사당 쇼핑센타 : 3기 150대
- ●잠실 뉴스타관광호텔 :1기 50대
- ●평창산업주차타운 14기 200대



상담전화: (02) 756-9821, 9841 (02) 777-9821, 9841 FAX. (02) 754-8521 주차 플랜트부



좋은집좋은문-홰밀리 통나무 현관도어





미국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FAMILY EXTERIOR SOLID DOOR . 6개월이상 건조시킨 100% 천연통나무 현관용 도어로 양옥의 본고장 미국의 고급 단독주택에 절찬리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이시대 최고수준의 디자인

마국의 일류 건축 디자이너에 의해 탄생되어 격조높은 미국 상류층 주택시장에서 꾸준히 애용되고 있는 매우 품위있고 세련된 제품임

환상적인 제광효과

아름다운 BEVELED 조각 무늬 유리를 통해 부숴지는 햇살들의 환상적인 하모니가 집의 첫판문인 현관공간을 밝고 눈부시게 가꾸어 줌

놀라운 단열, 차단효과

따뜻한 느낌의 천연통나무와 3겹 진공 복충유리의 단열효과는 알루미늄 제품과는 비교될 수 없으며 문톨과 문사이에 설치된 특수 고무 쫄대(WEATHER STRIP) 장치는 비바람 먼지 외부의 소리 등을 차단시키며 문을 여닫을시 충격방지 역할도 해줌

를 주요시공처 : 대범원장실, 강남충천교회, 온추리교회, 발포성당, 주인성당, 육포유말교회 기타 전국의 많은 발라 및 제민주택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요.

■ 국내대리점 → 서울 : 간단하면 1800 인설파원 540 1056 출시로 2865 개24 본인 545-7352 본인 545-7352







삼회화성은 풍요로운 건축문화를 창조하는 포항제철계열 국내최고의 요업전문회사 압니다.



三華化成株式會社 SAMHWA CHEMICAL CO., LTD. 아직도 건축의 내외장 및 바닥재로 고민하십니까 건축사가 감탄하고 ———— 고객이 만족하는 —, ——— 국내최초 새라믹 공법으로 생산된 소결석 "BIO-HAPPY STONE"으로 시공하십시오.

MOHAPPY STONE의 3가지 자부심

1. 다양한 색상 및 디자인

다양한 색상 및 디자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선택의 폭이 넓고 자연스러워 건축물의 고급화를 주도합니다.

2 뛰어난 기공성

1,200°C이상에서 소결(燒結)한 불연제품으로 수축, 팽창이 적고 가벼우며 변색되지 않습니다. 또한 절단, 구멍 뚫기 등 가공이 편리합니다.

3. 대형고급 도판

건축 내·외장 및 바닥에 시공되는 BIO-HAPPY STONE은 600×900m/m×25', 600×600×m/m×25'로 공공건물, 오피스, 호텔, 레스토랑, 갤러리, 박물관 등 어디서나 건물의 웅장함과 품격을 한층 더 세련되게 합니다. 子人別在 어떤 건축지제를 산림할 것인가? XEI BYOLI SELV?



한국화학사현검사소 TEL. 634-0034

23 数保起压的

景景对州秦州省栏群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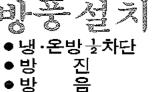
이란 강화유리 도아 상ㆍ하부에 후램에 틈이 없어 방풍・방음효과와 열손실을 막아줍니다.











명반영구적

스텐레스 쇼틸 여닫이문 Fi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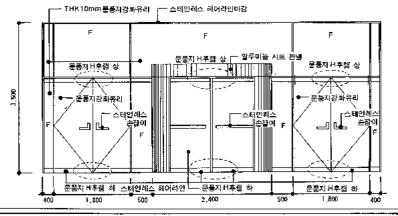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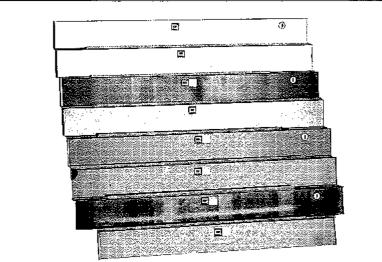
















M울N무소:

부산**시 북**구 삼략동 342-16 TEL: (051) 302-1100~2 FAX: (051) 301-4 5 7 5

M울M 강남구 포이동 225-3 TEL: (02) 576-0 0 8 (02) 577-0 0 4

FAX: (02) 574-9

라이톤은 제 3의 에너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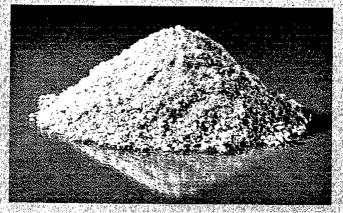
断熱。醛量(保温)。防音。防湿。結露防止

라이톤(LIGHTON)











라이톤(Lighton)의 개요

라이톤 (LIGHTON) 글재는 (A) 유리질 화산 암, 즉 무기화성암과 (B) 규조에 화석인 註藻 土(즉 70년대에 사용했던 '라이통')를 적당한 粒度로 분쇄하여 혼합소성한 多孔質(무수한 기포로 형성됨)에 超軽量 단열재로서 (A) 와 (B)가 지니고 있는 단점을 제거하고 장점기능 만을 보완작용토록 연구개발 하였으며 최신 PLANT(AUTO-SYSTEM)에 의하여생산하고 있옵니다.

라이톤(LIGHTON)은 유리질 화산암이 지 니고 있는 탈수성으로 硅藻土가 지니고 있 는 흡수성을 역기능으로 조절(강도를 높이는 기능)하는 배합의 조화로서 이루어지는 無 機鉱物에 혼합체이며 새시대가 요구하는 영 구적인 단열건재입니다.

라이톤(Lighton)의 특성

라이론(LIGHTON)은 1,150°C~1,220°C에 고열로 기열팽창시켜 傷成發泡 함으로서 단위용적 비중(LIGHT WEIGHT) 0.16~0.23kg/Ø(모래대비 1/20)에 해당하는 超軽量性 단열재이며無伸縮, 무팽창, 無瑕疵을 지렁으로 하는 콘크리트 및 몰탈(CONCRETE or MORTAR)용 단열건 재입니다.

라이돈(LIGHTON)은 유기질(ORGANIC)이 아니며 무기질(IN ORGANIC) 단열재이므로 酸 化하거나 화재시에 유독 GAS를 분출하지 않으며 불에 타지 않는 無毒, 無菌, 無害한 耐火断 熱建材입니다.

라이톤(LIGHTON)은 콘크리트용 및 몰탈용 단열재로서 뿐 아니라 耐火被覆材로서 결로방 지재로서 또한 방음, 방습, 뿡칠(COATING) 材로서 시공(WARKA-BILITY)이 간편한 최적의 우수건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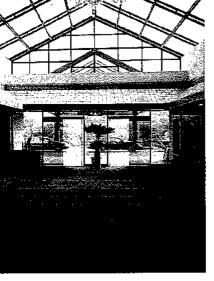
株式會社 正 勲 産 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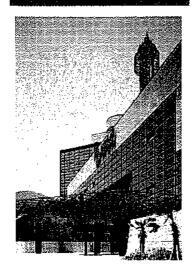
Junghoon Perlite Industrial Co., Ltd. 서울特別市 孫草区 瑞草洞 1305 - 8 (東一빌딩 602 號) TEL 553 - 5731~4(代) 553 - 5731



차례/1992년 7월호 통권 제279호

过程改善	삼성동 아남빌라 /金永澤	16
	유성 흥인타워 /姜永浩	20
	꼰벤뚜알 성 프란치스코의 집 / 姜錫元	24
	여수문화방송국 /田燦珍	27
	도고 컨트리 클럽 /趙載光	30
	남한강 빌딩 /吳澤吉	32
	안원산업사옥 /金昶一	34
	대전주택 /河學秀 十 鄭時春 	36
<u> </u>	이씨 별장 /郭在煥	38
기회작품	조선대 공학관 / 盧亨來	40
일하다 생각하다	용기를 잃지 않는 건축사님께 /方喆麟	42
(2.1 <u></u>	수퍼 초고층 건물과 그 구조적 개념 /金昌壽	44
<u>-</u>	독일의 도시설계 /趙仁淑 정리	50
	패러다임, 건축적 사고유형과 디자인 특성(2) /吉成鎬	60
설계경기:	현상설계 2제 - 국립 제주박물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청사	70
딸 정	개정건축법시행령 [2]	82
X E	1992년 5월분 전국도서신고현황	90
실업회원		92
BSIAA		94





표지 : 여수 문화방송국 (설계/전찬진)

發 行 人:吳雲東

編輯企劃:編纂委員會

委員長:李義求

委 員:徐千植,李琦榮,金文圭,崔英集。

宋洙九

編 輯:出版事業部

發 行 處: 大韓建築士協會

住 所: 서울 特別市 瑞草區 瑞草洞 1603-55

郵便番號:137-170

話:代表 (02)581-5711, 581-5712~14

팩시밀리 : (02)586-8823 **登錄番號** : 서울 라-26(月刊)

登 錄: 1967年 3月 23日

U. D. C; 69 /72(054-2) : 0612(519)

印刷人:李鳳秀/正文社

Publisher: Oh, Woon-Dong

Editor: Editorial Committee

Chairman : Lee, Eui-Koo

Member: Suh, Chun Sik/Rhee, Chan-Young

Kim, Moon-Kyu/Choi, Young-Jeep/Song, Soo-Koo

Assistant Editor: Publishing Department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070

TEL: (02)581-5711, 581-5712~4

FAX: (02)586-8823

Registered Number: Seoul Ra=26 Registered Date: March 1967

U. D. C.: 69172(054-2): 0612(519)

Printer: Lee, Bong-Soo(Cheong Moon Printing Co.)

CONTENTS VOL. 279, JULY 1992

	VVIII, 11, 0 FOL, 2, 0, 1021	4 552
70 <i>8</i> 165	Samsung - dong Anam Villa / Kim, Young - Taek	16
	Yusung Hongin Tower / Kang, Young - Ho	20
	Order of Friars minor Conventual Kang, Suk - Won	24
	Yosu Munhwa Broadcasting Co. / Chun, Chan - Jin	27
	Dogo Country Club House / Cho, Jae - Won	30
	Namhangang Building Jang Design Group	32
	Anwon Industry Building / Kim, Chang - Il	34
	Daejeon Residence / Ha, Hak - Soo & Chung, Si - Choon	36
KETOK	Lee's Country Honse / Kwak, Jae - Hwan	38
ROCESS WORKS	Engineering Hall in Chosun University / Ro, Heoung - Rae	40
issay	Advice on the Professionalism Bang, Cheol - Lin	42
REPORT	Superskyscraper and its Structure / Kim, Chang - Soo	44
ssue	Urban Design and Natural Environment /	
	Prof. Dr. Ing Michael Trieb	50
REPORT	Types of Architectural Thought and the Design	
	Characteristics Based on Paradigm Kil, Soung - Ho	60
OMPETITON		70
VEW LAWS & ORD	DINANCES	82
STATISTICS		90
VEVYLY ADMITTEL	O MEMBER	92
KIRA NEWS		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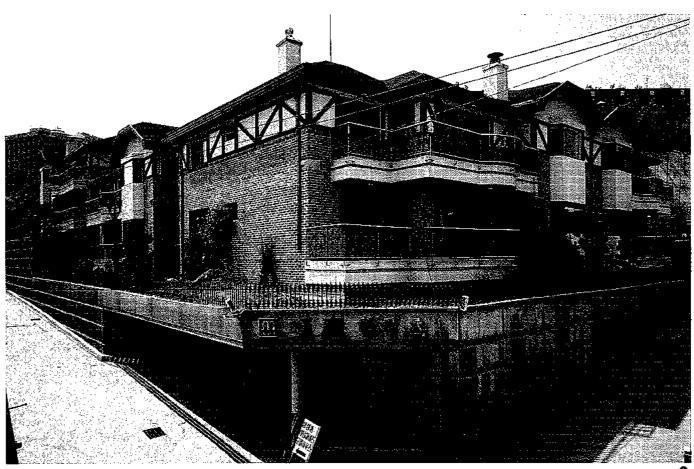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

■ 서울특별시간축사회/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통1603·55. 581·5715~8·서대문문회 /서대문구연회등169·25. 333·6411 · 관약분회 /관약구신림등1422·17, 882·6744 · 도봉분회 /도봉구수유동191·13, 903·3425 · 영등포분회 /영등포구당산3가81, 634~2143· 강동분회 /강동구성대동317·4, 484~6840· 강서분회 /강서구화곡동1105·05, 604·7168· 성동분회 /성동구구의동252-16, 446·5244· 동대문분회 /동대문구신설 동101-7, 923-6313 · 종로분회 /종로구수성동46·18, 735-0905 · 아포분회 /아포구성산동275·1, 336·5057 · 송파분화 /송파구송파50·12, 423-9158 · 중구분회 /송부로2749·11, 279-1415 · 유산분회 /유산 구원효로1가129-22, 712-7647·서초분회 /서초구서초1동1623-1, 586-7707·은평분회 /은평구녹번동79-32, 352-6720·동작분회 /동작구사당동206-6, 815-3026·강남분회 /강남구본원봉242-30, 511-8515 : 노원분회 /노원구성제1동1049-79, 992-8076 · 양천분회 /양천무신정동1027-9, 646-7172 · 중랑문회 /중랑구면목동166·46. 923-6123 · 성북분회 /성복구삼선5가410, 923-4401 · 구로분회 /구로구구 로동86-4, 853-4084 로부산직할시건축사회 / 부산사 진구 범천동 847-18, 28(051)634-4973-9 로 대구직할시건축사회 / 대구직할시수성구방어동3711-8, (053)753-8980~5 로 인천직할시건축사회 / 인천직할시선동구간석1동558-L (032) 437-3381~4(FAX)437-3385(한국종활발당204호) ■ 광주직할시건축사회 / 광주직할시건축사회 / 광주직할시북구중총동694·10, (062)521·0025∼6(FAX)528·0026 ■ 대전직합시건축사회 / 대전직합시중구대흥동497·1, (042)255·9350~4 ■ 경기 도건축사회/경기도수원시매산로3가124-5, (031)47-6129~30 · 직활분회 /경기도수원시매산로3가124-5, (0331)43-6662, 7072 · 안양분회 /안양시안양동523-5, (0343)49-2698 · 부천분회 /부천시중구원미동88-1. (032)664·1554·성남문회 /상남사수경구대평동3407, (0342)755·5445·의정부분회 /의정부사의정부동182, (0351)2·1083·송탄분회 /송판사서정등343·22, (0333)4·6153·고양분회 /고양군원양음주교 38불럭16롯트, (0341)63~8902 · 구리분회 /구리시수택봉409~2, (0346)63~2337 · 이천분회 /이천문이천음중리192~1, (0336)635~6545 · 광명분회 /광명시철산동464~7, 682~2875 · 안산분회 /안산시고잔동 536-1, (0345)80·9130 를 강원도건축사회 / 강원도춘천시옥천통39·5, (0361)54·2442 · 원주분회 /원주시중앙동60·54, (0371)42·4287 · 강룡분회 /강콩시성대통6·14, (0391)2-2262 · 속초분회 /속초시통명통466· 63. (0392)33-5061 · 삼적분회 / 삼적시남양동55-43. (0397)2-3106 · 영원분회 /영원군영원읍영홍1리960·12. (0372)43-2695 를 총청북도건축사회 / 총청북도청주시북문로3가87-3. (0431)55-2752, 53-7342 · 충주분회 /충주시역천동673·1, (0441)847·3082 · 제천분회 /제천시의원동8·8, (0443)43·6253 · 육천분회 /옥천군옥원음삼양리222·206, (0475)33·3502 ■ 충청남도건육시회 / 대전직험시중구대충동452·2, (042)256·4088 · 천인분회 /천안 시문화동160·1, (0417)551-4551·홍성분회 /홍성군홍성읍오관리239·1, (0451)32·2755·부여분회 /무여군부여읍동남리703·1, (0463)2·2217·대천분회 /대천시대천동197-10, (0452)34-3367 ■전라목도건 축사회/전리북도전주시서노송동635-5(대큑빌딩 508), (0652)87·6007~8·이리분회 /이리시남중동17}77·22, (0653)52·3304 · 균산분회 /균산시산창동35-4, (0654)445-4060 · 남원분회 /남원시하정동106-2, (0671)31·1000 ■전리남도건축사회/전리남도공주시서구확정동783·23(주선회관)(062)364·7567, 33·9944·목포분회 /목포서대안동1, (063)143·3348·순천분회 /순천시장천동51·11(0661)3·2457·여수분회 /여수시관분동441 번지. (0662)64-7023 ■ 경상북도건축사회 / 대구직회시중구동인동17/285번지. (053)425-4904 · 포항분최 / 포항시축도동43·8. (0562)44-6029, 46-1664 · 경주분회 / 경주시동천동771·4. (0561)3·3638 · 구매분회 /구 미시원광동964·264, (0546)52·6331 52·7547·안동본의 /안동시서부동157·4, (0571)54·5703·김천분의 /김천시광화동280·1, (0547)2·2541·영주분회 /영주시휴천2동642·52, (0572)33·7504·삼촌분의 / 집촌시중앙동280-3. (0581)2-2706. 52-2286 · 상주분회 /상주시남성봉36-23. (0582)2-4306. 32-3232 ■ 경상남도건축사회/ 경상남도만산시중앙동3713-47. (0551)46-4530~1 · 울산분회 /울산시남구신정봉585-6. (0522)74·8836·전주분회 / 전주시본성통7·20, (0591)41·6403·충무분회 /충무사서호통163·18. (0557)44·3232·김해분회 / 김해시부원동611·1, (0525)35·5692·밀양분회 /밀양사내일통392·1. (0527)355·4848·거창문회 /거창군가창음중앙리274·3, (0598)43·6090·양산문회 /양산군양산음남부동467·19, (0523)84·3050·거제문회 /거재군신현음고현리139·2, (0558)635·3432·삼천포분회 /삼천 포시동금등91-6. (0593)33-9779 🔳 제주도건축사회 / 제주도제주시2도1동1289-6. (064)22-3248, 52-3248 - 서귀포분회 /서귀포시서귀동299-6. (064)62-22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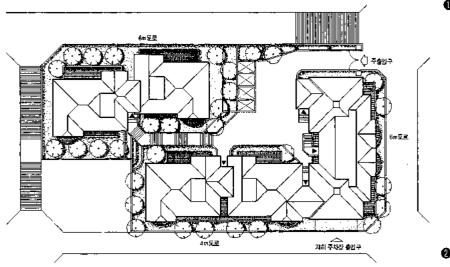
삼성동 아남빌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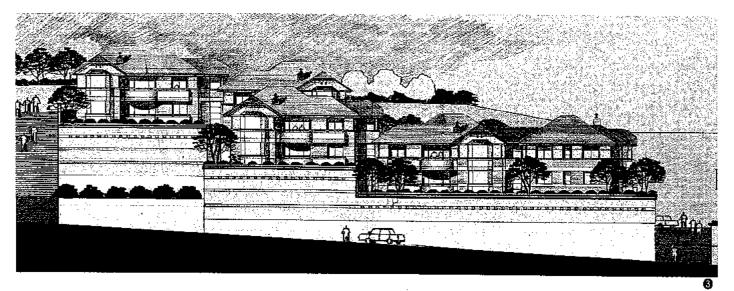
Samsung - dong Anam Villa

金永澤 / 다원 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Young - Taek 대지위치 / 강남구 상성동 95 - 6 대지면적 / 1,980.3m² 건축면적 / 785.4m² 연면적 / 3,457.67m² 건폐율 / 39.66% 용적률 / 78.13% 규모 / 지하 2층, 지상 2층, 연립주택 18세대 외부미감 / 작벽돌 + 아이소코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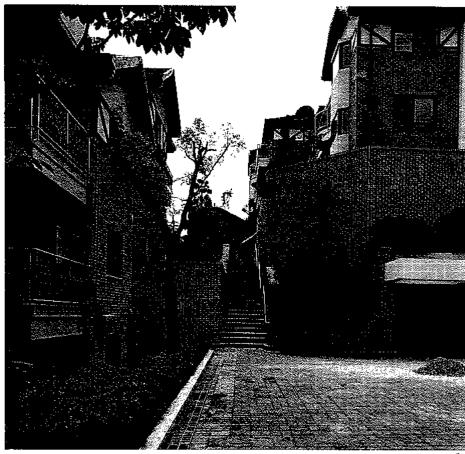
- 남동축 전경
- 🛭 배치도
- ❸ 입면 스케치
- 주출입구 상세
- ❸ 거실 내부
- **6** 중정 주변











본 대지는 비교적 고저차가 심한 대지로서 등 측으로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고 북측으로도 멀리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산의 중턱에 위치하고 있다.

주변은 비교적 조용한 주택가로 점차적으로 연 립주택군이 확산되어가고 있으며,대지 바로 위쪽 에는 국민학교가 위치해 있다.

대지를 접하고나서 제일 처음으로 느낀점은 거 대한 옹벽이 노출되는 인공적 대지조성 보다는 주변과 조화될 수 있도록 대지를 점층적으로 조 성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대지의 지반선은 대지로 진입하면서 점층적으로 높아지도록 3단계로 구분하여 설정함으로써

Sky - line에 변화를 주고 주변의 지세와 순응하 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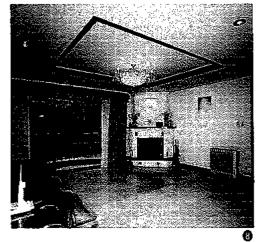
단지 중앙부에는 진입동선을 집약시키고 확산 시켜주는 넓은 옥외공간을 조성하여 단지 전체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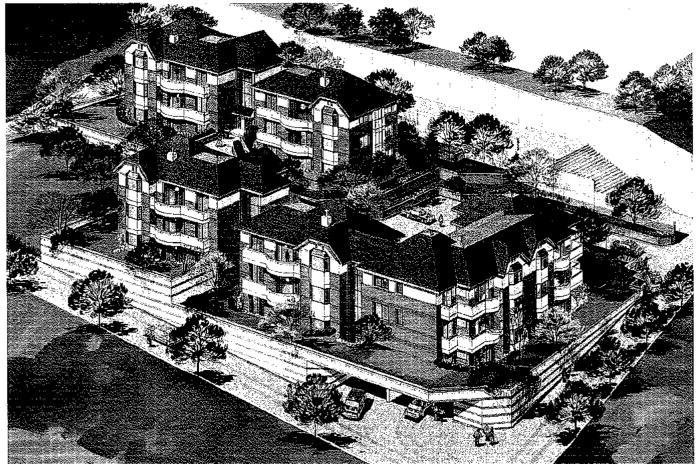
진물의 주개구부 방향은 단지 중심부의 옥외공 간을 중심부로 하여 단지 외각을 향하게 함으로써 각 세대가 프라이버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건물의 외관은 기단 벽체 지붕등의 입면요소들을 가급적 수평으로 분절시켜중 으로써 주변 단독주 택군과 조화를 이물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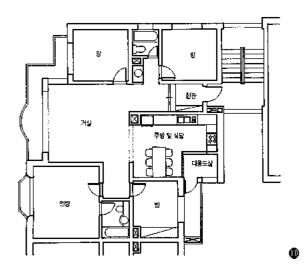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건축주의 요구와 업주자의 입장. 단지의 내적인 문제와 외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와 계획원론적인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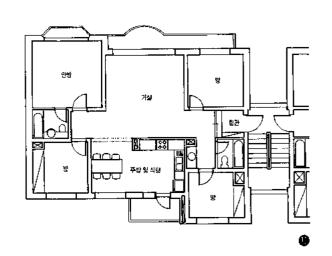
결국 집의 주체는 사람이어야 하므로 모든 선택 은 그 속에서 살아갈 사람들의 마음을 그려보고 아해하는데서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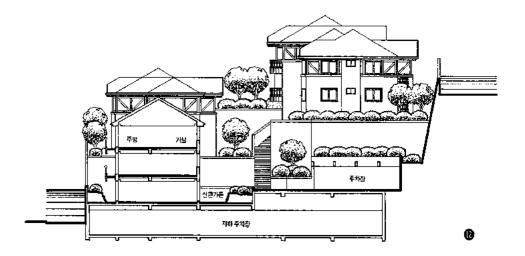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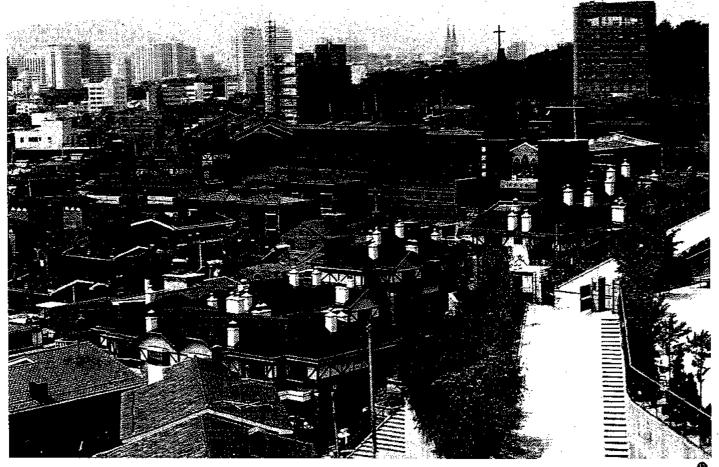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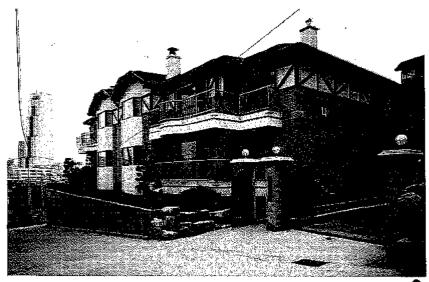












- 🕜 중정 주변
- 🚱 거실 내무
- ② 조감도
- (D) A타임 평면도
- B타입 평면도
- 단면도 동촉에서 내려다본 단지 전경 북동촉 전경

유성 홍인타워

Yusung Hongin Tower

● 배치도

② 엑소노메트릭

🚯 전경

을려다 본 외부상세

⑤ 1층 로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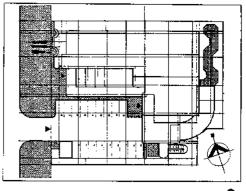
저하충 연결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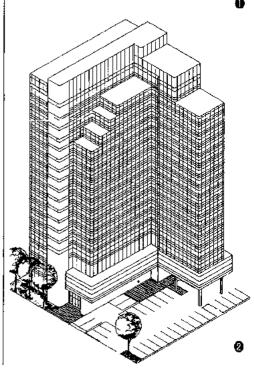
주출입구축 외부 상세

VORK

姜永浩 / 종합건축사시무소 가진 Designed by Kang, Young - Ho

- 대지위치 /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536 - 10, 11
 지역 - 지구 / 상업지구, 3종미관, 방화 · 고도지구
 대지면적 / 2,847.4m²
 건축면적 / 1,220.78m²
 연면적 / 39,145.39m²
 규모 / 지하 6층, 지상 22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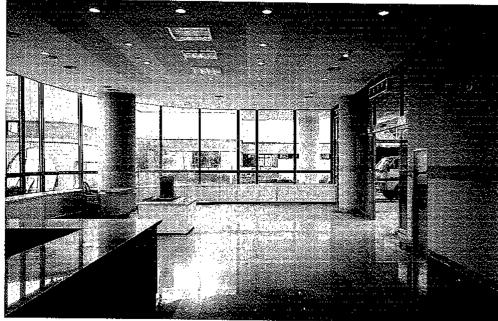
우라나라에서 있어서 도서의 건축은 경제성장에 힘입어 나날이 양적인 발전을 지속하고 있다. 반면 건축적으로는 단순한가로의 그리드와 경제적인 압력 등으로 인해 확일적이고 무미건조한, 일련의 기능주의적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 또한 전통성에 대한 노력의 부족과 작금의 외래문화의급류와 더불어 그 양식의 범람은, 도시가가지는 장소성과 지역성을 결여시키고 더욱이 지방도시로 급격히 퍼지는 대그룹사옥들의 확일화된 패턴 등으로 인해 그지역 특유의 역사와 향토의 순수성을 잃고있다면, 그 일책을 맡고 있는 우리는 과연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던 중 본 프로젝 트를 시작하면서, 도시와 건축이 서로 주 체가 되고 객체가 되는 오브제로 보아 상 정성·장소성·보편성을 표현하려는 의 도를 내면에 두고 계획에 착수하게 되었 다. 상징성에 있어 고층건물은 도시의 인 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고. 잠재력을 갖는 형태로 유추할 수도 있겠 다. 따라서 대전이 갖는 장소성을 볼 때 넓은 들과 낮은 구릉의 선을 따라 형태가 방향에 따라 변화되고, 유연하면서도 적극 적인 상징적 언어를 통해 그 지역의 랜드 마크가 될 수 있는 형태로 이미지가 부각 되도록 의도하였다. 또한 건축적 공간의 구현은 기능적으로 추상화된 이미지를 주 위 환경과의 적절한 복합과 대립적 요소를 조합하여, 그 공간이 갖는 장소성을 시각 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소성과 형태의 만남은 디자인과 기능의 조화로 인 간의 생활과 사무능률에 기여하고, 기존의 도시 성격과 새로운 형태가 순화되어 일치 하며 그 장소만이 가지는 지역적 특성에 충실한 결과로서, 건축은 태어난다고 볼 수 있겠다.

끝으로 고층의 상업적인 건물은 기본적 인 모듈과 반복성을 가진 적충된 공간 속 에서 경제성과 상업적인 목적이 기능적으로 조화될 때, 그 형태는 더욱더 자연스럽 고 친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서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순간의 충동과 날로 변화하는 뉴웨이브에 휩쓸리는 일에서 탈파하여 의연한 자세로서 건축 고유의 순수한 목적을 위해 외미있고 보편타당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1993년 대전에서는 만국박람회가 열린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준비와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가 훌륭한 경험으로 우리에게 남을 수 있기를 바라며, 그 일부로서 미미하나마 본 프로젝트가 대전의 발전에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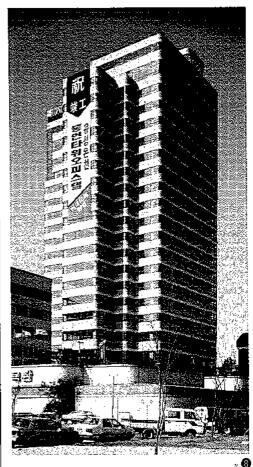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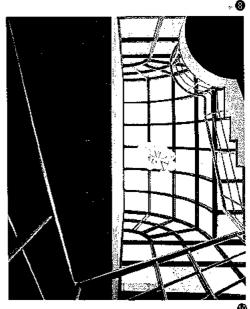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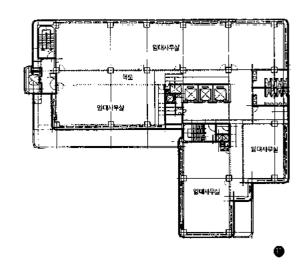


- ♣면에서 본 전경쥪면에서 본 전경取 지하층에서 올려다본 계단실
- 3층 평면도
- 울려다 본 외부상세 5~9층 평면도
- ❸ 18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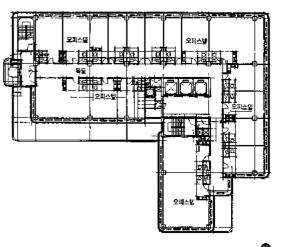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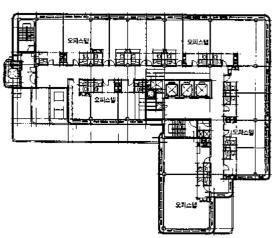












꼰벤뚜알 성 프란치스코의 집

Order of Friars minor Conventual

姜錫元 / 건축사사무소 구룹가 Designed by Kang, Suk - Won

대지위치 /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07 - 11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주차장정비·2종미관지구 대지면적 / 3,318m²

건축면적 / 944.54m²

연면적 / 2,375.46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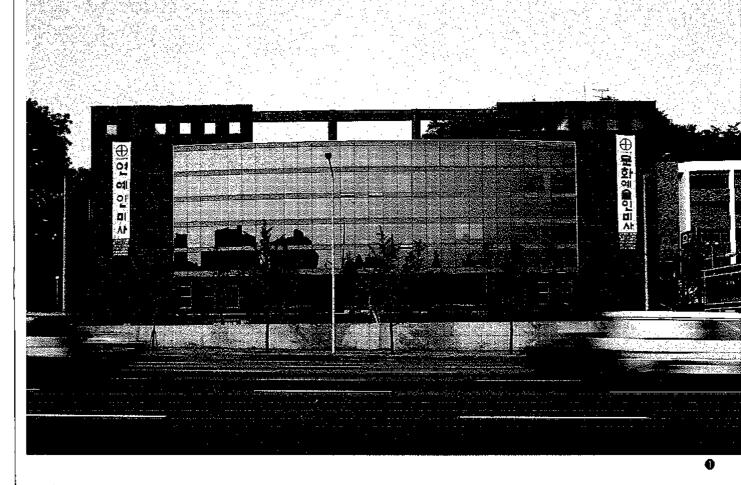
건폐율/ 46.64% (기존건물포함)

용적률/ 110.36% (기존건물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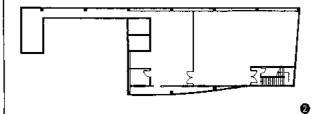
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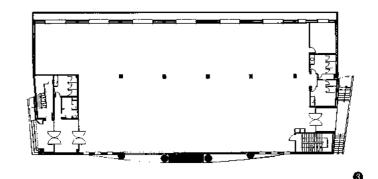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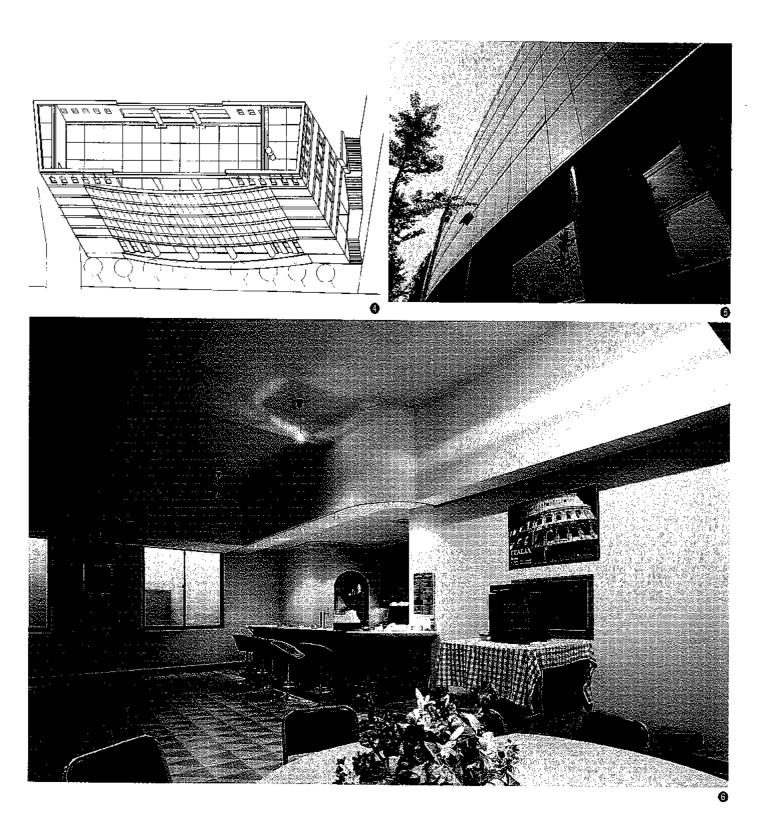
외부마감 / 열선반사유리, 알루미늄쉬트, 적벽돌치장쌓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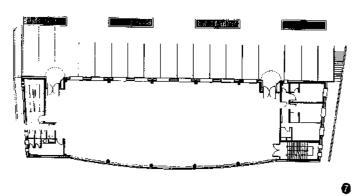


- 아 남축 전경
- ② 지하충 평면도 ③ 수도장 내부
- ❸ 1층 평면도
- 정면 상세
- 🛭 2층 평면도
- 4 엑소노메트릭 기준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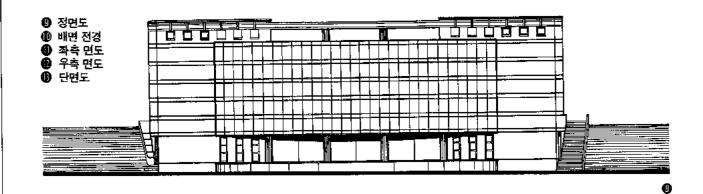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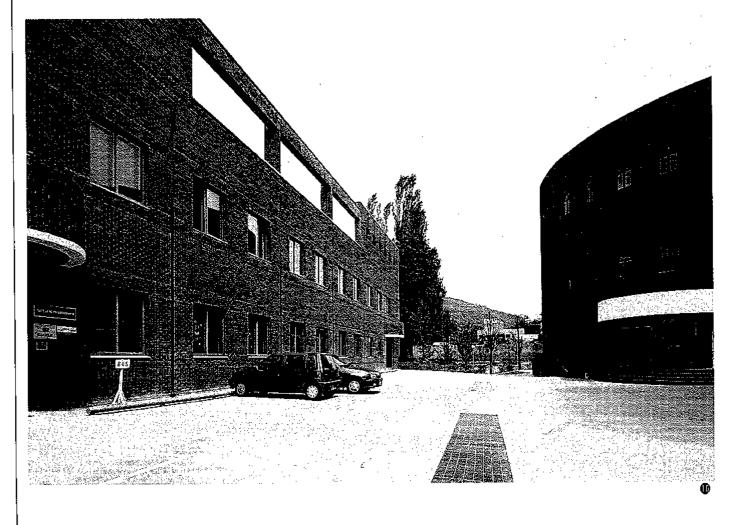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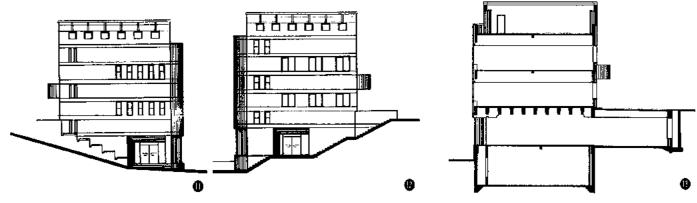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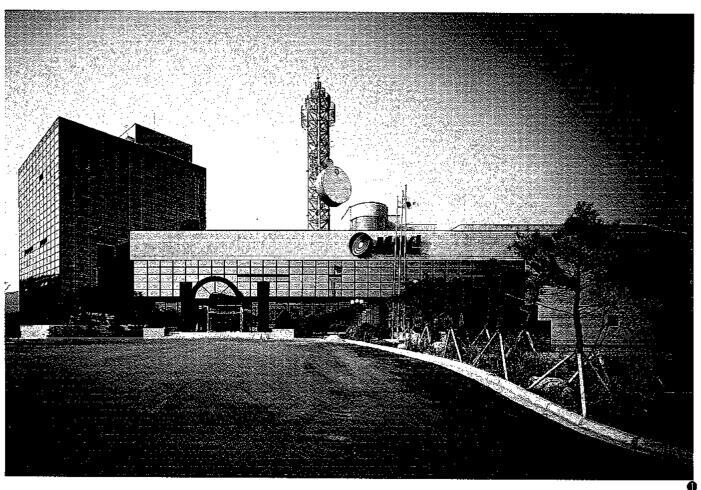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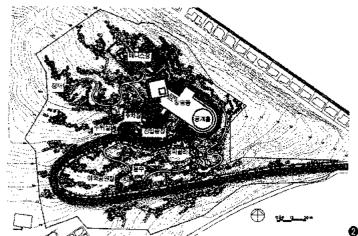


여수문화방송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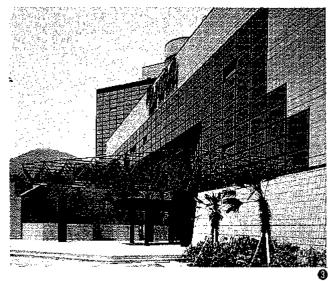
Yosu Munhwa Broadcasting C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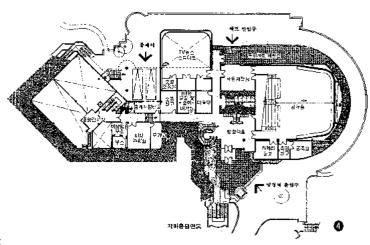
田燦珍 / 환경동인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Chun, Chan - Jin 대지위치 / 전남 여수시 문수동 산 8번지 대지연적 / 42,879m² 건축면적 / 1,867.5m² 연면적 / 4,300.3m² 건폐율 / 4.4% 용적률 / 6.4%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공개홀 - 지붕트라스 규모 / 지하 1층, 지상 4층 외부마감 / 화강석 버너구이, 반사유리, 알미늄커튼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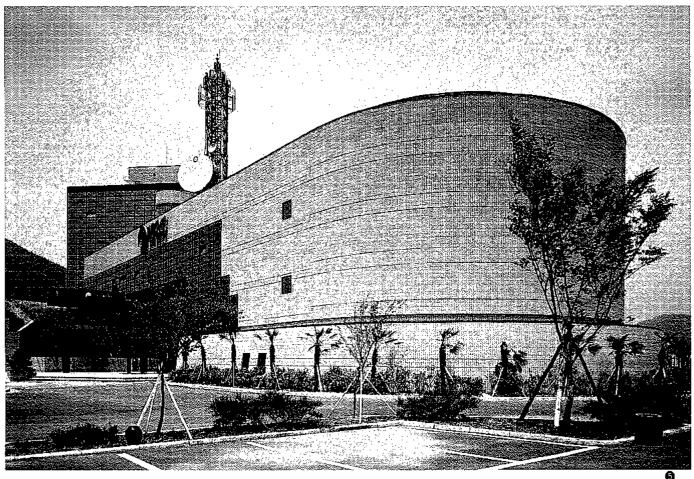




- 남촉전경
- ② 배치도







바다ㆍ섬 …… 그리고 등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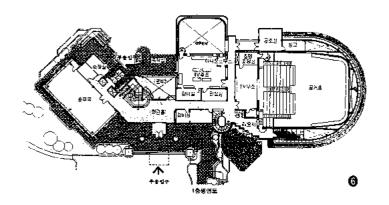
여수는 전통적인 항구도시로서 오랜 역사를 가진 도시이다. 그러나 2000년을 향하는 여수는 남해의 중심 도시로 새롭게 변모하고 있고 그 변모상황의 하나가 여수 문화방송 신사옥 건립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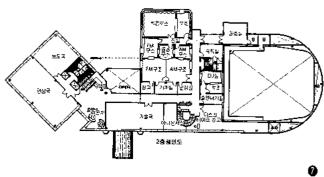
세로운 여수문화방송의 시옥 대지는 신시가 지가 내려다 보이는 산자락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곳에선 신시가지를 넘어 기존 시가지와 항구 를 어렴풋하게나마 볼 수 있다. 건물은 자연 훼 손이 극소화 될 수 있도록 등고선 방향으로 배 치하여 성토와 절토가 최소화 되도록 계획하였 다. 또한 신시가지를 내려다 보는 방송국은 저 충형의 조합으로 장래 증축에 대비한 가능성을 부여하였고 형태적 방송국이 가지는 공공성과 랜드마크적 이미지를 형상화 하려고 노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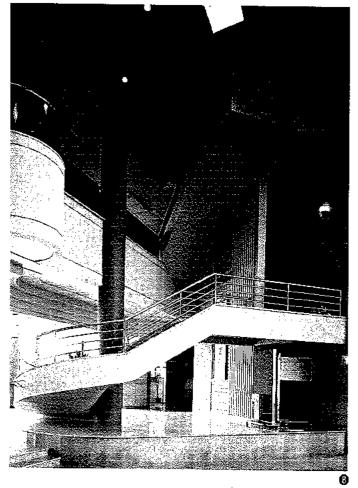
또한 지역 방송국이 지역 사회의 얼굴로서 많은 사람들의 견학이 있을 것이고, 기능적으로 방송·관리·자료들을 위한 동선이 서로 상호성을 가질 것이다. 이에따라 접근 방법을 단일화된 매스의 고충형보다는 저충형의 두개의 매스 - 투명한 유리 매스와 중량감 있는 화강석 배스를 결합하여 수평·수직의 이미지를 나타내었고, 기능적으로 방송동의 출입은 충별로 가능하

도록 해서 공개 홀로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하고 사무동과는 외부동선이 분리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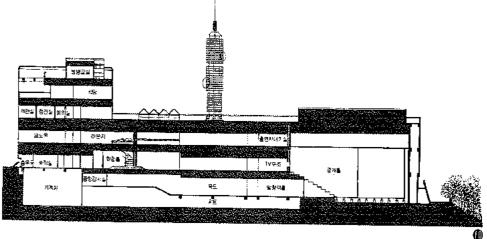
하나의 지역사회에서 방송국이 우뚝하게 서 있는 것보다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친근감과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장소가 되기를 기대하 면서 여수문화방송국의 모습을 다시 한번 그려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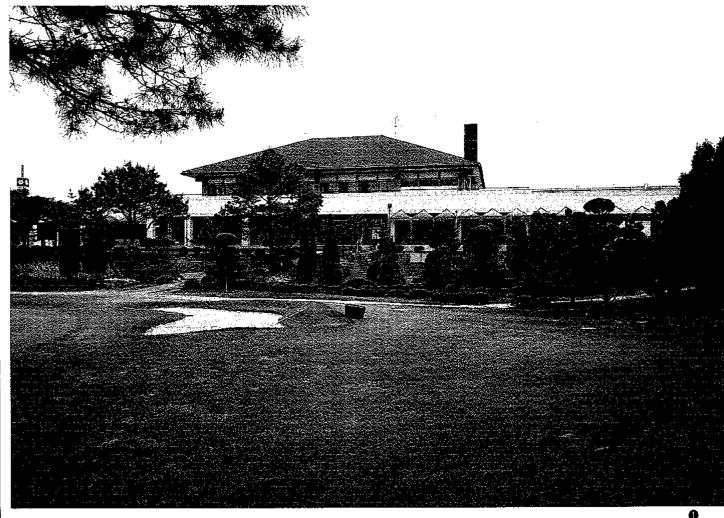
- ③ 동축에서 바라본 파사드④ 지하층 평면도⑤ 남동축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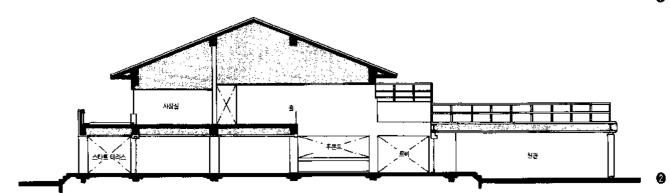
-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로비내부
 남측 부출입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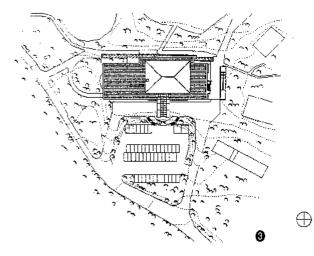
도고 컨트리 클럽

Dogo Country Club Ho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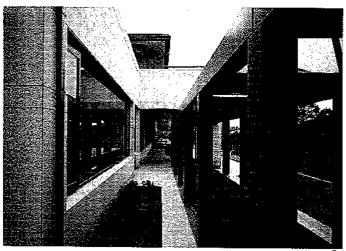
趙載元 /(주)창조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Cho , Jae - Won 대지위치 / 총납 아산균 선장면 신성리 지역ㆍ지구 / 도시설계의 지역 대지면적 / 7,087㎡ 건축면적 / 2,165,32㎡ 건페율 / 30,55% 용적률 / 37,82% 연면적 / 3,228.81㎡ 구조방식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주요외장재 / 화강석 + 드라이버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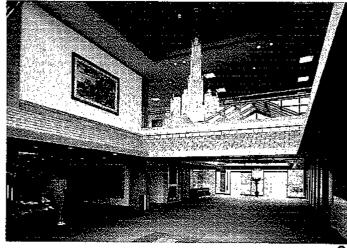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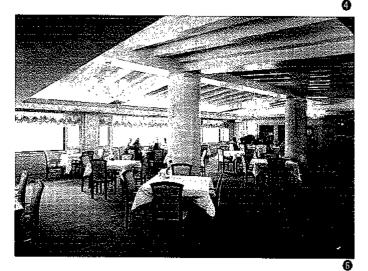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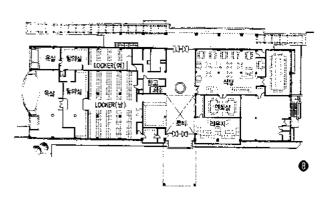
- 전경② 단면도
- 🚱 배쳐도
- 4 외부 상세
- 🗗 로비 open부 상세
- 식당 전경● 로비에서 본 주출입구
- ❷ 1층 평면도
- ②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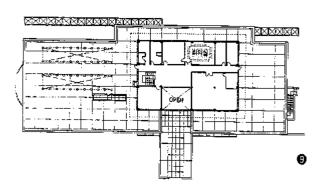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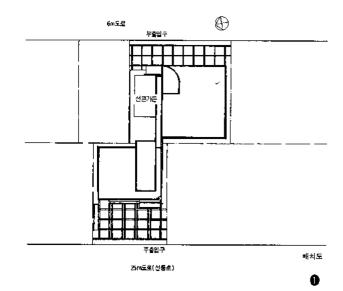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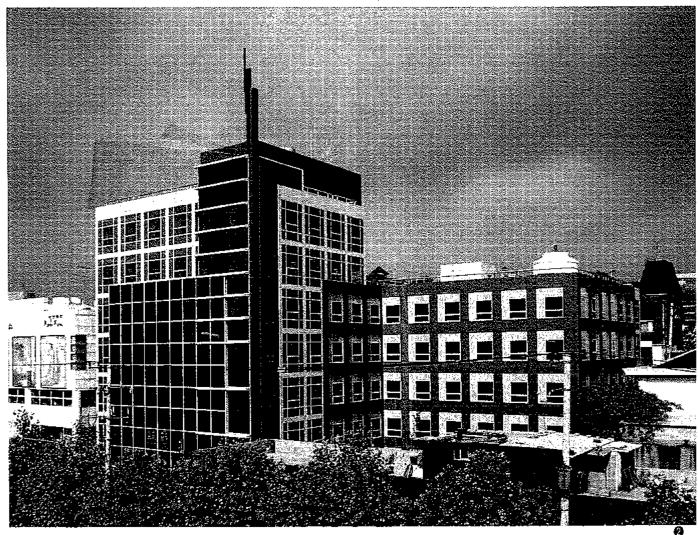


남한강 빌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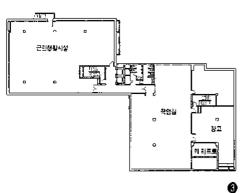
Namhangang Buil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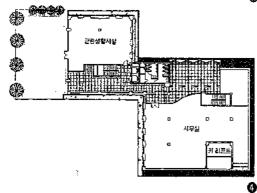
吳澤吉 / 종합건축사사무소 장 Designed by Jang Design Group





- 배치도
- ② 축면 전경
- 🚯 지하 [층 평면도
- ❹ 1층 평면도
- 6 서측 입면
- ⑦ 후면 부출입구측 상세
- ② 오픈된 썬큰 가른
- ❸ 입구 캐노피
- ② 2층 평면도





대지위치 /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85 - 3, 12 대지면적 / 1.399,10m² 건축면적 / 6.85.40m² 연면적 / 6.835.46m² 건폐율 / 48.99% 용적률 / 253.21% 규모 / 지하 3층, 지상 7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 알루미늄 패널, 스팬드럴(spandrel)

유리, 절연반사유리

이 건물은 '로데오 거리'라는 명칭으로 가로의 성격을 규정자어 가고 있는 선통로에 면해 있다. 주변에는 크고 작 은 개인 의상실과 대형 의류 메장들이 들어서 있으며, 압구 정동을 비롯한 강남지역 상권의 핵심을 이루는 지역에 위치 해 있다.

대지가 속한 가로의 특성과 임대용 건물이라는 현실적 조건이 프로젝트의 성격을 기본적으로 결정하는 전제가 되 었다. 주위의 건물과 비교해 볼 때 식별성이 뚜렷한 외관을 가지고, 다양한 임대자를 수용하여 그들의 경제적 · 심리적 요구를 담을 수 있는 전용성이 큰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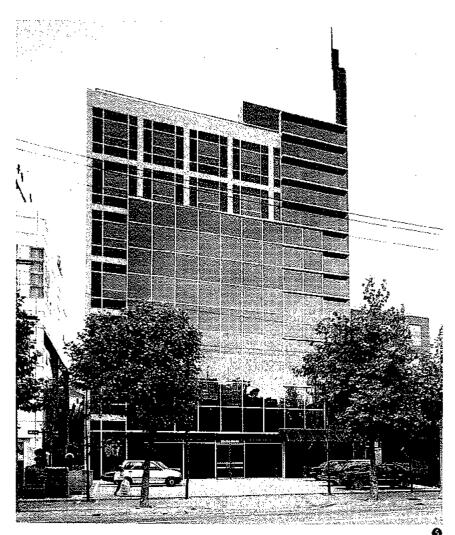
두 개의 지번으로 나위어져 있고 그중 한필지만이 가로에 면해 있으며 다른 하나는 전면 가로에서 약 30m 후퇴해 있는 대지형태에 따라 두 개의 장방형이 서로 접하는 부분에 코어가 자연히 위치하게 되었다. 이렇게 대지 형태와 경제적 요구에 따라 내부공간이 결정되었고 2개의 직육면체가 연결된 매스가 구성되었으며, 외파(skin)를 적절히 다름으로 통일감과 변화를 주어야 하는 문제에 접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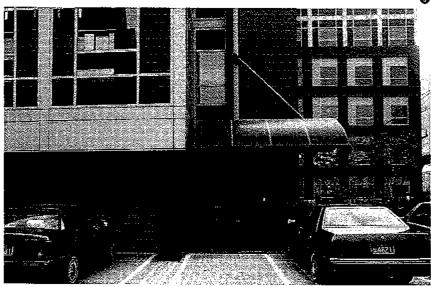
외피는 곧 기존의 가로 맥락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현재 선릉로는 상업적 요구에 상용하는 건물들이 다양하고 복잡한 가로정관을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외장재료의 패턴과 색채는 의류업이라는 특정업종의 창작 및 상업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가로라는 연상적 외미의 맥락에 부합시켜 선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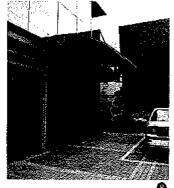
주출입구 상부의 캐노피와 기둥을 수작으로 연장시킨 강 철 프레임은 진입의 느낌을 강조하고 인지도를 높이고자 하는 의도에서 사용하였으며, 전체적인 업면의 비례나 분할에 서는 텍스타일의 느낌을 가져보자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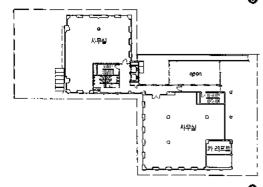
설계작업과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건축주와 사공자가 보 역준 관심과 이해도는 남다른 것이었음을 밝히고 싶다.











안원산업사옥

Anwon Industry Building

金昶一 / (주)정립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Chang - II



대지위치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지역 · 지구 / 일반상입지역, 주차장정비지구 1종집단미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대지면적 / 2,460.0m² 건축면적 / 1,210.44m² 연면적 / 18,192.30m² 건폐율 / 49.20%

용적률 / 432.38% 규모 / 지하 4층, 지상 10층 구조 / 칠근콘크리트 라멘조

· 외부미감/ 화강석물깔기+버너구이 컬러복충유리 커튼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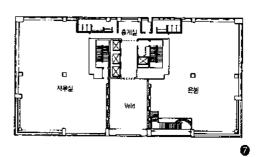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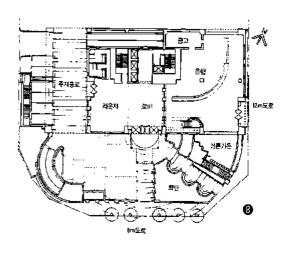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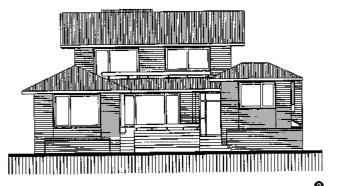
- 스케치
- ② 전경
- 주출입구 상세
- 4 선근부 계단5 엘리베이터 홈 전경
- **(3** 1층 로비
- 🕖 2층 평면도
- 🛭 배치 및 |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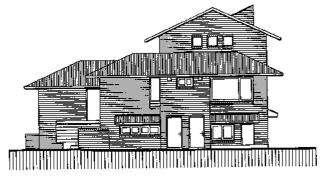
대전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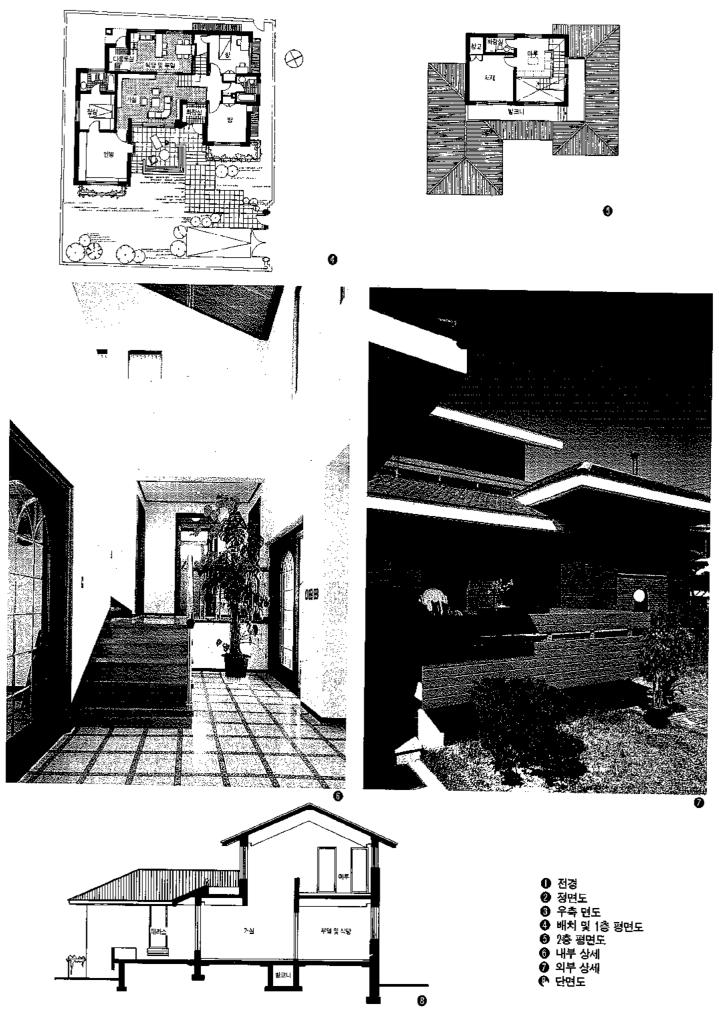
Daejeon Residence

河學秀 十鄭時春 / 종합건축사사무소 정주건축 Designed by Ha, Hak - Soo & Chung, Si - Choon 대지위치 / 대전시 서구 변동 18 - 3 대지면적 / 417.4m² 건축면적 / 137.5m² 연면적 / 220.75m² 규모 /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 / 조직조 외부마감 / 외벽 - 붉은벽돌 지붕 - 천연슬레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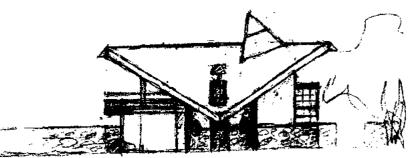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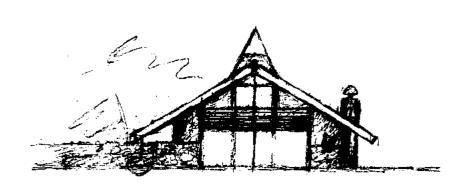
KETCH

可够从增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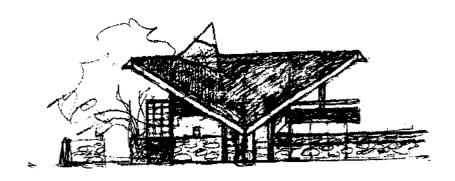
lee Kun Jong's Country Ho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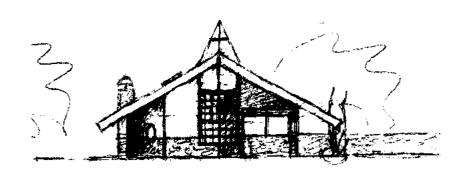
郭在煥 / (주)종합건축사시무소 백 Designed by Kwak, Jae - Hw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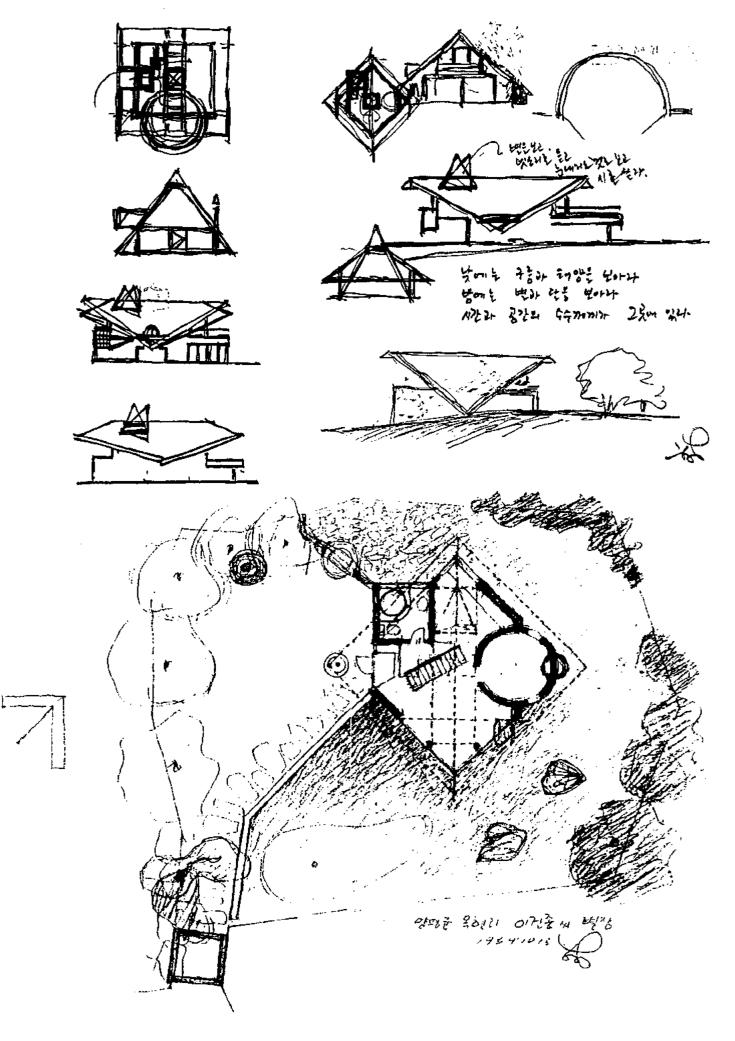




HE 程正别时 够记 智紀 生 叶中 公教学 그러나 이상을 하지 246 495 यह अम्ब्रेशिह 松地 坎伯星的现象 나는 吃多分之 이양인 为码 化妆建艺 出生的 ひゅうシントレナ 용 문 말 나 그곳인 눈박신 대양과 かを福り देह माराना कार्रेड 나를 인도하는 别人人为 ECHEPHS 此姚 恕 知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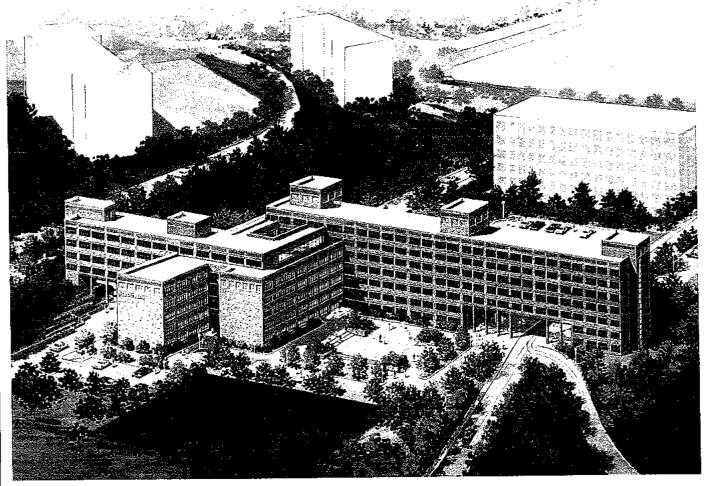
조선대 공학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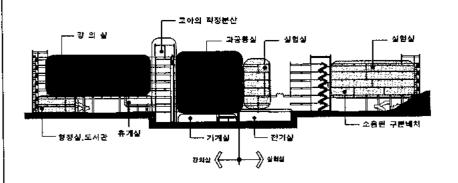
Engineering Hall in Chosun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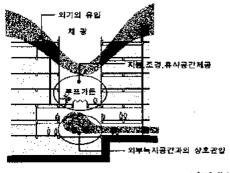
盧亨來 / (주)종합건축사시무소 建正 Designed by Ro, Heoung - Rae

대지위치 / 전남 광주시 조선대학교 생산교육 실습장 부지 일부 건축면적 / 5,298.2m² (1602.7평) 연면적 / 30,673.7m² (9.278.8평) 용도/ 교육연구시설 층수 / 지하 1층, 지상 7층 구조방식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기계설비 / 냉난방 설비, 위생설비, 소화설비 전기설비 / 수변전설비, 동력설비, 전등 • 전열설비, 통신설비 옥외시설 및 조경 / 주차장, 선큰플라자 (Sunken Plaza), 조경식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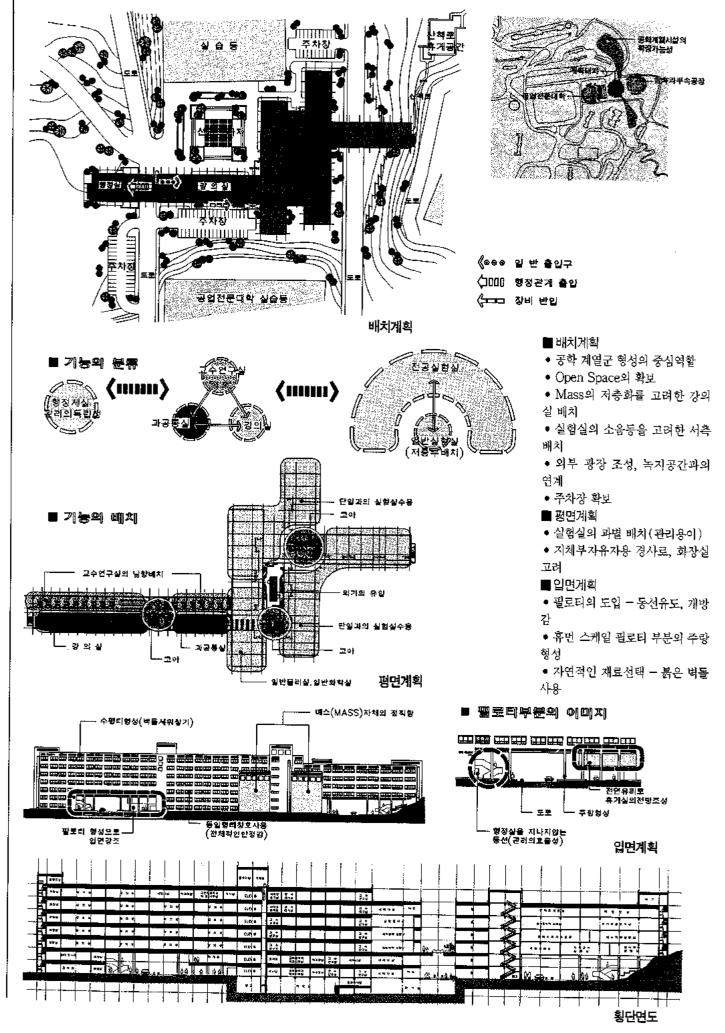
외부마감 / 적벽돌 치장쌓기







단면계획



용기를 잃지 않는 건축사님께

Advice on the Professionalism

方喆麟 / 종합건축사사무소 목인 · 인토 by Bang, Cheol - Lin 지리하고 길게만 느껴졌던 봄이 지나고나면 성숙되고 활짝갠 여름이 시작될까 기대 했지만 눅눅하고 끈적거리는 장마가 지리한 계절을 지속시키고 있어 올해도 우리 건축사의 마음은 한결같이 우울하기만 합니다.

한해의 반을 보내면서 전반기에 했던 일도 돌아보고 잘된일, 잘못된일도 반성하며 그해의 목표에 맞추어 후반기 계획도 새워왔던 계절입니다.

다음 작품에서는 좀더 잘 해보겠다고 다짐도 해보고 봄에 이루지 못한 계획을 가을로 잡아 보기도 하고…. 이 모두가 우리의 건축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 싶은 욕구 때문이요, 거느린 식구 걱정도 해야하는 책임의식 때문이지요. 그러나 우리 건축사에게 올해의 여름은 유난히도 무거울 수밖에 없는 계절이 되어버렸습니다. 돌아볼 일도 회상할 일도 없으며, 후반기 계획도 세울 수 가 없는 마이너스 I. Q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노상강도에게 옷마저 빼앗겨 생각의 리듬도 마음의 여유도 모두 깨어져 허둥대는 벌거숭이 처녀가 되어 버렸습니다. 올해 후반기가 되면 얼어붙었던 건축규제도 풀리고 건축법, 건축사법도 정리가 되어 건축사 지위도 좀더 올라가고 그러면 어깨도 펴고 생각도 키우며 생활의 리듬도 되찾아 보겠다던 우리 건축사의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겨 버린듯 합니다.

우리 건축사들은 풍랑 속으로 점점 빠져 들어가는 배를 타고 항해하는 기분입니다. 풍랑을 이기지도 빠져나오지도 못하는 선장이 원망 스럽습니다. 자연을 모르고 순리를 모르고 도(道)를 모르는 그래서 자기 위력만을 과시하려는 선장에게 우리 건축사의 몸을 맡긴 것같아 안타깝기만 합니다.

우리는 시끄럽게 이런일 저런일을 벌려서 세상을 떠들석하게 하는 정치가보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조용한 태평성대를 유지시키는 정치가가 유능한 정치가라는 노장의 명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도 경제도 도가 있어 도를 알고 순리대로 풀어야 부작용이 적고 반대 급부적 피해발생이 적어진다는 이치가 담긴 말이 아니겠습니까. 과열 경기속에 집의 수가 많아지면 집이 남아돌게 될 것이고 집이 남으면 더이상 짓지 않을 것이라는 너무도 평범하고 단순한 이치를 왜 터득치 못하고 강제적 건축규제를 지속하는지 답답합니다.

강제로 집을 못짓도록 규제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산에 위배되며 대한민국 헌법에도 위배된다는 사실쯤도 정말 모르는지 안타깝습니다.

우리 건축사들은 애초부터 정치에 관심이 없지 않았습니까. 누가 무슨정치를 하든 우리의 본분만을 생각해 오지 않았습니까. 누가 무슨 정책을 논의하던 우리의 이상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건축문화를 꽃피올까, 어떻게 우리의 건축을 세계속에 심어놓을 수 있을까 — 우리 건축사들 만큼 건축문화 수준이 그나라 문화의 총체적 척도임을 안식하고 우리의 문화률 걱정하는 이가 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건축문화는 결국 우리의 손으로 일깨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일해오지 않았습니까.

기업인은 기업에만 물두하고 스포츠인은 체육에만 열중하며 학생은 학업에 열중해야 하듯 우리 건축사도 견축에만 몰두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사실이고 또 우리는 그렇게만 하고 싶은 심정이지요. 그러나 정치인들이나 행정가들이 해야 할 부분에 왜 자꾸 신경이 쓰이게 될까요. 우리의 본분만 생각해도 다른나라에 뒤지지 않으려면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데 엉뚱한 대회에 소일을 합니다.

「우리의 환경을 정말 만족할 만큼 완성되어 가고 있는가 ? 2백만호 건설은 꼭 단시일에 이루어져야 하는가 ? 우리의 자연은 진정 보존되고 있는가 ? 관주도의 건축설계경기에서는 과연 좋은 안이 선택되어지고 있는가 ? … 그리고 이 모든것들이 전시행정에 미치고 마는 것이 아닌가? 단 기간내에 많은 업적을 남긴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급한 마음에 질보다 양위주의 정책을 펴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서두르던 2백만호 건설은 과연 우리에게 '새로운 환경' '새로운 주거문화'를 던져줄 수 있는 것인가 ? .

우리에게는 전국건축사 대회에 귀빈으로 참석하여 및마디 격려를 하고 떠나버리는 정치인들보다 진정 우리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또 우리의 건축문화를 꽃 피우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하겠다는 종합적 판단력을 가지고 우리 건축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중시할줄 아는 정치인 행정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건설과 건축을 구분할줄 알고 건물과 건축을 구분할줄 아는 ㅡ. 그래서 문화국의 정치인이며 행정가 입을 자부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 행정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떠벌려 놓은채 마무리가 안된 환경 개발 사업이 얼마나 산재해 있으며 또 순리에 의하지 않고 억지로 시행하는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임자가 벌인 사업은 수수방관한 채 새로 벌이는 사업에만 관심을 쏟는 사람보다 어떤 일이는 끝마무리를 잘하는 정치인 행정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2백만호의 주택건설도 이제까지의 주거환경 완성도로 보아 쾌적성을 논하기 이전에 완벽한 질과 마무리가 되어질까 걱정이 앞섭니다. 건축계, 건설계에 미치는 수많은 피해의 결과물 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주위에는 무지한 건축주가 많습니다. 부동산 매매시 내는 수수료보다 설계비를 못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렇지요. 건설비는 자재가 들어가니 덜줘봤자 나쁜자재가 쓰여질 것같은 기분이 들어 심하게 낮추지 못하면서도 설계비는 왠지 그냥 지불하는 것같아 아깝다고 느끼는 거지요. 특히 요즈음과 같은 불경기에 조금 머리회전이 빠른 건축주는 설계비 경합을 시켜 건축사들은 곤욕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싼 설계비에 설계를 맡긴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좋은집은 좋은 설계에 의해 탄생되고 좋은설계는 결코 낮은 실계비로 할 수 없음을 모르니 그런 건축주는 좋은 집을 가질 자격이 없는 셈이죠. 오히려 설계에 충분히 시간을 할애하여 기능분석과 배분, 도시콘텍스트와 인간감성에 도움을 주는 내외부 공간구성 등에 창작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어야 하며 구조계획, 기계설비, 전기설비, 방재실비, 그리고 토목과 음향에 이르기가지 좋은 컨설턴트들을 동원시켜 최대한의 노력으로 경제적이면서 건강한 집을 설계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되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건축사들이 청사진 몇장 그려주고 청사진 값 받는 업자가 되느냐, 건축주로 하여금 좋은 집을 가질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는 조언자가 되느냐는 건축주의 마음가짐에 달려있음을 왜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설계와 건축사의 좋은 조언이 결국은 좋은 집을 갖게하며 나아가 많은 건설비와 시간을 절약해 준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나마 깨달는 건축주는 다음일을 할때는 건축사와 역할이나 설계비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지요.

우리 건축사들은 마음이 순수하고 모질지 못하여 늘 불이익을 당합니다. 건축사의 사(士)는 선비를 뜻하는 말이고 선비는 '학식은 있으나 벼슬을 하지 않는 사람' 또는 '학문을 닦은 사람'이란 내용을 담고 있는 말이니 건축사는 곧 건축에 관한 해박한 지식으로 건축을 갖고자 하는 이에게 조언을 해주어 좋은 건축을 갖게 해주는 역할을 갖고 있는 사람이며 다른 「士」를 가진 직업인과 마찬가지로 응당의 보수가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집을 갖고자 원하는 사람이 조언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업자 취급을 하는 것은 결코「좋은 집」을 갖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집」을 갖겠다는 생각만 있는 사람이냐.우리 건축사보다는 목수와 이야기하는 편이 빠르지 않겠습니까. - 변호사 없이 적집 재관에 뛰어 드는 것과 같이. 물론 우리 건축사들도 그런 류들의 건축주와는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들을 교육도 시켜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 건축사 지위에 부당한 불이익이 오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때때로 요구하는 설계비 경합에도 응하지 말아야 되겠지요. 그것이 우리 서로를 위하는 길입니다. 지금의 설계 보수요율에는 Design Fee가 포함되어있지 않는 말 그대로 「설계보수」에 해당하니 그것 마저도 경합에 의해 부당한 보수를 받는다면 결코 좋은 건축사의 역할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 건축사들에게 요즈음과 같이 불어익을 받았을때는 역사적으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불이익의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어떠한 악조건의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 '건축사들이 용기를 잃지 않을때 그리고 우리의 지위가 떨어지지. 않을때 비로소 한국건축은 「환경」에 앞장서고 「문화」를 리드하는 주체가 될 것이며 건축설계의 의뢰자가 판이건 개인이건 건축 안팎을 사는 모든 이들도 「최고의 환경」 『양질의 문화」속에 사는 긍지를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수퍼 초고층 건물과 그 구조적 개념

Superskyscraper and its Structure

FPOR

金昌壽 /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by Kim, Chang - S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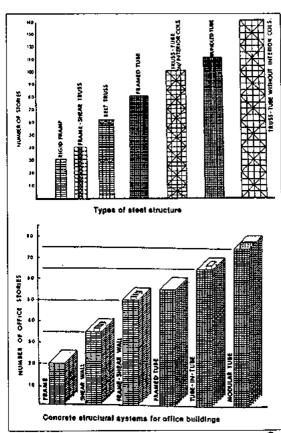
1. 역사적 배경과 초고층 건물

초고층 건물(Skyscraper)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대중교통 수단이 편리한 도심의 집중화에 대응하여 1880년대에 미국의 뉴욕과 시카고에서 출현되었다. 세계 최초의 초고층 건물은 100년전에 미국의 시카고에서 세워진 Home Insurance Building인데, 이 건물은 단지 10층 높이 밖에 되지 않지만, 현재의 초고층 건물을 가능하게한 혁신적인 구조 방식이 사용되었다. 1885년 이전까지만해도 고층건물에는 건물 하중을 지지하기 위해 최고 1.8m 두께의 육중한 조직벽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시카고의 구조기술자 William L. Jenny는 철골조로 건물 하중을 지지하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Home Insurance Building에 적용시켰다. Jenny의 구조 혁신은 몇년후에 등장한 전기 엘리베이터와 함께 미국 건축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된다. 뉴욕과 시카고의 도심 地價가 폭등함에 따라 건물도 점차 높아지게 되었는데, 그 주요 과정을 보면, 20층의 Masonic Temple (1891년, 시카고 소재), 50층의 Metropolitan Life Insurance Tower (1909년, 뉴욕 소재), 60층의 Woodworth Building (1913년, 뉴욕 소재), 77층의 Chrysler Building (1929년, 뉴욕 소재), 102층의 Empire State Building (1931년, 뉴욕 소재) 등으로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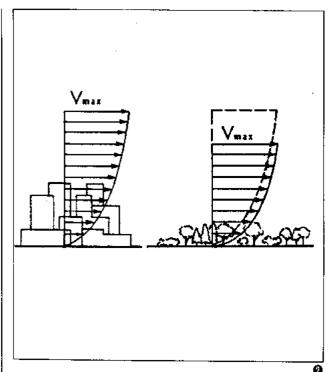
과거 20년 동안 초고층 전물의 높이에는 콘 변화가 없어서 아직도 110층의 Sears Tower (1973년, 시카고 소재)가 세계 最高의 건물로 남아 있다. 그렇지만 최근의 초고층 건물은 구조설계의 발전으로 여러가지 형태의 보다 우아하고 정제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건축공사시 구조자재의 使用量이 놀랍게 감소되었다. 고속 엘리베이터, 고강도의 경량자재, 구조 시스템의 개발에 힘입어 현재 건축가들은 500층 규모의 수퍼 초고층 건물 (Superskyscraper)을 계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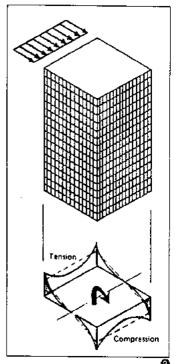
2. 초고충 건물의 구조적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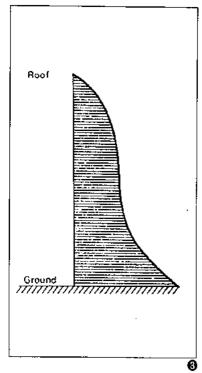
초고층 건물은 두가지의 주된 힘을 받게 되는데, 그하나는 건물 수직하증이며 또 하나는 바람이나 지진에 의한 횡력이다. 그러나 강철과 콘크리트는 압축력에 매우 강하기 때문에 200층이상의 건물에서도 건물 수직하증은 구조상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구조적 안정성의 요점은 횡력의 해결에 있다. 30~40층 규모의 건물은 기둥과 보를 서로 剛接습시키는 剛性骨組 (Rigid Frame)로 충분히 안전한 구조물을 만들 수 있다. (그림 1 참조) 그러나



초고층 건물의 구조방식







풍압은 지표면에서 높아질수록 기하학적으로 커져서 (그림 2 참조) 풍압을 받는 초고층 건물은 마치 건물 기초는 지면에 연결되고, 건물 최상부는 자유로운 하나의 켄틸레버 보 같이 작용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풍압을 받는 쪽의 외벽 기둥은 인장력을 받게되고, 그 반대쪽 면의 외벽기둥은 압축력을 받게 된다. 그리고 풍향과 평행한 두 외벽의 기둥들은 압축력과 인장력을 동시에 받게되어 전단 (Shear) 변형을 일으키게 된다. (그림 3, 4참조) 전단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벽기둥들은 옹벽이나 철골, 본크리트 골조 혹은 대각선 部材(Diagonal Braces)와 상호 견고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초고층 건물의 설계를 위해서는 바람이 불 때 건물 주위에 발생하는 소용돌이 (Vortex Shedding) 현상에 대한 연구가 뒤따라야 한다. 이 소용돌이 현상은 건물의 幅과 풍속에 따라 달라지는데, 각각의 소용돌이는 건물을 스쳐 지나갈 때 마다 저기압을 형성하고, 이 저기압은 건물을 잡아 당기는 역할을 한다. (그림 5, 6참조) 그러다가 어떤 풍속이 되면, 소용돌이가 규칙적으로 형성되면서 그 주기가 건물의 작연 진동주기와 일치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건물은 소용돌이에 휩싸이게(Lock - in) 되어 풍향과 수직방향으로 점차 크게 진동되고, 마침내는 전복하게 된다. 구조 기술자는 바랍터널(Wind Tunnel)속에 계획한 건물의 모형을 놓고, 여러차례의 실험을 통해서 건물을 소용돌이에 휩싸이게(Lock - in) 하는 풍속을 결정한 다음, 그에 따라 건물의 最少 強度를 계산해 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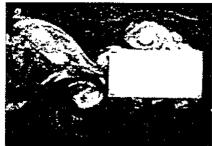
기본적으로 건물의 강도는 적용되는 구조방식에 달려있다. 그리고 구조설계의 목표는 건물이 충분히 안전하고도 또한 경제적이 될 수 있는 구조자재의 불을 산출하는데 있다. 예를들어, 뉴욕의 Empire State Building을 다시 지을 경우, 현재의 구조설계 방식을 적용하면 강철 사용량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 구조기술자의 입장에서 보면, 수퍼 초고층

② 고도에 따른 풍속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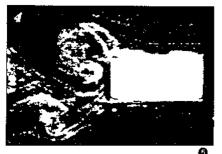
- 풍압에 의한 응력 분포
- 전단력의 외벽 분포
- ⑤ 소용돌이(Vortex) Shedding) 현상
- 소용돌이 현상에 의한 건 물의 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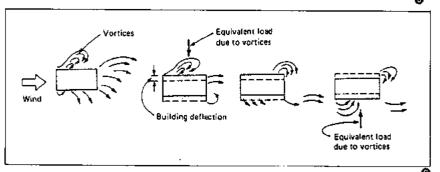
건물설계에서 가장 도전해야 할 특징은 건물의 높이가 아니라 건물높이와 건물 基部(Base)의 幅과의 비율, 즉 "縱橫比(Aspect Ratio)"이다. 幅이 넓은 基部는 하중을 넓게 분산시키고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부분의 초고층 건물은 6~8 정도의 縱橫比(Aspect Ratio)를 가진다. 200층(약 720m)의 건물의 경우, 안전상 6정도의 縱橫比를 갖는다고 보면, 약 120m의 基部가 필요함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창문에서 60m나 떨어진 곳에서 일하기름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수퍼 초고층 건물을 설계하는 구조기술자의 목표는 10이상의 縱橫此를 가지고도 충분히 강풍에 견디어 낼 수 있는 안전한 건물을 설계하는데 있다.

3. 초고층 건물의 구조방식

과거 40년 동안, 초고층 건물 기술자들은 횡력을 자지하기 위한 구조방식으로 部쳐를 건물의 코아가 아닌 외주부에 보강시키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1960년대 초기 Fazlur Kahn에 의해 정립되었는데, 이 외벽이 보강된 구조물은 마치 켄틸레버 보처럼 거대한 속이 빈 튜브와 같이 작용한다. 그래서 횡력에 의한 훰을 지지하는 부분은 좁은 코아가 아닌 건물의 모든 외주부가 되는 구조방식이다.

다음은 초고층 건물에 적용되는 여러가지의 구조방식인데, 자세한 구조적 해석은 차후로 미루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각 구조방식의 기본 개념과 그 효율성에 대해서 중점을 두기로 한다.

1. 骨組 튜브(Framed Tub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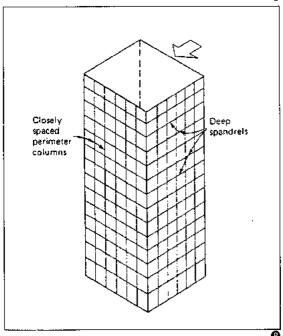
이 구조방식은 외벽에 기둥을 밀접하게 배치하고, 각 기둥을 스펜드럴 보와 剛接合시켜 횡력을 지지하는 방법인데, 가장 널리 알려진 골조 튜브 구조물은 뉴욕에 있는 110층의 World Trade Center이다. (그림 7 참조) 골조 튜브의 주된 결점은 건물의 강도가 밀접하게 놓여진 기둥과 스펜드럴 보(Spandrel Beam)와의 접합 정도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그림 8 참조) 각각의 접합부는 전문기술자를 들여서 하나하나 剛接合하여야 하는데 초고층 건물 전체를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경비가 소요된다.

이상적으로 보면, 골조 튜브는 풍압에 대해 순수한 켄틸레버 보처럼 작용하여 휨에 의한 인상력과 압축력이 외벽 전체에 고르게 퍼져야 한다. 그러나, 보와 기둥으로 구성된 장방형 튜브는 단일체가 아니기 때문에 전단력은 각 모서리 부분에서 가장 크게 된다. (그림 3참조) 이로 인해 기둥과 보에는 휨이 생겨 구조물은 변형된다. "전단 변형(Shear Lag)"이라고 알려진 이 현상은 골조 튜브의 효율을 감소시키는데 특히 최대 전단력이 생기는 구조물의 基部(Base)에서 가장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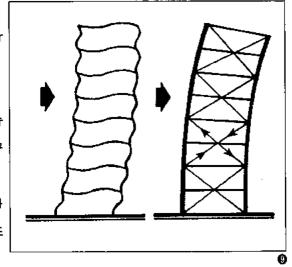
2. 트러스 튜브(Trussed Tubes)

이 구조 방식은 Kahn에 의해 개발되었는데, 전단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대한 대각선 部材(Diagonal Braces)를 건물의 외벽 기둥과 상호 연결시키는 방식이다. 삼각형 형태는 본래 사각형 형태보다 강하기 때문에, 삼각형 부재를 가진 건물은 사각형 부재를 가진 건물보다 단단하여 부재의 사용량을 보다 감소시킬 수 있다. 건물의 대각선 部材는 어느 정도의 건물 수직 하중을 자지하고, 대부분의 풍압을 흡수하며, 튜브의 剛性을 증대시키는 등 여러가지의 기능을 하게 되는데, 그 결과 트러스 튜브 구조물은 거의 순수한 켄틸레버 보처럼 작용하게 된다. (그림 9 참조)





- World Trade Center (市육)
- ❸ 골조 튜브 개념도
- ⑤ 트러스 튜브 개념도
- **(** John Hancock Center (시키고)
- Citicorp Center (뉴 옥)
- Citicorp Center의 구 조개념도
- Bank of China Tower의 구조 개념도
- ① Sears Tower (시카
- ⑤ Sears Tower의 구조 모듈



트레스 튜브 구조물로 잘 알려진 건물로는 시카고에 있는 100층의 John Hancock Center와 뉴욕에 있는 59층의 Citicorp Center와 최근에 I. M.Pei에 의해 설계된 76층의 Bank of China Tower(홍콩 소재)이다. (그림 10, 11, 12, 13 참조)

3. 묶음 튜브(Bundled Tubes)

가장 잘 알려진 묶음 튜브 구조물은 시카고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1454ft) Sears Tower이다. (그림 14 참조) 튜브건물의 외주부가 너무 크게 되면 외부 트러스로는 전단변형을 除去하는데 충분하지 못하게 된다. Sears Tower를 설계하는데 있어 Kahn은 휨과 전단력에 대한 지지력을 보강하기 위해 각각의 사각 모듈 안에 내부 기둥을 밀접하게 배치하는 구조방식을 창안하였다.

이 구조방식은 구조 본래 형태의 손실없이 어떤 형태로든 조립 가능하고, 어느 높이에서나 개개의 모듈 높이를 조정할 수 있는 長點을 가지고 있다. 예를 돌면, Sears Tower는 50층, 66층, 90층에서 모듈의 높이를 조정하여 건물의 형태를 변화시키고 있다. 이 구조방식의 단점은 모듈 외곽의 밀접한 기둥 때문에 각 층은 모듈 단위로 구획되어, 공간 활용 계획에 어느 정도 제약을 준다는 점이다. Sears Tower는 9개의 22.5m의 정사각형 모듈로 되어 있어, 각 층은 22.5 × 22.5m의 크기로 구획된다. (그림 1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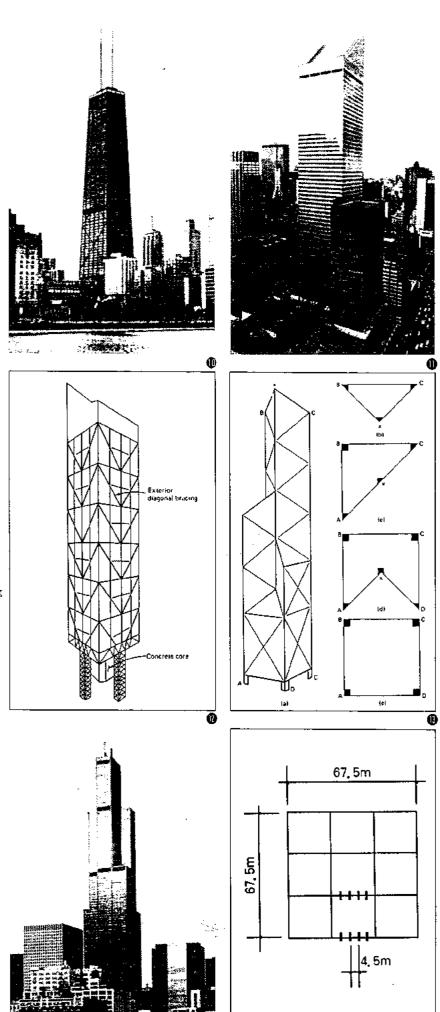
4. 내부적으로 연결된 외벽기둥 구조 (External Columns Internally Connec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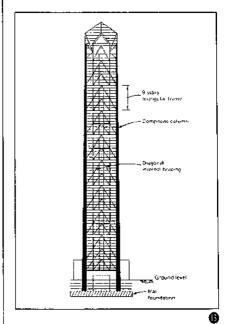
여기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번째 방법은 내무보강 튜브(Internally Braced Tubes)로 대각선 部材로써 건물 양쪽 반대편의 기둥들을 상호 연결하는 구조방식이다. William LeMessurier는 82층의 Bank of Southwest Tower (휴스톤 소재)에 이 구조방식을 적용하였다. (그림 16, 17 참조) 7.4의 종횡비를 가진 이 날씬한 건물은 휴스톤 지역의 허리케인으로 인한 극심한 전통에도 이겨낼 수 있도록 매우 강하게 설계되었다. 9층짜리 모듈을 8개 쌓어올린 이 건물에서 개개의 모듈은 두 종류의 거대한 삼각형 강철무재(Superdiagonals)를 포함하고, 이를 삼각형 강철부재는 모든 수직 하중을 8개의 거대한 콘크리트 기둥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기둥은 휨을 이기기에 충분하도록 넓은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다. 또한 강철 대신에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기둥음 해결함으로써 상당한 공사비를 절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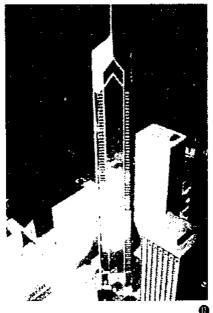
두번째 방법은 비교적 낮은 빌딩을 위한 이중 튜브(Tube in Tube)연데, 이는 건물의 코아를 보강하여 건물 수직 하중과 횡력을 동시에 지지하는 내부 튜브로 작용하게 하는 구조이다. 코아의 네 모서리에 설치된 거대한 대각선 部材는 외부골조 튜브(Outer Braced or Framed Tube)와 연결되어 횡력에 대해 매우 效率的인 單一體로 작용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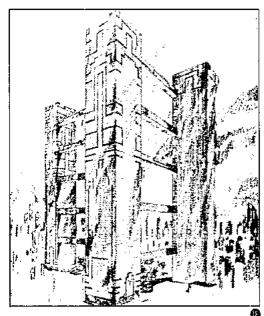
5. 초강도 골조 (Superframes)

Khan과 그의 동료 Hal Iyengar에 의해 고안된 이 구조방식은 $8 \sim 12$ 층 높이의 거대한 건물상자를 쌓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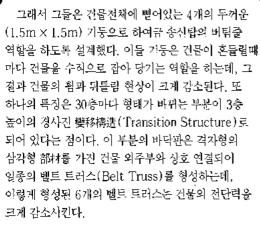
올리는 개념이다. 각각의 건물상자는 트러스 모양의 격자형 部材를 내무적으로 보강시킨 거대한 보와 기둥으로 구성되고, 또한 주된 구조 자재가 건물의 외주부에 집중되어 있어 횡력에 대해 강하게 작용한다. 튜브구조와 거의 같은 效率性을 가지지만, 건물의 모서리 부분에 構造資材를 집중시킴으로써 바람에 의한 뒤틀림을 크게 줄였다.

초강도 골조의 주된 長點은 건물이 構造的인 面보다. 美的인 面이 더욱 돋보인다는 점이다. 더구나 자연광을 직접 받아들일 수 있는 아트리움을 건물의 여러높이에 배치할 수 있어 건물내에 활기를 붙어 넣을 수 있다. Vincent DeSimone은 초강도 골조를 적용하여 9의 종횡비를 가진 140층(540m) 높이의 수퍼 초고층 건물을 계획하였다. (그림 18 참조)

DeSimone은 또한 보다 혁신적인 개념을 가진 수퍼 초고층 건물을 개발하였다. 높이 600m의 수퍼 초고층 건물을 안전하게 자으려면 100m×100m 정도(종횡비 6)의 基部가 필요한테 이는 상가등을 임대하기에는 너무 넓은 면적이다. 그래서 DeSimone은 각각 16의 종횡비를 가진 4개의 가느다란 건물을 각각의 대지 위에 짓고, 여러개의 스카이웨이(Skyway)로 약 20층 높이마다 건물을 상호 연결하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그림 19참조) 그 결과, 건물군은 6의 종횡비를 가진 내부가 비어 있는 거대한 초강도 골조로 작용하게 된다. 이 구조방식의 장점은 4개의 건물중 어느 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거나 정전이 되어도 스카이웨이를 통해서 빠르게 대피할 수 있다는 점이다.

6. 버팀줄 타워(Guyed Towers)

버팀줄로 당겨진 송선탑은 인간이 만든 構造物中 가장 큰 종횡비를 갖는데, 시카고에 있는 Harry Weese 설계사무소와 뉴욕에 있는 Lev Zetlin 구조회사는 그 송신탑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210층의 Chicago World Trade Center를 위해 합동으로 이 구조방식을 개발하였다. (그림 20 참조) 복잡한 도심에서 초고층 건물을 송신탑처럼 인장 케이블로 지지한다는 것은 대지 여건상 불가능한 일이므로 건물 자체에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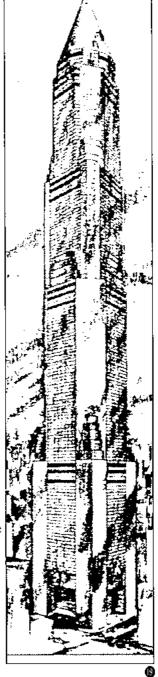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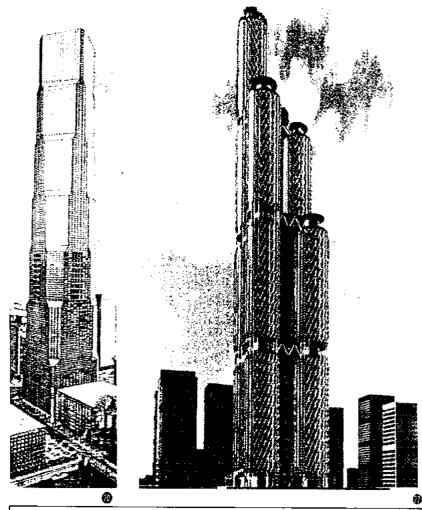
7. 댐핑 시스템(Damping Syste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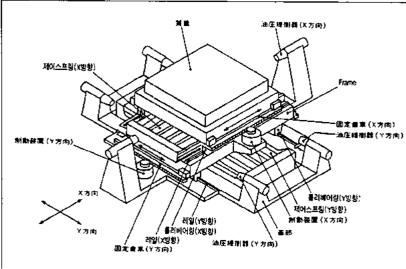
수퍼 초고층 건물의 설계에 있어 강풍을 견딜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진동을 흡수하는 댐핑 시스템이다. 댐핑 시스템에는 두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構造的 방법이요 또 하나는 機械的 방법이다.

건물을 점차 가눌게(Tapering) 하는 것은 바람으로 인한 소용돌이 현상을 줄이는 효과적인 構造的 방법이다. LeMessurier는 바람터널(Wind Tunnel) 실험을 통해서 완전한 정형의 건물보다 테이퍼링한 건물이 2배 가까이 강하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바람의 소용돌이 현상을 줄이는 또 다른 構造的 방법으로는 건물 외주부에 소용돌이를 교란하는 장식물을 설치하는 방법과 건물 상부에 2~3개의 큰 바람구멍을 뚫어 놓는 방법이다. 바람구멍을 만드는 방법은 진동을 30~40% 정도 줄일 수는 있지만, 엘리베이터 코아를 건물. 외주부에 설치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가장 창의적인 機械的 방법으로는 LcMessurier가 뉴욕에 있는 Citicorp Center를 위해서 창안한 同調 메스 템퍼(Tuned Mass Damper)방식이다. 건물 최상부의 특별실에 설치된 400톤의 메스 댐퍼는 매우. 매끄러운 콘크리트 표면 위해 놓여져 있고, 전기 유압 펌프를 통해서 나오는 오일은 콘크리트 표면 위에 얇게. 깔려서 매스 댐퍼와의 마찰력을 최소화시킨다. 건물이 혼들릴 때마다 메스 댐퍼는 건물의 움직임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그 진동을 흡수하게 된다. 그러나 이







- Bank of Southwest Tower의 구조개념도
- Bank of Southwest Tower의 모형 사진
- 🚳 초강도 골조 구조물
- 4개의 건물군으로 이루어진 초강도 골조 구조물
- ② Chicago World Trade Center의 계획안
- ❸ 일본에서 개발된 TMD
- ② 일본에서 설계된 200층의 수퍼 초고층 건물

시스템의 최대 단점은 전기 유압 펌프장치가 고장나면, 그 효과를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 댐핑 시스템은 단지 건물 사용자의 안락감을 향상시키는 정도로 만족해야 한다.

또 다른 機械的 방법은 World Trade Center에 처음 사용된 일명 "비스코일레스틱 템핑(Viscoelastic Damping)"시스템이다. 비스코일레스틱 댐퍼는 끈적한 중합체(Polymer)로 코팅된 강철판과 이 강청판의 앞뒷면에 붙여진 또 다른 두개의 강철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댐퍼는 보와 기둥에 연결되어 있는데, 건물이 흔들릴때 마다 댐퍼의 강철판은 서로 미끄러지면서 전단력을 흡수하게 된다. 비스코일레스틱 댐핑 시스템은 圖調 메스 댐핑시스템과 거의 효율이 같지만, 공사비가 보다. 저렴하고 작은 공간을 차지하며, 전문적인 기술자가 요구되지 않고, 잦은 보수나 관리가 필요하지 않는 長點을 가지고 있다. 더군다나, 댐퍼가 수동적이고 중복설치 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매우 신뢰할 만 하다. 그러나 주요, 短點은 중합체 코팅(Polymer Coating)이 20년이 지나면 수명이 다하기 때문에 댐퍼를 교환할 수 있도록 시공해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위의 두가지의 機械的 방법을 응용한 댐핑시스템이 급속히 개발되고 있는데, 특히 지진이 많은 일본에서는 건물의 진동을 50% 정도까지 흡수할 수 있는 댐핑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다. (그림 21 참조)

4 뱆음말

수퍼 초고층 건물은 건물 주위의 도시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마치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150~200층. 규모의 건물이 세워지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는 미국과 같이 경제가 발달하고 초고층 건물이 필요한 나라에서도 도시계획 규정, 교통체계, 市 지원설비, 임대 문제 등으로 인해 150층 정도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기 때문이다. 만약, 200충 규모(약 28만평)의 오피스 건물을 도심에 짓게 되면, 개발업자는 임대문제로 인해. 엄청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근래에 지어진 대부분의 초고층 건물은 사무실, 상가, 아파트, 호텔 등을 포함하는 복합건물이거나 50~70층. 규모의 건물인데, 이는 건물의 경제성을 고려한 결과라. 하겠다. 그러므로 수피 초고층 건물을 세우려면 실질적인 경제적 이유 보다는 아마도 그로인해. 얼어지는 명성과 자부심에 그 의미를 두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DeSimone은 "수퍼 초고층 건물은 마치 달로 쏘아올린 로켓트와 같아서 사람들의 꿈과 자신감을 나타낸다"고 지적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1984년 63층의 대한생명 빌딩이 세워진 이래로 그 이상의 초고층 건물은 설계되지 않았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수퍼 초고층 건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진으로 인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200층 이상의 건물이 설계되고, 이를 뒷반침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되고 있다. (그림 22 참조) 경제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今明間 200층 이상의 수퍼 초고층 건물이 설계되어지기를 회망하면서 이 글을 마친다.

초청강연

독일의 도시설계

Urban Design and Natural Environment

SSUE

Prof. Dr. Ing Michael Trieb 조인숙 정리

3. 종합 토론회(Discussion Session)

사 회: 좌장이신 강 병기 한양대학교 교수 님, 토론자이신 세 분, 국토개발연구원의 안 건혁 수석연구원, 서울특별서의 전 희상 도사 경관과장 그리고 주식회사 아키프렌종합건축 사사무소의 김 우성 소장님을 소개합니다. 통 역은 역시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김 기호교 수께서 수고하셔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따라 종합토론후 Floor에 계신 분들의 질문 도 받겠습니다. 이제부터 토론회를 시작하겠 습니다.

강 병기: 장시간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많이 남아 계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Trieb교 수께서 그가 가지고 있는 Urban Design에 관한 사상이랄까 사고의 방식을 말씀해 주셨 고, 오늘은 직접 이분이 운영하고 계시는 아 틀리에가 수행하고 있는 Project 두개를 가 지고 Trieb교수의 Urban Design에 대한 철학 또는 사고방식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 현해 나가는가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래서 어제와 오늘 여기에 와 계셨던 분들은 그간에 이론적인 일관성이라든가 그런 것들 을 찾아본 분들도 계실 것이고 혹은 항상 우 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이론과 현실이 그렇게 일치하지 못하는 고민을 안고 있구나 하는 것 올 내다본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지금 소개 된 토론자로 지명되신 세 분은 모두가 도시건 축이나 도시설계 분야에 관여하고 계시면서 도 제각기가 일하는 입장과 직능의 영역이 다 른 분들어십니다.

이쪽에 계신 안 진혁 수석연구원께서는 우리나라의 도시설계에 관한 제도 혹은 정책 방향에 관한 정책 건의를 하는 연구기관에 계셔서 말하자면 현실적으로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과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어떠한 이상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타당한 진로를 찾아낼 수 있을까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하고 혹은 또 기억해 오셨던 분입니다.

두번째 서울시의 전 회상 도시경관과 과장 님은 최근에 서울시가 우리의 도시경관에 관 해서 제도적으로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의지 의 표명으로 만든 도시경관과의 초대 과장이십니다. 이 분은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면 현실에 일어나는 (Trieb교수의 말씀처럼 하면) 변화라든가 특이한 것이라든가 하는 등 동을 좀더 전체적 맥락속에 끝고 들어갈 수있을까 하는 실제적 민원의 현장에서 여러가지 고충을 계속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아키프랜의 김 우성 소장님은 이 두 분과는 달리 Trieb교수가 지적한 바 있는 건축가로서의 자기 표현, 일종의 엘리트 줌, 그러한 것을 도시속에 자기자신의 존재를 심고자 (직능상) 애쓰고 계시는 실무건축가 의 한 분이십니다.

오늘 이 세분에게서 Trieb교수의 이제의 일반적인 이론강연과 오늘의 실예를 통해서 작업의 내용과 과정을 보여주신 강연에 대해 세가지 입장에서 세 분이 보선 감상 혹은 이 전 등을 한 분에게 10분 내지 15분 간씩 듣고 자 합니다. 그 중에서 한국이라는 설정속에서 세가지 다른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의 감상을 통해서 Trieb교수의 강의와 프로젝트의 실 용성을 한 번 조명해 봄으로써 청중 여러분들 이 궁금해하고 계시고 혹은 이해가 모자랐던 부분에 대한 보충을 하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 다. 이 세 분께서도 Trieb교수에게 한국과 비교해서 여쭈어 보고 싶으신 부분이 있을 것 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 질문이 있으시면 질 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중석 에 계신분에게도 사회자기 말씀하신 것처럼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마는 효율적인 진행 을 위해서 질문하시고자 하는 부분을 메모해 서 주시면 그것을 김 기호 교수께서 Trieb교 수에게 전하고 그걸 총괄해서 대답해 주는 것 으로 하겠습니다. 한국 분의 발언은 통역을 하지 않겠습니다. 김기호 교수께서 그냥 옆에 서 개인적으로 통역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앉아계시는 안 건혁 선생님부터 말씀 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혁: 국토개발연구원의 안 전혁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한건축

사협회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도시설 계에 대해 건축가들이 상당히 부정적 이미지 를 갖고 있는 차에 이번에 건축사협회에서 이 런 자리를 별도로 바련하신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샤실 도시설계는 도사 계획의 일이라기 보다는 바로 건축가들의 일 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도시 설계와 건축이 좀더 가까와지고 서로의 공감. 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이 자리에 나와 좋은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의를 통해 독일의 도시설계는 우리의 도시설계와 상당 히 거리가 있다 하는 것을 느꼈고 또 여러가 지 도시설계의 기본적인 원리 또는 방법론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아마 이 자리 에 계신 분들도 좋은 여러가지 발표 내용들음 많이 배우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어제, 오늘의 발표 내용에 대한 질문이라기 보다는 독일에서 하는 도시설계 와 우리 현실을 비교해서 몇가지 중요한 사항. 들을 발씀드려 보고 마지막으로 띷가지 질문 을 할까 합니다. 어제 발표 내용에서 느낀 것 으로 상당히 공감하고 있는 점들 몇가지를 정 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트립교수께서 발씀하 신 첫번째 내용은 도시라는 것이 생태학적 견 지에서 볼 때 영원히 변화하는 하나의 생명체 며,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리 적 환경에 대한 조건들을 제시하고 또 우리가 대처해야 될 일련의 사항들을 열깨워 주고 있 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태적으로 적합한 도시환경이라는 것은 비단 생명 유지 를 위한, (표현을 생태기술적이라고 하셨습 니다마는) 생태기술적인 조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심리적이고, 정신적이고, 그리 고 분화적인 그럼 범위까지도 그 영역을 확대.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것은 바 로 저희들의 표현으로 '환경의 질' 과 같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이 환경의 질이라는 것이 그동안 우리가 늘 도시설계를 하면서 주 장해 온 최종적인 목표와 일맥상통하는 것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설계에 있 어서 생태학적 접근이라는 것이 무슨 새로운 것이 아니라 도시설계 그 자체일 수가 있다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두번째, 발표자는 환경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가 갖추어야 할 일 반적인 질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 치 자연에 내재되어 있는 질서와도 흡사한 개 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철서라는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물체하나 하나의 외관이나 색채 등에 한정된 것이아니고, 그것은 자연현상이 시각적으로 하나도 동일한 것이 없듯이, 동일하지는 않지만전체로서 갖는 동질성, 상호간의 조화를 외미한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발표내용에서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연속

성과 변화에 대한 언급입니다. 오늘 슬라이드 를 보셨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이 도시설계 작 업에서 잘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변화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이 변화의 자취가 어떻게 잘 보존되어 맥을 잇는 가 하는 것이 도시설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과 제라고 생각됩니다. 또 변화속에 남아있는 연 속된 질서 - 우리의 표현으로 보면은 전통의 개념과도 유사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러한 전통과 같은 것을 면면히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편 이런 것은 도시의 문화적인 힘 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본적 인 도시설계의 개념 그리고 도시설계 방법론 의 틀을 가지고 우리의 도시현실 또 도시설계 가 하고있는 작업의 내용, 현황과 대조해 볼 때 우리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을 알 수 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문화적인 수준의 차이에서 오는 몰이해라든지, 또는 우리 도시 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차이 즉, 급성장, 도시의 고밀화에서 오는 과중한 개발압력이 나 지가 상승, 행정능력의 차이에서 비롯 되 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서 우리가 우리 도시를 돌이켜 보면은 과거의 많은 것들을 소멸시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 다. 과거의 환경이 현대적인 수요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마 어쩔 수 없는 또 당연한 일이라고도 생각됩니다. 또 이런 문제는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고도성장을 경험했던 일본 에서도 유사하게 겪은 문제라 생각이 됩니다. 어제 제가 개별적으로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만 일본과 한국의 도시에 있어서의 차이가 과 연 무엇이냐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상당히 유사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대답을 들었습니 다. 문제는 과거의 질서가 소멸된 후에 이것 이 인위적이든 자연적이든 새로운 질서가 확 립되지 않고 있다는 데 우리 도시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다시 말해서 이런 과도기의 너무나 빠른 변화, 생성과 파괴의 변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데 우리 도시설계가 안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연 이러한 과도기에 도시설계는 무엇을 해야 되 느냐? 또 트립교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신 여러가지 연속성과 질서라는 측면에서 볼 때 과연 우리가 유지해야 될 질서가 무엇이며 이 질서의 정체가 무엇이냐? 하는 점에서 사실 우리는 상당히 방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독일의 경우 시민의 참여, 시민이 생각하는 것. 시민이 원하는 도 시가 무엇이냐 하는것을 찾는데 도시설계가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의 도시설계에서도 시면과 건축가에게 제시할 도시 환경 개발의 방향 (물론 우리 수 준에 맞는 것이어야겠지요). 분명히 제시가

되어야 되고 또 모두가 납득할 만한 것이 만 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시민과 건축 가들을 설득시키지 못하고 여기에 반발과 마 찰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도시설계의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을 포 함해서 여기 많은 전문가들이 참석을 하셨습 니다마는, 이러한 문제 발생에는 이 도시설계 전문가, 도시계획가, 관여하고 있는 정부의 각 기관의 잘못이 물론 크다고 생각이 됩니 다. 그러나 이것은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도시 설계라는 것이 건축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씽 사실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 너무나 빠른 변화에 익숙해졌고 지나치게 새로운 것을 선 호해 왔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은 것 도 이미 구식이고 뒤떨어진 양식으로 생각하 고 아무도 Respect하지 않는데에 우리 도시 설계의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됩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의 도시에 있어서 도시설계라는 것은, 그간 많이 경험을 해왔습니다마는, 새 로운 도시 즉 신도시를 도시설계하는 것과 조 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여러가지 방법론을 상세하게 보여 주셨습니다마는 독일의 경우 우선적으 로 과거로 부터 도시설계가 시작되고 있는 것 올 우리가 보아 왔습니다. 즉 역사의 흐름, 맥을 또, 역사적인 어떤 연속성을 추구해 나 가고 그러한 요소를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현 대건축이 존재하고 새로운 도시환경이 만들 어지는 것이 독일의 도시설계인데 반해서, 우 리의 도시 설계 현실은 너무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시가 안고 있는 이런 현실을 바탕에 깔고, 제가 트립교수께 한 두 가지만 질문을 할까 합니다.

(1) 하나는 우리의 경우에 도시가 급속하게 팽창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시가지, 새로운 도시, 가존 시가지라 할지라 도 과거로 부터 단절된 시가지의 도시설계를 할 때 과연 어디서 부터 도시설계를 시작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질문드리고싶고.

(2) 두번째는 어떤 새로운 것, 어떤 모더니 좀(Modernism) 이 나 포스트모더니즘 (Postmodernism) 과 같은 새로운 호흡을 추구하는 건축가들의 욕구와 갈등을 도시설계를 통해서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 이 두가지를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강병기: 감사합니다. 지금 안 건혁 씨 말씀 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과거에서 부터 발상하기 보다는 새로운 것에서 무언가 발상하는 그 러한 과도기적인 현실속에 있습니다. 많은 민원을 맡고 있는 전과장님, 독일의 경우하고, 말하자면 과거에서 실마리를 찾는 상황하고 새로운 것에서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민원이

랄까 욕구 속에서 행정을 하시는 입장이시겠 는데 말씀부탁드립니다.

전희상:서울시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어 제 오늘 Trieb교수의 강연을 듣고 독일의 도 시설계, 도시디자인이 그렇게 섬세하고 상당 히 디테일 한다는 점에 많은 느낌을 받았습니. 다. 제가 도시경관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마 는 도시설계 분야도 제 소관으로 들어와 있습 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설 자리나 앞으로 취해야 할 자세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되 그런 기회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서울은 분명히 독일은 아니고 가장 큰 차이는 제가 보기에 전통적인 도시의 외형문화가 근본적 으로 다른데다가 문화의 생명력이나 적응력 이 우리의 목조건축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의 지금의 도시경관을 한번 살펴 보고 고민을 한번 말씀 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시울의 도시경관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 서는 서울이 지금까지 지나온 과정을 한번 돌 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서울은 금세기 초까지만 해도 사실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간 직하였던 곳입니다. 당시의 도성의 모습은 북 한산과 남산사이에 위치해서 우리의 자연, 우 리의 산하와 잘 어울리는 그런 곳이었다고 생 각합니다. 서울이 금세기초 일제의 침략과 함 께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우 리가 주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새로 건설 된 서울의 건물들은 우리의 것이 아니었습니. 다. 제 사무실이 덕수궁옆에 있기 때문에 덕 수궁을 잘 내려다 볼 수 있습니다. 덕수궁을 내려다 보면 우리의 궁궐이 궁내에 있는 석조 전보다 훨씬 우아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생각 하곤 합니다. 어찌 되었던 우리 서울은 해방 과 동시에 다시 전란에 휩싸이고 피폐한 경제 상황에서 판자집이라는 개발부터 시작이 되 었습니다. 서울의 연구를 보면 53년에 100만 을 돌파합니다. 60년대 경제개발이 시작된 이후 88년에는 1,000만명을 돌파합니다. 세 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급팽창입니다. 이렇게 몰려드는 인구에 따라서 서울은 마치 아메바 와 같은 팽창을 거듭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 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개발된 서울의 모습이 서울다운 전통을 가진 그런 아름다운 모습음 하고 있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건축관련 제도에서도 한번 원 인을 살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962년도에 처음 건축법이 생깁니다. 건축법은 법체계상 도시계획법의 하위법이고 도시계획이란 말 그대로 도시에 대한 미래 지향적인 계획이며 이를 구현하는 행위에 대해서 건축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이란 주로 도로계획선,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 계획이 거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 납니다. 건축법도 개별 필지에 대해 토지 상 호간의 분쟁적 관계를 조정하는데 주로 중점 을 둘 뿐이지 우리제도 어느 곳에도, 개발될 서울의 모습을 우리의 정감에 맞도록 하기 위 한 합리적인 의지나 세련된 기준은 사실 찾아 보기 어렵다는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 서 토지주는 자기 토지의 경제가치를 극대화 하는데 제약이 없었고 한편 몰려드는 인구는 토지의 이용가치를 상승시키는 뒷받침을 해 온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되는 동안 우리의 발전이 너무 급속했고 또한 이러한 발전에 따 라 도시의 수요를 맞추는데 급급할 수 밖에 없었던 것도 이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도 시경관이란 과거 개발 당시에는 사치스런 과 제였고 더구나 우리의 감성에 맞는 도시의 모 습을 구현한다는 것은 사실 엄두도 못냈던 것 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 시피 서울은 거의 다 개발이 되었습니다. 거 의 빈 땅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많은 시 민들이 아직 자기집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또다시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현실적인 개발 수요에 당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 거와 같은 개발을 계속할 것이냐?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도 먹고 살만 콤 경제규모도 켜졌고 그동안에 여러가지 문 제돌이 지적되어 온 분야에 대해 공부하신 분 들도 많아졌고 또 시민의식고 많이 성장했습 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개발은 과거의 개발양 태를 돌아보고 개발에 대해 보다 진지한 대응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 에서 오늘같은 토론회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 서울시에서도 작년말에 도시경 관과라는 생소한 조직을 신설했기 때문에 저 로서는 더욱 소중한 기회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가급적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는 입장에 설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장래 서울의 모 습에 대해 도시경관과를 맡고 있는 저의 고만 은 우리 서울이 600년 된 고도이지만 어디에 서 그런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는 것일까. 또 서울에서 우리 감성에 맞는 그런 도시의 모습 은 어떤 것이어야 하느냐, 또 오늘 같은 국제 화된 현대사회에서 과연 이런 덕목은 추구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또 필요한 것인 가, 또 그런 모습이 과연 구현될 수 있는 것 인가? 그런 의문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 으로도 많은 논의가 있을 것이고 제도적인 보 완도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오늘 제가 토론의 현실감을 위해서 한가지 문제를 던지고 싶습 니다. 우리 주변에 산동네 재개발이 많이 이 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도시 경관 심의위원회에서 관악구 봉천동 산동네 에 22층 고층이파트 제개발 계획을 심의한 적이 있습니다. 산동네에 올망졸망 형성되어 있는 동네를 급격히 고층아파트로 개조한다 는 것은 도시경관을 크게 변화시키는 일입니 다. 그러나 한정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 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이고 사실 우리에게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서울은 세계 어느 곳에 내 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자연환경을 갖고 있고 이런 자연환경은 매우 독특해서 우리의 정서, 우리의 생활, 전 통에 바탕이 되기도 하는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이런 skyline에 커다란 변화 를 주게될 산동네 고층이파트 개발에 대해서 도시경관차원에서 어떤 입장에 서야될지 저 로서는 매우 곤혹스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 지만 이것은 현실이고 당사자에게는 굉장히 절실한 문제입니다. 저로서는 어떻게 하면 거 기 있는 사람들에게 집도 마련해 줄 수 있고 서울의 자연경관이나 정서를 해치지 않는 그 러한 개발 모습을 그려 볼 수 있을까, 그점에 대해 여러분들이 혹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듣 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기: 감사합니다. 마지막 절문은 Trieb교수에게 던진 것입니까, 여기 청중에 계 던진 것입니까?

전희상: Trieb교수도 좋고 청중도 좋습니다.

강병기: 마지막으로 우리 김 우성 소장님. 아까 안 건혁 선생 질문에 있었듯이 하시는 일이 새로운 것의 수용욕구라할까 그런것인 데 그런 것을 내놓으시는 쪽의 입장이실텐데, 자부탁합니다.

김우성 : 저도 주로 건축설계를 하고 도시 설계에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자 로서 이자리에 참석이 된 것 같은데요, 제가 느낀 점은 이렇습니다. Prof. Trieb의 도시 설계하는 여진이라든지, 여러가지 생각, 그 흐름이 굉장히 기본적이고 짚을 것은 다 짚고 할 수있는 그런에 여전이 부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의 여건을 어떻게 트립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에 투영하 여 우리것을 찾을 수 있는 것인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한 것은 이렇슙니다. 우리 도시 특히 서울에 외 국분들을 모시고 와서 서울에 대한 인상이 어 떠냐 물어 보았을 때 대개 외국 사람들은 예 외가 바르기 때문에 참 좋다고 먼 저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나서 조금 친해져가지고 저녁 도 먹고 하면서 얘기를 하게되면 참 질서가 없다 그리고 뭐 이게 미국이라든지 미국중에 서도 제일 잘안된 도시, 그런 예를 따라가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들을 솔직하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 변명을 하게 되는데 제 도적으로 잘 안 되어 있고 경제적인 여건이라 든지 발전도상에 있으니까 그런거 저런거 다 생각함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됩 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서울의 특징적인 것 은 지형이 참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조상들께 서 풍수지리설에 대해 해박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도시의 위치가 잘 잡혀 있고 지형이나 산수가 참 좋다는 것, 이런것을 잘 활용하면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다들 얘기합니다. 먼저 생각해야할 것이 트립 교수의 도시설계하신 것과 비교하여 볼 때 지 리적이나 지형적으로 여러가지 여전이 다른 점을 몇가지 말씀드리지면 유럽은 지형이 평 평합니다. 여러가지 Context나 이런 것을 정할때 건물의 역사적인 것들이 표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건축물은 주 로 구조가 석조로 되어 있습니다. Sand Stone으로 되어 있는데 Sand Stone은 톱으 로 자를 수 있습니다. 석조건물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수명도 오래 가고 해서 건물들이 대개 100년 200년 이렇게 오래된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건축물의 오래된 역사를 만들게 하고 거기에 대한 보존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아시다시피 화강암토질에게 때문에 돌,석조 건물등은 옛날부터 짓기가 어려웠습 니다. 대개 목조나 흙이나 벽돌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물들 이 살아남아 있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Context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도로의 문제가 있습니다. 유럽의 도시는 옛날 부터 우마차가 다닐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망이 직선적이고 어느 정도 경사 라든지 모든 것이 현대의 자동차들이 잘 다닐 수 있게쯤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었는데 우리 의 도시는 우마차, 인력거라든지 당나귀를 타 고 다니던지 말을 타든지 사람들이 걸어 다니 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로구조 가 현대에 적응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도로를 확장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나마도 없는 Context가 더 없어졌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경제력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경제가 아무리 발달되어 있다 하더라 도 독일이나 유럽의 수준에 비해 굉장히 떨어 진다고 봅니다. 설계비를 보아도 우리는 건축 설계비가 전체 공사비의 2 - 3%인데 제가 듣기로는 독일은 건축설계비가 공사비의 14%라고 들었습니다. 그러한 좋은 여건과 시간, 조그만 도시설계 하나 하는데(저희 기 준에는 조그만 것입니다. 우리는 인구 50만 내지 100만의 큰 도시를 다루기 때문에 그것 이 조그맣게 보입니다.) 일년이 걸렸다고 하 셨는데 저희는 큰 것을 하는 데도 몇 개월만 에 합니다. 그런정도로 뛰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국제경쟁적인 사회에서 과연 우리가 보존적인 도시설계를 할 수 있겠는가하는 의 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토지가 적습 니다. 특히 가용토지가 적습니다. 또한 세계

적으로 인구밀도가 네빈째로 높다고 하는데 인구밀도를 보았을 때 주택문제가 심각하고 요즈음은 특히 부동산 투기에 의한 여러가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토지를 고밀도로 활용해야 되는데 트립교수께서 보여주신 건축물들은 3층내지 5층 정도입니다. 그런 높이의 건물로서 과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축량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Trieb교수께서 만약 한국에서 일을 한다면 더 좋은 안이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우선 질문하고 싶은 것은

(1) 도시설계를 과연 누가 해야 하느냐? 부터가 정립이 우리에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분은 도시계획하는 분이 해야 한다고 하고 또 어떤 분은 건축가가 해야 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도시계획과 도시설계의 차이점이무엇인가? 마지막에 아까 Trieb교수께서 말씀하신 도시설계가로서의 갖추어야 할 자질을 도시계획가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도시설계가도, 건축가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그런 접합의 접점을 어디로 잡아야 하는지? 묻고 싶고 그다음

(2) 서울의 경우 기존 건물들이 다 들어서 있습니다. 판자집촌도 있고 한옥도 있고 상가 건물도 있고 고층건물도 있고 일제시대때 지은 국립박물관도 있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도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철거해야만 할 때, 국가 건물 경우에는 문제가 덜 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개인이 가지고 있는 10층짜리건물을 도시설계하다보니 5층으로 잘라야 하는데, 그 럴때 민간에게서 저항이 없겠는가, 있다면 어떤 보상을 해주는지 또 언제까지 철거해야 하는지 또는 고쳐야 되는지

(3) 세번째로 Trieb교수께서 아까 도시설 계는 한 사람이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건 축가도 건물설계할 때 물론 Team work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최종결정은 한 사람이 해 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시설계도 미관에 대 한 문제는 주관적인 요소가 가미되는데 그랬 올 때 건축가들의 주관적인 요소를 어떻게 취 합해서 의사결정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 어려 움이 없으신지. 우리가 건축설계할 때 서울자 에서 미관 심의를 받는데 이렇게 심의받음 때 여러 교수님들이 참석하는데 여러 교수님마 다 의견이 다릅니다. 미관에 대한 것이나 건 축에 대한 것들에 대해 전문가들도 의견이 달 라서 여러가지 comment가 나오는데 도시설 계는 많은 대중을 상대로 하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의견 취합이 잘 될 것인지 과연 의견 취합만 하다가 설계기간은 1 - 2년 그냥 지 나가는 게 아닌지 그런 어려운 점이 없는지 그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강병기: 감사합니다. 지금 세분 코메트하 신 것을 들으면서 이러한 것을 느낍니다. Trieb교수는 적어도 지금 여기서 실례로 보 여주신 것은 본인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 다만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성숙된 도 시, 성숙된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전해 주신 것 같고, 한편 한국 쪽에서 코멘트하신 세 분은 서울은 600년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 구하고 최근에 상당한 소용돌이를 외부에서 받았고, 내부적으로도 격동의 시대를 맞고 있 어서 아직 안정되지 못한, 아직 배가 흔들리 고 있는 상태 속에서 그나마 경제적 혹은 문 화적 성숙기에 들어와서 도시경관이라든가, 도시설계라든가를 생각해야 하는 사람들의 고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질문들도 그 러한 시각에서 해 주셨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해서 답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 아서 Floor에서 질문이나 혹은 코멘트 해주. 실 분이 계시면 받겠습니다. 손을 들어 주시 고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 습니다. 예 이정근선생.

이정근 : 우리 계획의 이정근입니다, 슈트 랄준트라는 도시가 700년이라는 역사를 갖고 있어서 하나의 유기체로서 질서 있는, - 질 서라는 개념에 어떠어떠한 개념이 포함된다. 는 것은 첫번째 강연에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가지 관계로 인해 질서 있 는 - 도시를 이루고 있는데, Stralsund를 대상으로 연구하고 설계하고 있는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700년이란 오랜기간 등 안 명문화되거나 형식화된 Typological Guideline이 없이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 왔는데 그런데 왜 오늘날 새삼스럽게 인위적 인 Typological Guideline을 새로 만들어 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의문이 생기며, 그 러한 언위적인 Typological Guideline읔 오늘날 반든다면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Stralsund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장 재력을 오히려 속박하는 것이 아닐지 그런 의 문을 갖게 됩니다. 그랬을때 건축가나 도시계 획가들이 Guideline을 만들어 지침을 주어 서 그것을 Framework로 해서 앞으로 도시 를 만들어 갈때 그러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만돌어지는 도시의 제반 종합적인 내용이 지 금까지 700년동안 이루어 왔던 질서있는 도 시를 그대로 연속성 있게 유지할 수 있으며 그 질을 유지할 수 있고 혹은 더 발전적으로 도시 형성을 해 갈 수 있는 보장이 어디 있는 지 그런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병기: 지금 이 정근 소장께서 질문하신 것과 맥락이 같을것 같아서 함께 질문을 덧붙 역 둘까 합니다. 아까 그 김 우성 소장도 Urban Design이 한사람이 해야 한다고 Trieb

교수께서 이야기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그렇 다면 어떤 개인이나 한 Group이 Urban Design한다고 했을 때 그게 Stralsund가 과 거에 그런 Guideline없이 그냥 보통 백성들 이 자기네 생각으로 쌓아 올린 것보다 더 낫 겠다는 보장은 과연 있느냐 하는 점을 저희들. 도 도시설계 하면서 그렇게 주저하는 것입니 다. 예를 들어 저희가 Guideline이라고해서 이걸 지키라, 혹은 이것이 이상의 모습이라고 도시의 장래 이미지를 미리 던지는데, 그게 여기 모이신 많은 건축가들이 굉장히 제각기 머리를 짜서 만들어 낸 것들 보다 나올 수 있 다는 보장이 있을까? 여기에 Urban Design의 고민도 있는 것입니다. 이 정근 선생 이 질문해 주셨는데 '독일사람은 어떻게 생 각하는지 ?' 아마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지않 나 생각합니다만 모르겠습니다. 독일은 굉장 히 강하게 이런 규칙을 지키도록 제도적으로 되어있고 국민들이 그렇게 교육이 되어있다. 고 어제도 Trieb교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 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강한 도시설 계내용을 만든지금 건축계에서 굉장히 반발 이 심합니다. 이것도 또한 상당히 큰 차이점 인데 그것은 문화적 차이인지 혹은 우리가 오 늘 본 것처럼 독일에서는 밑에서부터 치곡차 곡 쌓이 올려가지고 자기네들이 합의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켜라고 하는 것인지, 우리는 거꾸로 위에서 관장하고 소수의 엘리트집단 이 만든 것을 이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해서 강제로 먹이려고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처음에 하나로 묶어서 대답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었는데 굉장히 성실하신 분이라서 하나하나 대답해주시겠다고 합니다. 이 쫌해서 한 번 대답을 들은 다음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호 : 지금 대답하시는 것은 아까 안 건 혁실장님 질문에서 시작해 김 우성 소장님, 그리고 이 정근박사님의 질문까지 여러가지 한 일곱, 여덟가지에 대해서 대답하시겠습니다

Trieb: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대답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건 물론 설계비의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14%라는 것은 충분하게 Information을 갖고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14%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건축가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도시설계가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설계비입니다. 건축가에게도 14%란 많은 일을 할 때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건축법은 건축가에게 상당히 디테일한 데까지의 상세도를 요구하고 상당한 부분까지의 책임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여간 중요한 것은 전축가들은 일을 받기는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보여드 린 것 같은 도시계획가나 도시설계가에게는 적용되는 보수요율표라는 게 없습니다. 도시 계획가를 위한 보수요율 채계는 독일에서 기 본계획이나 도시계획이라 할 수있는 F-Plan (Flächennutzungsplan)이라는 토지 이용계획이나 그 아래있는B-Plan (Bebauungsplang)이라는 계획을 만들때 는 설계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가 도시계획에서의 작업으로서는 독일에 서 유일하게 건설법전에서 요구하는 것이며 건설법전에 의하면 이 F - Plan 과 B -Plan만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업 니다. 이런 사항들은 아까 전과장께서 말씀하 신 것과 연관되는 것인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한국의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세가지 해야할 일이 있는 것같은데 (검기호교수께서 미리 설명하신 법규에서의 도시계획이란 1. 용도 지역, 지구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시설의 배 치에 관한 사항 3.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사항 입니다.) 독일도 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상황 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러한 도시설계적 일들은 그러나 시정부(Gemeinde)에서 용 역으로 주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연방정 부에서 요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장려하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법규에 쓰여 있는 그 두가지만 가지고는 우리 계획의 Practice에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 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상당히 Paradox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즉 Stralsund같 은 경우 정부에서는 시에다 수 백만 마르크에 달하는 큰 경비를 주는데 어떤조건이냐하면 바로 오늘 보신 것과 같은 도시디자연계획이 나 테두리계획 (Rahmen Plan)을 할 때만 돈을 주는데 이런 계획안들은 법규에는 없습 니다. 그래서 Paradox한 상황에 있다는 말 입니다.

지금부터는 질문에 대해 순서대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안선생께 대답하겠습니다. 도시가 지속석으로 팽창하고 기존의 상황이 별로 없고 새로운 도시를 만든다든지 과거로부터 단절된 그러한 상황의 도시를 만들 때 우리가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아까 예를 들어 자동차 공장에서 새로운 자동차를 만들 때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먼지 미래의 도시가 어떻게 되어야 할까를 꿈꾸고 그것을 조금씩 조금씩 구체화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상당히좋은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획가나 설계가는 설계 Concept를가져야 하는데 당장에 지어질 만큼만을 생각하는 것이아니라 점점 늘어나서 수십년 수백년 까

지 단계적으로 자라날 수 있는 그런 디자인 콘셉트를 생각해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이런 기회들은 많아 있지 않는 기회라 할 수 있는 데 사람들은 그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너무 빨리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놓쳐 버리거나 잘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한 얘기인데 이런 구체적 인 Guideline이나 그런 것을 만들게 될 때 어떻게 하면 그속에서도 건축가들의 새로움 에 대한 요구를 수렴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 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과 우리들을 만든 것이 아주 소박한 것인 것처럼 긴축가들도 자기들이 만드는 것이 상당히 소 박한 것이라는 것을 배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너무 많은 판타지나 자기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서 떠나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창조력이 소박하다고 말할 수 있을 까요? 사람의 경우를 들이 얼굴을 거울을 통 해 볼 것 같으면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얼굴 의 높이나 폭이나 깊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과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즉 모든 사 람의 얼굴에는 수많은 다양성이 있습니다. 어 떤 주어진 일정한 크기 속에서 건축설계하는 법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 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즉 보통 설계과제를 받게 될 경우 대체 자유로운 상태에서 과제를 받습니다. 건축가로서 우리들은 사실 너무나 많은 끝없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 다.

전과장님께서는 우리는 주택의 문제가 있 고 주택의 숫자가 모자라기 때문에 많은 집둘 올 계속짓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 렇게 빨리 지어져야만 하고 대량으로 지어지 는 주거자에서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은 quality를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라고 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독 일도 역시 2차대전이후 오늘날 한국에서 있 는 문제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저 희도 역시 2차대전이후에는 굉장히 빨리 많 은 집들을 대량으로 지어야 했던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러한 전쟁 후의 빠른 시간내에 세워진 대량 주기지들의 거주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다 시 투자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왜 냐면 이러한 주거단지들이 예를 둘어 제가 말 씀드린 비물질적인 사람들의 요구하는 측면 에서 볼때 너무도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위스 같은 곳 에서도 이러한 Social Housing에 있어서 거 주자들 사이에 불만과 불평이 높습니다. 저희 사무실도 그런 프로젝트를 하나 하고 있습니

다. 이렇게 우리 사람들의 비물질적인 요구를 고려하지 않고 빠른시간내에 집들을 짓는 것은 장기적으로 불때 국민경제적으로 볼 때 절대로 경제적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들의 과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것과 거기서 질을 유지하는 두가지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문제는 결코 80%까지는 돈의 문제나 경비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계획시간을 가진다든지 하는 그런 것의 문제입니다. 즉 더많은 공사비나 그런게 들어가지 않고 좀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더 가지면 두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면서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우성 소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합니다. 유럽에서도 역시 오랫동안 목조건물의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4-5층 정도의 목조건물들이 있는데 이들은 대체로 600-700년쯤 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물들을 우리들은 상당히 많은 경비를 들여서 보존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하나의 context를 제공하는 것이고 문제는 이런 context가 없는 데에는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라 생각합니다.

다시 안선생님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들은 새로운 도시의 형태나 새로운 도시에 대 한개념을 개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4-5층짜리만 보 여 드렸는데 예를 들어 어떻게 고충건물을 조 정해서 도시디자인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 답입니다. 제가 남비의 여러 도시의 도시계획 advisor로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브라질리아나, 산살바도르, 칠 레의 산티아고는 서울과 크기가 비슷한 도시 입니다. 그래서 저는 칠레의 동료와 함께 칠 레외 도시를 위해 최초로 건물의 높이나 볼륨 에 대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것은 High - rise Bldg을 올바른 자리에 올 바른 형태로 들어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 다. 우리가 하는 일이 전혀 새로운 일이라 말 쏨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Sanfrancisco는 10여 년 전에 이 같은 생각 을 했고 조례같은 것을 만들어서 시행해 왔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누가 도시설계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건축가 혹은 도시계획가인가요?제 생각에는 건축가들이 가장 중요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건은 우리 건축가들이 기꺼이 도시건축가가 되려고할 때입니다. 건축기가 자기가 설계하는 건물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것을 배우지 않고 주변

에 있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도시설계적인 측 면에서 그러한 과제를 취급하려고 할 때입니 다. 그리하여 앞에 있는 건물들은 다른 건축 가에 의해서 세워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까지를 포함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 은 한 건축가의 Vision 내지는 설계능력을 의미합니다. 누가 어떤 사람들이 도시설계를 하는데 적절한 지에 대해 생각이 일치하기 않 으면 그냥 놓아두어보면 나중에 누가 잘 하는 사람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10층짜리를 5층 으로 잘라야 한다면 당연히 조래나 법률 같은 것을 만들어야겠고 그것에 대해 보상을 해주 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 면 누가 도시 디자인에 관해 결정을 해야 함 니까?

거기에는 주책임자라 할 수있는 사람이 하나 임명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 committee에서 일치가 안 될 때는 그 사람이 조정 결정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committee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신망같은 것을 받아야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누군가에게 건축설계를 맡긴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믿기 때문입니다. 도시건축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전문적으로나 personalitity에 있어서 말을 수있는 사람이기때문에 그사람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Guideline에 대해 간단히 대답하겠습니다. 이 정근박사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유럽의 도시들은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Guideline을 항상 가지고 있어 왔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외도적인 영향없이 자라나온 도시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아마 거짓말일 것입니다. 아주 올바른 Guideline은 건축가들에게 많은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할 여지를 남긴다고 합니다. 즉창조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얼굴이나 모습에 다양성을 만들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Guideline을 통해서 도시가 아름다워질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개런되할 것입니까. 모든 인간들이 만든 것과 마찬가지로 개런되라는 것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단지 희망할 따름입니다.

강병기: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아까 희망하신 두분의 질문을 더 받겠습니다.

학 생 :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2학년 학생 입니다. 제 질문은 제가 아직 학생이기때문에 구체적이지 못하고 약간 추상적입니다.

1) 독일의 포츠담이나 슈트랄준트, 그 도 서들은 현재 독일이 통일되었기 때문에 독일 이 통일후 동서독 두 시민들간의 사상적인 이 질감을 통일시키기 위해 도시를 계획하는 것 이라 이해했는데 제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2) 두번째로 포츠담이 쐐기 형태의 자연경 관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Greenbelt 가 점차로 없어자듯이 그 쐐기 형태의 자연경 관도 어느순간 없어지리라 보는데 그 시기가 몇년 후라고 보십니까? 또한 그 도시형태가 어느 정도 도로망에 대해 부적합한 형대를 갖고 있는것으로 느끼집니다. 도로를 만들기 위해 자연 경관을 훼손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데 거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김진애: 어제 오늘 Trieb교수님 여러가지 얘기를 하신 것을 들으니 상당히 반가운 것 이, 저는 그동안 저희나라에서 도시설계라 하 면 제도적인 도시설계, 규제라든가, 제약이라 돈가 여기서 어떻게 탈피를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식의 도시설계라는 상당히 고정관념이 많았는데, 그동안 사실 도시설계가 많이 왜곡 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 가 느끼는 것은 트립교숙께서 도시설계가 가 질 수 있는 가능성, 특히 건축가가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 부분을 아주 확실하게 보셔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시설계라는 것이 꼭 제도적인 것 뿐만 아니고, 실제적으로 건 축가가 어떤 비젼을 가지고 환경에 대한 비젼 을 가지고 기여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셨는데 그런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 금 유보하는 점이 있습니다. 어제 오늘 너무 도 도시설계의 문화생활적측면에 대해 많이 강조하고 있기때문에 도시 설계를 얘기하시 면서 도시설계와 도시경관, 어떻게 하면 문화 적으로 역사적 전통을 도시환경에 표현하느 냐 하는 부분에 대해 연결을 시켜서 얘기하셨 는데, 이들이 크게 중요한 것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서 이 분야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유보하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시경관이라고 하는 것만이 도시설계 의 전부는 아니라는 관점입니다. 저희는 상당 히 조심스럽게 도시경관이란 것을 생각해야 하는데 도시설계라는 것이 도시경관을 이름 답게 가꾸고 의미있게 하는 것만이 도시설계. 냐?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Trieb 교수께서 발씀하셨던 포츠담같은 경우 도시 설계의 많은 부분이 도시개발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장기적으로 비젼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코디네이션을 하느냐 이 부분이 도시설계의 상당한 역할이 되는데 이러한 점이 어제 오늘말씀에서 많이 빠져 있 는 것 같은데 이 역할 부분을 저도 강조를 드 리면서, Trieb교수께서 지금 도시개발과 도 시설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독일에서는 어 떤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약간의 코 멘트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강빙기: 김진애 박사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비슷한 인상을 받았는데 이 분들은 그것 을 도시발전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 라 나라에서 깊게 도시계획을 하는 일부의 분 들이 하는 것하고 내용이 큰 차이는 없는데 다만 Urban Design을 하시는 분의 Approach는 샌프란시스코를 인용해서 본인도 인정하셨습니다만, 자연, 경관계획 같은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 접근방법이 철저하게 Bottom up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에 대해서부터 의 미를 찾아나가 마지막으로 토지어용계획이라. 는 것들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 리의 경우도 그런 접근을 하는 일부의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다지 주류를 이루지는 않고 있는 것같이 느꼈 습니다. 도시발전 계획 같은 것은 아까 김 우 성 소장님도 질문하셨는데 건축을 Major로 하시는 분이 도시 발전계획까지를 하기는 우 리의 교육커리큘럼내용으로 보아서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 은 도시계획을 전공으로 하는 학생들을 통한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느낌 을 가졌습니다. Trieb교수는 다른 말씀을 해 주실지도 모릅니다. 저 자신은 종교를 갖고있 지 않기 때문에 Trieb교수처럼 하나님을 인 용할 수는 없고 또 그럴 자격도 없습니다마는 Ecology를 원용해서 도시에 접근하는 그런 시도를 여러분들이 하고 게시는데 도시설계 하는 사람으로서 부러운 것은 자연의 질서있 는 변화, 성장, 신진대사 등을 자세히 드려다. 보면 굉장히 한정된 수의 - 이 분은 그것을 Typus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원형은 아니고 일종의 유형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 그런 걸로 환원되어 있음을 발견합니다. 트립교수 는 도시설계에서도 그런것을 찾아낼 수 있다. 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것이 있으 면 참좋겠지요.

Trieb : 우선 학생이 질문한 왜 이렇게 동 독의 도시들을 설계하는 지에 대한 대답입니. 다. 상당히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오늘 포츠 담과 슈트랄준트의 경우를 일부러 보여 드렸 는데 왜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곧 이러한 과제 에 접하게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통 일이 되어 북한의 경우가 생기리라 생각합니 다. 우리들의 과제에 있어 중요한 것의 하나 는 바로 이렇게 정말 힘없어 되어버린 옛 동 독의 국민들이 막강한 서독쪽으로 흘러들어. 오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것도 하나의 중요한 사항입니다. 독일이라는 나라는 밖에서 볼 때 는 잘 느낀지 모르지만 가능한한 개인들에게 많은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상당히 사회적인 관계나 사회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나라입니. 다. 저희들이 국가나 시로부터 받은 과제는 바로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있어서 중 요한 것은 저희들이 서독에서 도시계획하면 서 범했던 실수를 동목에서는 하지 않도록 도 와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의 계획실무나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모든 지식 이나 이런 것들을 이 동독의 경우에 있어 사 용하려 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어 느날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평양의 도시계획 을 하라는 과제가 떨어질 것을. 아마 여러분 들도 당연히 이곳에서 했던 실수를 하지 않으 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두번째 greenbelt에 관한 질문에 답합니다. 독일에서는 사람들이 도시에 있어서 이런 녹지라는 것이 시민들에게 상당히 귀중하고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즈음에는 나무가 하나 짤린다 할 때에도 시민들이 나서서 반대하고 시민들이 그것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리한 시민들의 자각이 바로 정치가들에게 압력을 가해서 여론을 만들어 포츠담과 같은 곳의 쐐기형태의 Green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서울의 경우에 있어서 다른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그것을 지키자는 운동이 있을 때에만 이러한 그린벨트는 지켜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에 대해 답합니다. 읋습니다. 이러한 예날의 도로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이 교통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만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 기 위해서 바깥 쪽으로 돌아가는 우회도로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자연 을 해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여러 도시들은 점점 그들의 도심부를 교통으로부터 자유로운 - 즉, 차가 못 들어가 는 곳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의 경 우 이태리 경우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그렇 게 되기까지 최소한도 도심부에 있어서는 도 시 평면이랄까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보존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진에 박사의 질문하신 도시 개발과 도시설계의 관재에 관한 답입니다. 항상 우리가 잊지 않고 생각해야 할 것은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Das Ganze ist immer mehr als die Summe seiner Teile)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도시개발이라는 것은 그자체로서 상당히 전체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전체에서 Urban Design이자기에게 주어진 특정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만일 이루어진다면 저는 아마 편안하게 잘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Urban Design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만이

중심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것들은 별 불일 없는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역시 중요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에는 갑자기 도시생태나 이런 것이 중요성을 갖고 각광을 받다가 내일에는 교통이 각광을 받다가 동등 한다면 전체로서의 도시는 망가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강병기: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시간 경청 해주신 청중 여러분, Trieb교수님, 토론자 세 분, 가장 수고하신 통역자 김 기호 교수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 회 : 이것으로서 Trieb박사님의 도시설 계강연회를 마칩니다. (끝)

본지에서는 지난 3월 30, 31일에 있었던 독일의 도시설계 강연회에 회원들의 대다수가 참여치 못하였던 관계로 회원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강 연회때 나누어 주었던 강연 내용의 초록을 게재 한다.

- 편집자 주 -

생태학적 견해로 본 도시

CITIES FROM AN ECOLOGICAL VIEWPOINT

1. 환경과 도시

전세계적인 거대 도시의 시대에, 지구 전체에 대한 인간의 책임이 커져가는 시기에 우리는 또한 우리 도시의 질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을 필요로 하고 있다. 불연속성, 자아의 상실, 통제불능 등 전세계적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도시생활의 문제를 볼 때 미래의 도시 설계를 생태학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것이 도시에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견해와 새로운 방법을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사진①)

마래의 도시 설계에 대한 이런 방식의 주 된 생각은 지구가 대체적으로 볼 때 보다 강 한 힘에 의해 창조된 하나의 유기생명체이며, 도시 역시 살아있는 생명체이지만 이것은 인 간이 창조한 것이라는 것이다. 도시에 대한 이러한 생각이 생태학적 접근의 기본적인 논 법이다.

결국 도시 생태학적 전해의 주된 문제는 도시 설계에 대한 실제적인 생태학적 접근 방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힘과 규칙, 현상, 원칙 등이 자연계에 있다면 어떤 것이 도시 설계를 통해 도시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우리는 현존하는 그리고 진취적인 "일반" 생태학적 문제들 - 모든 형태의 환경오염 - 을 해결해야할 뿐만 아니라 자연과 지연의 감 취진 채 알려지지 않은 설계 원리를 훨씬 깊 게 들여다 보아야 하지 않을까?

2. 하나의 대우주로서의 자연, 소우주로서의 도시

전체 지구는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요. 대우주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의 완벽한 세계이다. 이에 비해 도시는 하나의 소우주로 서 우리가 수년간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 는 작지만 완벽한 하나의 세계이다. 무엇보다. 도 도시는 재창조 작업과 통신 등의 일을 하 는 기계 또는 총적인 사회, 경제, 문화적, 정 치적 힘의 복합적인 시스템일 뿐만 아니라 다. 른 유기체와 마찬가지로 자기 동일성을 가지. 고 영원한 번화를 겪으면서 한 자리에서 성장 하고 다른것 속에서 쇠퇴하며 공간과 시간속 에서 발전하는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이기. 도 하다. 동시에 유기체로서의 도시는 자연 환경이라는 더 큰 유기체의 일부를 구성한다. 따라서 도시의 질에는 자연 환경의 일부라는 것과 유기체 자체라는 두가지 측면이 있다.

3. 생태학적 관점

(사진 ②, ②) 생태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일 반적으로 우리는 환경의 실과 도시, 그리고 그 환경의 병들을 복합적인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과정으로 보게 된다. 우리에게 있어 서 생태학적인 문제는 대개 대기와 물, 그리 고 토양의 오염, 삼림의 질병과 관련되며, 마 지막으로 사람에게 끼차는 영향과 관계된다. 이런 모든 레벨에서 해결해야만 하는 국부적. 지역적, 그리고 전세계적인 문제들이 있다. 내일의 도시들은 이런 의미에서 자연의 프로 세스에 자연스럽게 융합되는 생태학적인 도 시가 되어야 한다. 도시와 환경은 하나의 통 합된 유기체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도시와 환경의 관계의 한 측면이며, 이런 방향에서 전세계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많은 연구 및 기 술 개발이 이런 요구에 부응하여 진행되고 있 다 ; 자연 하수계, 난방을 위한 생물 및 태양 에너지 시스템, 조명과 교통, 생물학적 건축 사제, 대기, 수질 및 토양 오염에 대한 기술 적 조치 등, 또한 아직은 시작 단계이지만 일 단 우리는 진행중에 있으며 나이가야 할 방향 을 알고 있다.

4. 도시와 인간의 아이디어

그러나 인간이 창조하고 또한 전적으로 책임자고 있는, 하나의 생물체로서의 도시에 관해 좀 더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이론적인 연구를 거의 행하지 않았고 실제적

인 경험도 매우 극소수이다. 또한 인간의 아이다어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도시의 질을 실제적으로 고려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다. 도시 계획에서는 인간과, 인간과 자연 및 도시의 관계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노력한다면 - 종족이나 성별, 국적과는 별도로 - 인간이 물질적인 것 외에도 정신적인 욕구를 가진 개인이라는 결론에 빨리 도달할 것이다. 이때 인간을 위한 질(質)이란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서의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욕구의 복합제가 된다.(사진 ③)

작연환경은 대개 이 질을 갖고 있어서 생명을 위한 자연조건을 만들어 주고 정신적 욕구를 만족시켜 주며, 정신적 창조성을 고무시켜 준다 - 아시아의 문화는 항상 이를 인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자연의 한 장소는 음식을 생산하고 이러한 인간의 세가지 욕구에얼마나 부합하느냐 하는 인간의 물질적 존재, 정신적 진화 및 예술적, 지적, 정신적 창의성의 장(場)이 되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임무는 뚜렷해진다. 자연의 생태 기술적추면 뿐 아니라 생태 정신적, 생태 심리적 측면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다.(사진 ⑩,爲,廢)

5 환경의 원칙

인간의 물질적 존재의 장이 되려면 미래의 도시는 자연의 생태학적 법칙에 적응하는 생 태학적 도시가 되어야 한다. 인간의 심리적 경험 및 창조적 생산성의 장이 되려면 미래의 도시는 자연이 생태 심리적, 생태 정신적 상 태를 제공하는 도시 환경에서의 정신적 감성 적인 질을 - 물론 다른 방법으로 - 제공해 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생태 기술적인 것 뿐 만 아니라 생태 정신적 현상과 규칙, 법칙 등 이 있다면 어떤 것이 - 자연과 유사하게 -우리가 도시 환경에서의 인간의 생태 기술적 욕구와 함께 심리적, 정신적 욕구를 츳족시키. 도록 도와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실제 적인 경험과 이론적 연구는 모두 도시의 질과 마찬가지로 자연의 질 뒤에는 동일한 정신적 현상과 규칙, 법칙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간의 유체적, 심리적, 정신적 삶에 있으면 서 동시에 자연 속에 존재하는, 그리고 일상 적인 도시 생활환경 안에서 발견할 필요가 있 는 현상이다.

6. 질서와 다양성

(사진 ⑤, ⑥, ⑨) 도시의 한 가지 문제는 전세계적인 도시 뿐 아니라 작은 마을에서도 불협화음과 혼돈을 만들어내는 질서와 다양 성의 차단된 대조이다. 작은 집들이 마천루 가까이 서 있고 단조로운 주택가가 무질서한 도심을 에워싸고 있어서 여기서의 다양성은 공통분모를 갖지 않는 파괴적인 것이다.

자연은 항상 질서와 다양성 사이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식물들은 개별적 인 것이건 전체 속에서건 항상 이런 평형을 잘 보여준다. 나무의 가지를 또는 식물의 각 이파리의 형태가 질서와 다양성을 조화롭게 해주는 자연의 역량을 입증해 주고 있다.

도시설계와 살제 경험이 말해주듯이 관심을 끄는 도시 환경은 수천년간 같은 정신적 원칙을 지켜왔다. 어떤 문화에서건 도시 질의 한 측면은 항상 절서와 다양성의 가시적, 비 가시적 통합이었다. 오늘날에서 조차도 작은 마을 뿐 아니라 큰 도시들은 똑같은 유형에 속하는 개개의 집들의 의관의 조합이 얼마나 매력적인 거리 풍경을 만들어 내는기를 보여 주고 있다. (사진 ⑧)

절서와 다양성은 서로를 보완해 주는 양극성을 가지는 힘이다. 따라서 통일성은 다양성에 잘서를 부여한다. 다양성이 없으면 지나친 질서는 확일성과 난조로움, 지루함을 줄 뿐이다. 한편 통일성에 의한 질서를 주는 효과가 없는 다양성은 필연적으로 혼돈에 이르게 된다. 아름답게 인식되는 자연의 조화로운 다양성은 약간의 기본적인 형태와 그 변화, 수정등에 의한 것이다. 요한 볼프강 과테는 "자연은 하나의 기본적인 형태에서 출발하여 운행하고, 이 운행으로부터 삶의 다양성이 나온다"고 했다.

예를들면 멀리서 보면 나무는 똑같은 이파. 리를 무한정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좀 더 자세히 보면 이파리들은 똑같다 하더라도 똑같은 것은 목초자나 나무도 사실이라는 것 을 알게된다. 멀리서 보면 전체는 동일한 종 류의 것이 균일하게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러나 가까이서 보면 그것들이 색상과 형태가 매우 다양한 비슷한 개체들로 무성하게 이루 어진 것을 알게 된다 ; 다양성 안에서의 이러 한 동일성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 때문에 전체 는 아름다와 보인다.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작품에 대한 알버트 슈바이처의 코멘트가 말 해주듯이 음악에서도 거의 같은 원리가 적용 된다: "바하의 특징적인 표현은 거의 모두가 20~25가지의 기본적인 테마로 압축될 수 있다."

이런 기본적인 형태와 그 변화가 질서를 발생시키고 자연에 대해 자체적으로 부과한 제한 역할을 한다. 이것은 역으로 자연계의 조화와 이름다움을 책임지고 있기도 하다. 인 큐에게 있어서 질서와 다양성의 통합은 미의 필안적 측면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인간 이 자신의 환경에서 질서를 발견하고 이 환경 을 조화있는 전체로서 안식하고 이해하기 대 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때라야 환경과 함께 자신이 존재를 규명하고 또 환경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사진 ⑩, ⑩, ⑪)

따라서 동일한 원리가 도시 건축 및 자연. 즉 도시 풍경을 형성하는 이런 양극성을 가진. 힘으로 하여금 최대한의 다양성과 개성을 만 들어 내고 타운에 생명력을 줄 수 있게 하는 것에도 적용될 수 있다. 동시에 이런 모든 변 화 요소들은 서로 다른 요소들을 조화있게 하 고 그들의 아름다움을 개발해 주는 질서의 공 통적인 원칙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도시 설 재에 있어서는 질서와 다양성의 통합을 위한 조사가 도시설계 작업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전체로서의 타운과 그 거리, 광장 및 집들에 모두 적용된다. 어떤 레벨의 도시 조 경에서도 전체와 부속 요소 간에는 조화가 창 조되어야 한다. 전체적인 질서에 대한 이러한 요구의 실제적 의미는,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구성 부분들은 균질성을 유발하는 소수의 설 계 원리로 구성된다. 예를들면 비례, 입면들 의 조합, 재료의 선택, 그리고 한 도시내에서 는 단지 소수의 건물유형을 사용하는 원칙등 이다. (사진 ⑫)

7. 일반적인 것과 특수적인 것

서로 대결하는 입장이고 정반대적인, 서로 다른 기능과 건물 형태들이 서로 무관한 가운 데 동일 생활권을 이루는 것이 도시 환경에서 외 또 하나의 문제이다. 조정되지 않은 도시 개발 및 엘리트적인 건축 경향은 가존의 도시 구조와 새로운 단목적이고 기능적이며 심미 적인 요소와 대립하게 한다. (사진 ③)

자연에는 항상 대규모적인 풍경에서부터 개별 식물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인 것과 특수적인 것, 독특한 것 사이에 평형이 유지된다.한 거대한 산이 다른 산들과 넓은 풍경을 압도하거나 하나의 꽃이 식물을 장식한다면 그원리는 항상 같다. 특수한 기능에는 특별한하나의 형태가 주어지지만 항상 전체의 일부로서,한 창조물의 장식으로서이며 특수적인요소는 대비로서가 아니라 최고조로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성장한다.(사진(﴿), (⑥), (⑥))

풍부한 도시 환경은 항상 같은 설계 원칙을 따랐다. 절, 궁전, 대규모의 성당은 마을 풍경의 영광스런 절정이었고 이러한 일반적인 것과 특수적인 것의 통합 개념은 문 손잡이에서부터 스카이라인, 기리형태, 건물의 외관과 종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도사에서, 모든 스타일과 문화에서, 그리고 자연에서 항상 작용하는 정신적인 원리이다.(사진24)

8. 연속성과 변화

(사진 ③) 연속성과 변화 사이의 세계적인 불일치가 도시 환경에 있어서의 또하나의 문 제이다. 심미적 외미와 함께 기능적, 사회적 의미에서 뚜렷한 도시의 불연속성이 집 없음 과 방향 감각의 상실, 외로움을 야기한다. 연 속성과 변화는 모두 도시 발전의 일반적인 힘이지만 때를 맞춘 일방향적 변화나 일방향적 연속성은 세계 도시들에게서 빈번한 문제인 도시의 병을 말해준다. (사진 ②)

자연에서 연속성과 변화간의 밸런스는 각국가의 풍경 변화에서부터 각기 다른 계절 동안의 식물의 변화, 밤낮의 꽃의 모양 변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구성원소에서 있어서 꼭 필요한 설계 원리이다. 이 벨런스는 건강한 유기체의 가사적 표현이며, 밸런스가 깨지면 질병의 신호 - 감자기 말라버린 나뭇잎, 성장의 중지, 완벽한 형대의 변화 ~ 가된다.

오늘날 뿐 아니라 과거에도 정상적인 도시 환경에는 이러한 연속성과 변화간의 밸런스 가 항상 존재한다. 그러나 오직 금세기 만이 정상적인 유기체의 이 은밀한 규칙을 상실했 다. 언제든지 도시에는 변화가 있었지만 어떤 도시 구조의 변화는 기존의 기능적, 사회적 또는 도시 백락을 충분히 고려하고 반영했다. 도시 및 자연에 작용하는 또 다른 설계 원리 - 현실적인 질을 가진 도시들은 수천년간 이 원리를 따랐다.

모든것은 흐른다. — panta rhe! 이 기본 적인 말은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한 말로서 변 화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즉, 모든 존재 형태는 영원히 변천하고 있다는 것을 의 마한다.

그러나 연속성은 변화의 반대 급부이다.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나는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침해받지 않은 우주적인 일관성을 보장하는 연속성이 있다.

우주나 자연계에서 정적인 것은 없다. 시 간이 흐르면 모든것은 변화하게 된다. 지구의 등고선은 계속 변하고 산골싸기는 올라갔다. 가 다시 사라지고 한때 풍성하던 초원은 사막 으로 변하며 이전에 바다로 뒤덮여 있는 곳이. 지금은 육지가 되어있다. 계속적인 진화의 결 과 새로운 종(Species)이 나타나고 다른 것 은 사라진다. 자연은 연속하는 힘과 변화하는 힘 사이의 계속적인 평형상태에 놓여 있다. 다시말해 자연은 살아있는 동적인 유기체로 서 같은 힘의 지배를 받고 있다. 우리는 종종 변화에 저항하려고 노력하지만 생명 자체는 변화를 외미한다. 어떤 것을 변화에 대해 전 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변하지 않고 고정적인 것을 이상화하며 변화와 연속성을 화해할 수 없는 쌍극으로 보는 대신, 이 두 요소를 풀 수 없게 연결된 것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조화를 이룬 변화는 연속성을 의미한 다. (사진 ④)

도시나 마을의 개발은 정적인 것으로 있을 수가 없다. 주민들의 변화 욕구는 도시의 기 능과 결국 그 디자인의 변화를 의미한다. 도 시는 전체적인 것의 동시적 연속성과 결합된 개별적인 것의 계속적인 변화의 결과로서 존 재해 나간다. 연속성은 주로 시간적인 발전파 관련된 단순성과 다양성을 이용함과 동시에 원형과 변형의 주된 동기를 존중하고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문제를 더 세부적으로 진행시키지 않고 특정 지역성의 본질은 이런 주된 동기를 인식함으로써 보존될 수 있으며 동시에 이 지역성은 그 기능 변화에 적응될 수 있다. 이런식의 변화가 연속적인 프로세스가 아닐 경우에는 기존의 것과 새로운 것 사이의 밸런스가 무너질 것이고 도시는 그 중속적 부분들에 있어서나 전체적으로 볼 때에도 그 성격을 상실할 것이다. (사진 ②,②)

건축학적 관점에서 보면 어떤 위치의 지역성의 발전과 그로 인한 설계 요인(factor)의 연속성과 시대가 요청하는 건축 양식에 의한변화 사이의 밸런스를 항상 추구하고 개발해야만 한다. 이러한 밸런스 또는 통합은 전체로서의 도시를 다루건 아니면 하나의 구역이나 거리를 다루건 간에 도시건축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반드시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9. 일반적인 설계 아이디어

그러나 오늘날 도시 환경의 주된 문제는 전체 도사와 그 부분들에 공통되는 전체적인 설계 아이디어가 없다는 것이다. 그 결과 장 소적 특성의 희생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도 시의 고유성과 특별한 이미지의 상실을 가져 왔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도서의 절을 잃어 버린 주요인이다. 또한 질서와 다양성의 동 합, 일반적인 것과 투수적인 것의 조화, 연속 성과 변화 사이의 밸런스 등 앞에서 언급한 모든 설계 원리는 전체 도시에 대한 일반적인 설계 아이디어가 없이 도시 질을 부분적으로 만 개선시킬 수 있다.

현상학적인 연구가 입증하듯이 자연계에는 항상 기능과 형태의 뒤에 모든 레벨의 일반적 인 설계 아이디어가 있다. 일련의 산맥, 언던 또는 다른 풍경들은 변화하는 날씨 조건하에 있는 구름의 형식이나 서로다른 식물과 마찬 가지로 일반적인 "설계" 원리의 지배를 받는 다 — 장미는 장미이고 장미이다.… (Gertrude Stein). 예물들면 식물과 풍경, 대기 현상의 고육성은 항상, 기능과 형태를 통합하여 하나의 전체를 만들되 혼동될 수는 없는, 내재적 공통 설계 원리에 의해 창출된 다. (사진 ⑦)

과거와 현재의 유명한 도시들은 모두 그 장소의 교유성과 성격, 특이성을 보증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서 훌륭한 도시를 위해 이와 같은 기본 규칙을 지켜왔거나 지금도 여전히 지키고 있다. 성공을 위한 열쇠로서 자연속에서 뿐만 아니라 디자인과 패션, 그리고 산업적인 생산 활동 속에서 우리가 기본 원리로서 볼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 도시를 만드는 테

있어서 없어져버렸다. 우리 도시의 질을 실제로 회복하려면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는 것 -이것은 작은 도시와 타운 뿐 아니라 세계적인 도시에서도 이 원리를 이용하여 일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 이 미래의 도시 설계를 위한 주된 작업이 될 것이다.

10. 유형과 변형

그러나 마지막 문제는 도시가 그 성격을 보존하고 고유성을 개발하기 위해 실제로 전 체적인 설계 아이디어를 어떻게 따르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자연이 어떻게 항상 같 으면서 생물체가 되고 성장하고 꽃 피우며 쇠 퇴하는가? 그리고 자연은 그 해답과 함께 현 상적인 연구를 제공하고 있다. 공간과 시간에 결친 일반적인 설계 아이디어의 비밀은 typus와 그 변형의 원리 - 자연요소의 기본 구성요소 - 이다. 식물의 기본적인 typus는 충체적인 식물이 되기 위해 보이지 않게 내재 된 계획을 가진 배아에서 출발하여 팽창과 수 축. 한 부분의 주도 또는 환경에의 적응을 통. 해 이 "설계 아이디어"를 전개해 나간다. 그 리고 그 결과는 질서와 다양성의 통합, 일반 적인 것과 특수적인 것의 조화, 연속성과 변 화 사이의 하모니이다. (사진 🚳)

인공적인 세계에서 일반적인 설계 아이다. 어의 개념 - typus - 및 공간과 시간에 있 어서의 그 변형은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 와 함께 성공적인 산업제품의 알려지지 않은 비결이다. 전체는 공간과 시간상의 그 부분들 의 요약 이상이며 자연이 그렇듯이 유기적인 발달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 이것이 독일의 자동차 생산업체인 Daimler — benz뿐 아니 라 프라하 로마 또는 파리의 비결이기도 하 다. typus는 일련의 비슷하거나 관계가 있는 개별적인 것에 공통된 독창적인 또는 기본적 인 형태이다. 한편으로 이것은 자연적인 형태 의 존재나 본질을 나타내기도 한다. 원형만이 전적으로 이상적인 형태로 복제 된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단순하고 단조롭게 될 것이다. (사진 ②, ②)

원형에서 발생하는 추진력은 종과 모양의다양성을 만들어 내며 그 과정은 변형(metamorphosis)에 의한 것이다. 이 경우변형이란 오비드 식의 transformation 개념도, 또 모충이 유충이 되어 최종적으로 나비가 되는 경우와 같은 생물학적 형태 변화도아니다. 이 경우에는 오히려 자연철학자 괴테가 말한 바와 같이 형태의 규칙적인 변화(transformation)이다. 괴테에게 있어서 식물 변형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그 식물의 본질 또는 typus가 모든 성장 단계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예를들면, 그는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식물이 발달하는 한편 이는 사실

하나의 동일한 기관들이 매우 다른 형태로 있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을 발견한다. "따라서 모든 식물은 지금 우주의 법칙을 당신들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각 꽃의 음성은 점점 크고 뚜렷해진다. 이 단계에서 만약 당신들이여신의 성스러운 문구를 해독한다면 당신들은 모든 사물 속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그녀를 보게 될 것이다." (사진 ⑩)

Rudolf Steiner는 인간의 삶의 과정에서 심리적인 변형에서도 동일한 것이 적용됨을 발견했다. 간략히 말하면 인간의 생애에서 중 첩되는 단계를 인식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별개 단계를 초월하여 계속 출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해도 결국 이는 기본적으로는 삶의 여러 단계를 통해 동일하게 있다. "유행학적 사고"는 플라톤과 아리스토렐레스가 적용한 것이었으며 이는 개별적인 것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이해하려고 하고 따라서 그 특성을 이해하는 데 좀 더 접근하게 된다. (사전 26)

인간에세 있어서 어떤 물체의 생동감은 주로 위에서 설명하듯이 변형이란 의미에서 하나 이상의 기본 유형의 변화에서부터 기인한다. 자연은 우리에게 현상과 사물의 다양성을 몇가지 기본적인 유형의 변형에서 추적할 수있도록 가르쳐 준다. 우리가 꽃을 보건 눈의 결정을 보건 간에 모든 자연현상은 몇 가지 원형에서 진화하고 있다. 도시은 그 도시에 개성과 본질을 부여하는 기본 유형의 특징적인 조합이 지속적인 변형의 과정을 이어갈 때살아있을 수가 있다. (사진 ⑩)

도시 설계자는 반드시 자연의 유기적 창조 원리를 공간적, 시간적으로 관련지어야 하며 이를 도시 계획 원리로 해야 한다. 장소의 본 절은 그 원형에 의해 결정된다. 하나의 도시 을 생각할 때 그 도시의 원형과 건물의 유형 적 요소를 발견하고, 변형의 원리를 적용하여 이런 요소들을 계속하여 개발하는 것은 도시 설계자의 일이다. 이것이 도시 건축을 현재 상태로 고정되어 생기를 잃지 않도록 하면서 그 개성을 보존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것은 기존 양식으로 건축을 계속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현 시대에 맞으면서 설계의 "초 시간적인"원리와 원형 그리고 그 특징적인 조합에도 부합하는 형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진 🙉, 🚳)

(사진 ②) 구체적으로 이는 확장해야 할 도시의 배치구성이 이런 의미에서의 번형에 따라 진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배른의 한 오래된 도시에서 원래 실시되었던 것처럼 한 도시에서의 건축 형태의 설계에서도 진화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원형적인 건물은 수세기에 걸쳐 보존되었고 현대 양식으로 계속 재설계되고 있다. 배치와 외관, 창문에서도 물론 원형의 변형이 가능하다.

11, 도시 설계에 있어서의 자연의 설계 원리

현대 도시에 미래를 위한 절을 높여주기. 위해 도시 계획과 설계를 하는데 있어서 자연 의 보이지 않는 이런 구조적 원리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사진 38, 39, 40, 40) 프러시아주와 독일 군사주의의 요람이고 Frederick 대왕, 바하, 볼테르 또는 에리히 멘델스존의 아연슈타인 타워, Sanssouck 등 의 건물들과 관련된 독일의 유명한 포츠담시 에서 재통일 후 현재 도시 개발 계획에서부터 소규모의 건축 계획들에까지 이르는 전체적 인 새로운 기획 개념을 개발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 @, @) 도시 개발 계 획은 새로운 토지 이용계획의 기본으로서 개 발해야 했다 역사와 문화, 교육과 과학, 물, 정원과 공원, 기타 측면의 상징으로서의 포츠 담과 같은 부어미지로 구성된 새로운 이미지 의 '설계'로부터 시작하여 문화, 예술, 과학, 교육, 작업, 주택, 쇼핑, 레크레이션을 위 한 개발 목적을 통해 구체적으로 형상화 한 다. (사진 ⑷, ⑸) 이런 것들은 최종적으로 해당 특별 개발 계획으로 바뀌어져, 경치질 경우 토지 사용, 교통 및 도시 설계를 위한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이 도시 계획의 주된 작업은 미래 포츠담의 기능적, 사회적, 문화 적, 경제적, 과학적, 생태적 특면 등을 강조 하는 일반적인 "설계" 아이디어를 자연에서 와 같이 개발하고 전체 도시를 위해 기능적인 도시 설계 개념 - 기능과 형태에 있어서 동 시에 실현해야 할 일반적인 아이디어, "Leitbild" - 을 자세하게 안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래의 고유성을 위한, 성격을 위한 조사, 인간이 정신적, 심리적, 물질적 존재의 장(場)으로서의 포츠담의 이미지, 내일의 포 츠담의 2차원직, 3차원적 모델의 개발을 위 한 연구가 있다. (사진 48)

(사진 45, 48, 49) 중세로 거슬러 올라가 한자동맹 전통으로 알려졌고 도시 건축학의 국가적 금자탑으로 여겨지는 Stralsund의 또다른 유명한 도시에서 이 작업의 목적은 1 세기가 된 일반적인 도시 설계 아이디어와 재 발견과 복구, 변화와 세 건물의 설계를 위한 건축지침의 개발과 명확한 설명이었다. 이전 의 다른 도시의 도시 설계 계획에서와 같이 여기서도 자연의 원칙과 규칙, 법규가 생활 공간으로서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로 하다. 는 것이 입증되었다. (사진 50) Straisund 의 초시간적 설계 아이디어의 명확한 정의와 질서와 다양성의 통합, 연속성과 변화, 일반 적인 것과 투수적인 것의 밸런스 등의 설계 원리의 적용이 투자자들의 커다란 압력하에 서도 도시의 고유성을 보존할 뿐 아니라 개발. 하도록 도운 도시설계지침과 건축법규를 존 속하게 했다. (사진 ③), ②, ⑤), ⑤)

12. 결론

생태학적 견해에서 본 도시 : 자연 환경과 도시 환경간의 비교, 자연적인 생물체와 인공 적인 것의 비교에서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오 임, 소음, 토질의 악화에 관한 생태 기술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도시 환경에서의 우리의 심 리적 개발과 정신적 창의성에 관한 생대 지 적, 생대 정신적 문제도 가지고 있음을 발견 한다.

그 결과는 인공물인 도시의 생태 기술적인 병과 함께 질서와 다양성의 혼돈, 일반적인 것에 대한 특수적인 것의 이기적인 투쟁, 연 속성과 변화의 불연속성, 대부분의 도시에 있 어서 안내자로서의 일반적인 설계 아이디어 의 상실 등이 생태 지적, 생태 정신적인 질병 에 의한 발생한 도시의 전체적인 병적 상태야 다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 ? 도시 안과 주위의 환경과 그 생태 조건을 존중할 뿐 아니라 도 시의 질에 관한 자연의 심리적, 정신적 측면 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이것은 인간이 물질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환경 내에서 — 자연적이건 인공적이건 — 지적인 욕구와 정 신적인 기대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배아에 숨어있는 전체 유기체를 위한 건축 계획의 일반적인 원리를 배우고 설계 아이디어로서의 typus를 메우며 이것이 공간과 시간에 있어서의 변형에 의해 개발되는 방법을 배운다. 연속성과 변화, 일반적인 것과 독특한 것, 질서와 다양성 등의 양극적인 힘을 융합하여 새로운 질을 창조하는 기본원리와, 기교적 제한된 수의 원소들을 결합시켜 자연이 해나가는 방법을 배운다. (사진 ③)

도시의 질은 물질적, 감정적, 정신적 존재인 인간의 욕구에 부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물리적, 생물학적 법칙에 맞을 뿐 아니라 인간의 지적, 정신적 기대차에 부합하기 위한 전신적인 규칙에도 맞는다.

도시는 인간을 위한 살제적 절을 통제하는 정 신적 규칙과 법칙을 발견함으로써도 그 질을 높일 수 있다. 아시아의 문명은 자연속에서 이를 항상 인식하고 있었다.

- 주 ① 1992년 6월호의 영문제목을 '독일의 도 시설계 (Urban Design and Natural Environment)'바로 잡습니다.
 - ② P. 60의 사진설명은 강연회 초록에 바탕을 둔 항목 분류입니다.
 - ③ 사전자료는 독일잡지 GEO, 엽서, 책 그리고 슈토트가르트 市 자료실 및 토 립교수가 직접 찍은 사진들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사진 제공 : 미카엘 트립)

패러다임(Paradigm), 건축적 사고유형과 디자인 특성(2)

Types of Architectural Thought and the Design Characteristics Based on Paradigm

吉成鎬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아키프랜, 공학박사 by Kil, Soung - Ho

- 1, 패러다임(Paradigm)과 건축적 사고유형
- 2. 건축적 사고의 재 유형과 디자인 특성:1:
- 3 건축적 사고의 제 유형과 디자인 특성(2)
- 4 건축적 시고의 관점에서 본 한국 설계 경기 작품의 특성
- 5 박물관 기념관 설계 경기 작품의 건축적 사고의 특성 분석
- R 공공청사 설계 경시 작품의 건축적 사고의 특성 분석
- 7. 한국 설계 경기 작품의 디자인 접근 태도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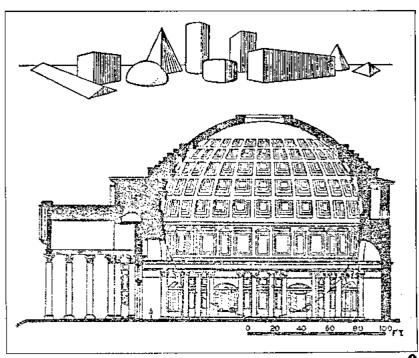
[3] 건축적 사고유형과 디자인 특성(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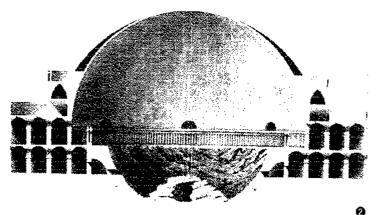
4. 기하학적 사고유형 (geometry - oriented thought)

기하학적 사고유형은 유형이나 기능의 개념 또는 구조, 재료의 혁신으로부터 건축 표현의 문제를 탈구하기보다는 수와 비례에 기초한 기하학적 형태개념과 그것이 주는 질서의 감각을 디자인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스나이더(A, Snyder)교수는 수와 기하학을 건축 형태의 결정과정에서 중요한 근거로 삼는 수학적 유추(mathematical analogy)방식이 기하학적 사고의 개념적 모델이 되어왔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스티븐스(G. Stevens)는 모든 건축적 사고에는 수학이 존재할 만큼 형태의 근본적 원리는 수리적 원리와 기하학적 원리가 지배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건축과 기하학을 공생의 관계라고 언급한 블랙웰(W. Blackwell) 교수는 그 특성의 관계를 기능적(functional), 기술적(technical), 미적(aesthetic)인 관점에서 논한 바 있다. 이러한 주장들은 지난 호에 고찰한 바 있는 역사적 -실증주의적 패러다임이나 고전적 - 인본주의적 패러다임에 기초한 건축적 사고유형과는 달리, 건축의 본질적 창조행위를 작품의 내재적 영역에서 찾고자하는 또다른 사고의 모습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정의 타당성은 고대로부터 많은 건축가들이 디자인 해(解)의 도출에 있어서 입방체, 구, 원통형, 피라밋 등처럼 내적 통일성(self - unity)을 지나어 쉽게 지각되는 기하학적 형태와 상징적 숫자들과 일치되도록 설계된 건물이 보편적인 질서와 조화를 인간의 의식 속에 형성시킬 수 있다는 신남으로 접근하여 왔다는 사실에서 발견할 수 있다.

소티본스의 지적처럼 이들 건축가들이 기하학을 건축 디자인의 바탕으로 설정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자닌 도구적 효율성 때문이 아니라 기하학이 절대적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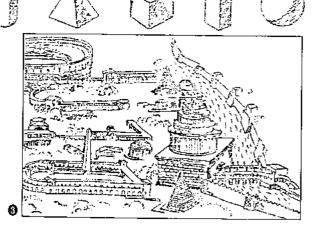




확실한 지식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건축의 질서는 대수적 비(ratio)가 조합될 수 있는 규칙성에서 나오며, 이 규칙성은 형태를 발생시키는 비례체계나 모듈을 제공하는 기초가 된다. 또한 최종형태의 분석을 위한 스킴(scheme)을 기하학적 원리를 통해 만들어 낼 수 있다. 따라서 기하학적 사고유형은 절대미의 개념과 질서의 개념에 기초하여 객관적 보편성을 지닌 건축적 표현을 지향함으로써 감성보다 이성의 미학에 호소하는 "개념적 건축"의 속성을 중시한다. 이 사고유형은 역사적이고 인과적인 설명으로부터 작품자체에 관심을 집중하게 되며, 자연 속에 존재하는 법칙성과 규범에서 유래되는 미적 지각의 특성을 중시하는 형식주의적 - 십미적 패러다임에 기초하고 있다.

근대 건축시기 이후 기하학적 사고유형의 성향을 보여주는 여러 건축가들 중에서 특히 블레(Boullée)는 입번체, 구, 피라밋 같은 대칭적 고형체를 디자인의 1차적 원리로 보고 이것이 빛의 효과에 의해 연출될 수 있는 형태를 탐구해 왔었다. "인간은 기하학적 동묩(geometrical animal)" 임을 강조한 르 꼬르뷔제(Le Corbusier)는 이러한 조형적 사고에 기초하여 빛속에서의 훌륭하고 올바르며 웅장한 매스의 연출로 정의되어지는 건축 형태의 창조를 강조하고 있다.

반 되스버그(V. Doesburg)도 작선, 1차적 형태, 색채, 평면, 직사각형 등에 입각한 추상적, 반자연주의적인 요소주의 원리에 기초한 탈 — 큐박적인 형태구성을 추구하였는데 그의 이러한 접근태도에서도 기하학적 개념에 기초한 사고논리를 발견할 수가 있다. 피터 아이젠만(P. Eisenmann)은 선, 평면, 입체의 통사론적인 해석에 기초하여 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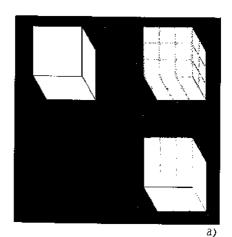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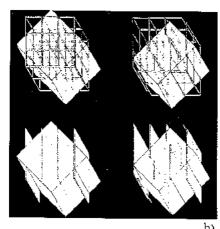
- ① 기하학형태와 판테온 신전 의 단면공간
- ② 불레의 이성의 신전 계획 안 (1793년)
- ③ 건축의 원초적 형태로서의 기하학 형태, 르 꼬르뷔제
- House Ⅲ의 기하학적 변 형도, 피터아이젠만 (1969 ~7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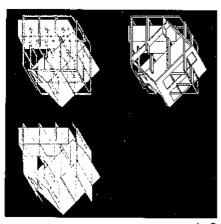
기능적이고 자율적인 기하학적 형태구성의 개념을 디자인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이들은 건축형태를 자율적 형식규범에 의해 설정된 개념적인 형색의 틀에 의하여 그 기능과 내용이 수정되거나 조절되면서 구체화되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디자인 프로세스가 인식적으로 외부에서 내부로 접근하는 과정임을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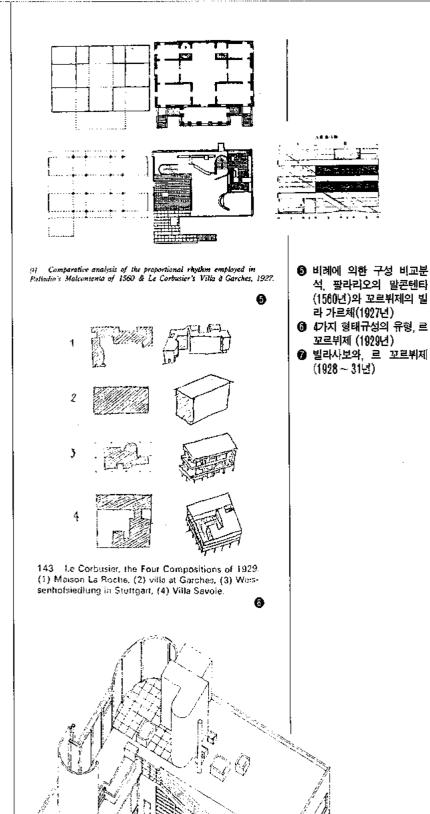
그러므로 르 꼬르뷔제는 실용성과 요구조건은 디자인의 출발점으로서의 필요조건일 뿐이며, 여기에 예술적 감동과 공감을 불러 일으키는 플라토닉한 특질(수적 절서, 비례에 의한 조화, 기하학 등을 의미)이 충분조건으로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에 따르면 기능 요소는 분석되거나 정량화되어 그에 대응하는 형태요소로 조합되지 않으며 자율적인 형식 규범의 틀에 의해 결정지워진다는 점이다. 꼬르뷔세가 평면과 입면상에 설정한 가상적인 선의 기하학적인 격자망은 여러 부분들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단일한 전체로 조화시키기 위한 도구였다. 그는 여기서 얻어지는 미적 질서의 개념을 통해 디자인 구성의 질서감과 각 부분의 단순성을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빛과 음영 속에서 연출되는 조소적 형태의 효과다. 모듈라(modular)와 같은 수학적 원리에 기초하여 이 짙서의 미를 완성하고자 추구했던 것이다. 이 칠셔의 미는 기능이나 구조 등에 대한 해석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형태가 지니고 있는 대상의 속성에서 유래한다.

르 꼬르뷔제가 제시한 4가지 형태구성의 유형에 관한 고찰은 외부는 내부의 결과이며, 평면은 데스와 형태를 발생시키는 것임을 잘 보여준다. 여기서 평면의 개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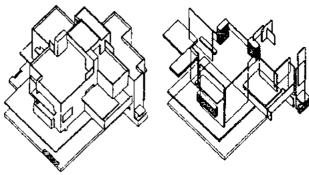


기능의 수용보다는 건축적 공간이 형태와 갖게 되는 관계성을 보여준다. 그에 따르면, 평면은 발생기(generator)로서 매스와 표면은 이 평면에 의해 결정된다. 공간에 대한 매스의 관계가 적절한 비례로 되어 있다면 눈은 통합된 감정을 뇌에 전달하고 마음은 이것들로부터 고도의 질서가 주는 만족같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건축이 스스로를 표명하도록 하는 매체로서의 배스와 표면은 평면의 구조적 특성에 의해 결정되어진 후 스스로 형태적 자율성을 얻게 된다는 것이 꼬르뷔제의 건축적 사고의 논리이다. 그러므로 평면은 모든 고상한 형태의 기저에 존재하며, 그것이 없다면 목표와 표현의 위험도 없고 리듬, 매스, 통일성도 있을 수 없게 된다고 그는 강조한다. 그러나 평면은 그 자체 내에 바로 감각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한 꼬르뷔제의 주장은 외부는 내부의 결과라는 논리를 보여주지만, 그것은 기능적, 구조 — 재료 지향적 사고유형에서 채택되는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이다.

꼬르뷔제의 이러한 주장은, 기하학적 사고에 의한 건축적 표현은 인간의 감각과 시각에 의해 지각되는 매스로서의 형태적 특성을 중시한다는 점을 말해준다. 건축적 감동의 유발은 물리적인 조형적 요소를 통해서 일어나며, 이 때 매스와 표면은 건축이 스스로를 표명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매스형태의 표현 개념은 후랭크 로이트 라이트 건축에서 보여지는 "구조"개념에 기초한 골격화 개념이나 미스 반 테어로에의 작품에서 보여지는 뼈대와 피막의 개념과는 서로 다른 표현적 특질을 내포하고 있다.

실제로 기하학적 사고유형의 접근태도를 보여주는. 건축가들의 작품에서 발견되는 시각적 구성원리들은. 예술가의 감성에 기초하여 조형적 요소를 통해서 얼어지는 원초적, 감각적인 반응이 형태체험의 1차적 본질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형식관계의 논리에 의해서 얼어지는 미적 질서감은 팀 브리랜드(Tim Vreeland)가 지적한 바처럼 이성에 의해서만 확실히 인식되어질 수 있는 현상 즉, 이상적 형태와 유클리드(euclid)적 공간구성으로 특징되는 "개념의 건축"(Architecture of Concept)의 속성을 지난다.(C. Ray Smith: 1977, P. 77) 따라서 건축체험에 있어서도 그 대상에 부과되어 인간의 심적 어미지를 형성시켜온 형태와 의미의 관계는 배제되며, 사회적 관계성보다는 대상의 내재적 본질에 기초한 미학적 논리를 따른다. 이러한 건축적 사고의 특성과 테도는 데 스틸(De Stijl)운동의 대표자였던 반되스브르그의 기하학적 개념에 기초한 공간구성과 지각적 체험현상에 대한 주장에서도 나타난다. 그는 "신건축은 무정형(formless)이며 …… 그것은 선험적 스킴(schemes a priori)을 거부하고 대칭과 정면성을 인식하지 않으며, 그대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사면(四面)의 전개라는 조형적 풍부성을 시도하고 …… 신건축은 전후 좌우 상하의 모든 면을 동등하게 가치있는 요소로 간주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여기서 그가 주장하고 있는 탈 - 큐빅적 공간과 형대의 개념은 기하학 형태의 분해에 의한 구성으로 기하학적 사고의



117 Van Boesburg, Van Eesteren and Rietveld, private villa in the form of a counter-construction, 1922.

논리를 보여주는 경우이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건축공간은 종래의 단일 투시도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여러 상이한 지점의 영역에서 수많은 변화하는 이미지로 인식되어지도록 시도하였다는 점이다. 반 되스브르그가 창안한 등각투영법(axonometry)은 선, 면, 볼륨, 차원 등의 합리적인 요소로 대상을 단순하게 환원시킴으로써 대상의 객관적 특성에 대한 포괄적인 이미지를 관찰자에게 제공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투시법이 주는 직접적이지만 부분적인 관점과는 달리 간접적이지만 전체적인 이미지를 관찰자에게 부여함으로써 대상의 엄밀한 이미지를 제공한다. 이러한 이미지는 개념적 이미지(conceptualimage)를 의미하는데, 당사의 철학자 베르그송(Bergson)의 해석을 따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관찰자는 자신의 기억속에 외적인 시각세계의 대상물에 대한 지각적 정보를 축적하게 되며, 이 축적된 경험은 그 대상에 대한 관찰자의 개념적 지식을 형성하는 바탕이 된다"는 것이다. (Van de ven : 1980, P. 179) 건축사가 기디온(Giedion)은 「공간, 시간 그리고 건축(1967) 교에서 이러한 개념적 이미지 형성의 현상을 관찰자의 외식적 움직임의 유도에 외해 발생되는 공간경험임을 언급하고 이것을 "시 ~ 공간"이라는 4차원적 개념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관찰자보다 대상의 작용과 이미지를 더 중시한다. 또한 기하학적 사고유형의 건축적 사고에서 발견되는 건축적 대상의 지각 속성에 대한 많은 전제들은, 건축가 자신의 사면적, 주관적인 가정의 틀에서 나온 것으로 보편성을 잃기 쉽다는 점과 작품의 형식구조에 입각한 효과구조를 중시하여 접근함으로써 기능, 구조 등 건축의 1차적 조건과 문화적 다양성 및 그에 따른 건축형태의 의미의 풍부성을 간과하게 된다는 제약을 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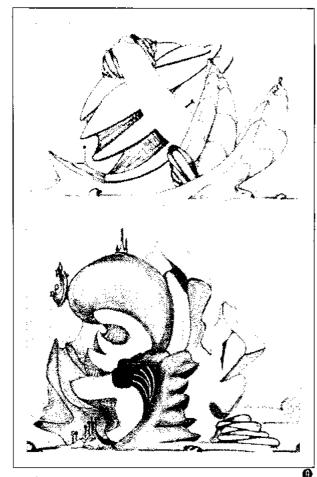
5. 심상(心想)적 사고유형 (Image - oriented thought)

심상적 사고유형은 건축을 인간의 이성적 측면에서 해석하고 접근하려는 것과는 달리, 인간의 비합리적인 정서, 정감, 영감 동을 중시하여 건축을 보고 경험하는 각 사람들의 마음(정신) 속에 영혼을 분출사키고 상상력에 의한 예술적 즐기움을 유발시키기 위하여 건축공간과 형태가 지니고 있는 고유의 분위기(aura: porphyrios: 1982, P. 117)를 표현하고자 시도하는

건축가들의 사고성향을 의미한다. 이들 건축가들은 소위 영감에 의해 디자인하는 것을 강조하며 (W. phent : 1973, P. 34), 따라서 디자인 해(解)의 도출을 직관에 의해 건축가의 마음 속에 떠오르는 이미지 즉, 심상(心想)에 기초하여 도출하고자시도한다. 그러므로 신비주의와 암유주의에 의한 직관적 유추방식은 창조적 메카니즘으로 중시되고 있다.

그러나 심상적 사고유형의 건축가들은 인간의 감성과 심리적 반응을 고려한 감동적 건축표현을 경직된 기하학적 공간과 형태 대신 유기적 공간특성과 형태가 발현하는 연상적 분위기를 통해 표현하기는 하지만, 그 형식이 주는 표현적 힘과 심리적 효과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기하학적 사고유형이 기초하고 있는 심미적 — 형식주의적 패러다임의 범주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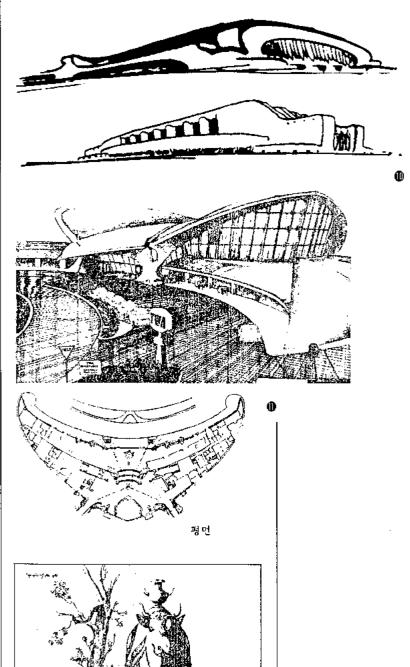
그러므로 건축적 매체인 표현적 요소를 형태 결정의 1차적 인자로 간주한다. 또한 표현되어진 지각대상의 주위에서 발현되는 인간 본연의 감정과 관련된 주관적, 감정적인 연상의 의미는 유형학이 내포한 사회적 적절성의 의미와는 다르지만 그 형태가 주는 표현(expression)의 힘과 심리적 효과를 위한 강력한 개념적 도구로 활용된다.



❸ V. 되스버그의 반구성의 ·공간구성

환상적인 형태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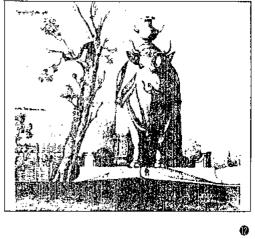
이러한 사고성향의 건축가들은 20세기초의 표현주의 건축운동과 1960년대의 신 ~ 표현주외의 건축적 조류에 속하는 건축가들의 디자인 접근 태도에서 쉽게 발견할 수가 있다. 브루노 타우트(B. Taut)는 오로지 감정만을 전달하는 지고한 예술로서의 건축을 추구하였으며, 한스 푈지히(H. Poelzig)도 계산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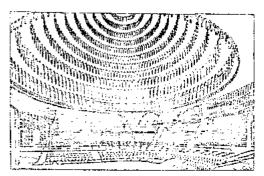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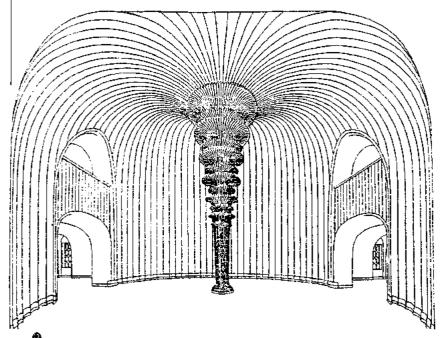
목적보다는 신비의 심연에서 나오는 형태를 탐구하였다. 안토니오 가우다(A. Gaudi)는 건축가 자신의 표현의지에 의해 지배되는 유기적인 조각적 메스로서의 건축 형태를 추구하였고 (W. phent: 1973, PP. 58 - 60), 멘델존(E. Mendelsohn)은 탄성적이며 생명력 있는 구조, 채료에서 나온 유기적인 역동적 형태를 추구하였다. 이러한 디자인 사고와 접근태도는 상징적 개념과 연상을 불러 일으키는 도상학(圖錄學)적 특징을 갖는 형태를 창조해 온사라낸(E. Saarinen)의 작품세계에서도 발견된다(J. Jöedick: 1969, PP. 149 - 153), 이들은 공통적으로 형태가 유발시키는 심리적 반응을 바탕으로 건축가의 영감과 감성에서 표출된 자율적 형태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심상적 사고유형의 건축가들은 감정에 기초한 직관적 추론을 그 사유의 바탕으로 하는 신비주의 사상에 심취하여 무한성(Timelessness)과 보편성(Universality)의 감정, 무(無)의 개념(Concept of Nothing), 절대 타자로서의 절대자(Absolute)등과 같이 초 - 세속적인 사상을 감각적인 지각의 대상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예술행위를 지향한다.

그러므로 심상적 사고유형의 건축가들은 기능을 단지 형태의 가상곡을 위한 출발점으로 간주하는데(W, Phent: 1973, P. 35), 이러한 태도는 기능을 단지 필요조건으로 보는 기하학적 사고유형의 태도와 유사하다. 따라서 디자인 프로세스는 건축가의 내적 감성에서 나온 주관적이고 선험적인 형태가 설정된 후에 기능적인 적합성이 탐구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인식적으로 외부에서 내부로의 접근과정을 보여 준다. 이들의 사고논리에 따르면, 좋은 형태의 디자인은 내부의 평면과 단면의 분석, 조합에서 외부의 입면의 단계로 진행해 나가는 기계론적 과정을 통해서는 얻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P. Collins: 1965, P. 51) 이러한 태도는 기능적, 구조 - 재료지향적 사고유형과는 상반되는 입장을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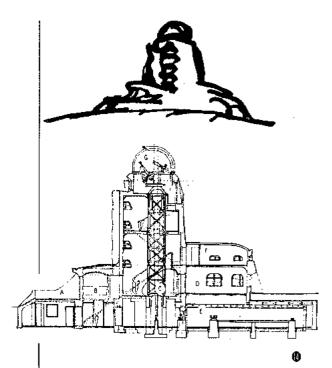




감정이입(Einfühlung, Empathy)은 관찰자가 지각한 형태에 지신을 동일시함으로써 건축형태가 인간의 마음에 친화되도록 하기 위해 채택되고 있으며, 골상학(physiognomy)적, 표현원리는 대상에 내재해 있는 표현성을 포착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도상(圖象)적 의성어법 (onomatopoeia)은 건축의 매스에 인간적 상징을 투영시켜 재현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된다. 또한 유기적인 관능적 형태나 다면의 결정체 등의 표현요소가 선호되며, 고형체와 공허부, 빛과 음영 등의 경계를 통해 얻어지는 조각적 효과, 간접 채광, 풍부한 색채 등에 의한 심리적 강압효과 (psychological coercion)를 통해서 관찰자를 생소한 상황속으로 참여시켜 건축 공간체험과의 일체감을 부여하고자 시도한다. 따라서 건축의 체험은 이성적 논리보다는 눈, 촉각, 통합 감각 등의 인간의 모든 감각 경험이 동원되어 전체 환경으로 경험되는 종합예술 (Gesamt - Kunstwerk)로서의 특성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심상적 사고유형의 건축가의 작품에서 발견되는 공간개념은 추상적, 합리주의적인 기하학적 질서의 공간개념의 속성과는 달리, 다분히 파우스트적인 공간개념 (Van de ven : 1980, P. 154), 즉 공간속에 특성 (character)을 내포하는 자연발생적인 유기적 질서의 공간개념이며, 그것은 논리적 사고에 기초한 기하학적인 구축적 (tectonic) 공간개념과 다르게 체험되어진다. 한스 푈지히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동굴 개념과 타위형 건물의 테마 (tower - building theme)의 공간개념은 이러한 특성을 잘 보여준다. 여기서 발견되는 타워형 공간개념은 건물 내부공간에 나선 모양의 이동감을 주기 위해 상향방향의 추력을 에워싸임의 감정과 함께 결합하여 동굴의 이미지를 갖는 기대한 타워형 공간이다. 이것은 계단식으로 적충되어 형성되는 구축적인 통굴공간 (tectonic cave)과 그 특성을 달리한다. 에릭 멘델존은 이러한 감성의 표현을 과감한 수평선, 부드러운 곡선, 유연한 형태적 특질을 통해서 형태속에 내재한 역동성의 표출로 실현하고자 하였는데 그의 대표작 아인쉬타인 탑은 이러한 개념을 잘 보여준다.

심상적 사고유형의 건축가들은 브루노 타우트가 주장했던 바처럼 대중을 위한 건축적 표현을 위해서 인간의 심리적 반응에 관련된 제 측면을 중시하고자 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보여준 논리적 접근개념은 건축가의 심상적 이미지와 개성에 의한 "주관적 표현의 분출" (Lampugnani : 1982, P. 8)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대중이 그 형태에서 어떠한 외미를 체험할 것인지는 건축가 자신의 가정에 의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건축가들이 의도한 건축적인 풍부한 의미는 전통적, 사회적 체계 속에서 일반 대중에게 인지되거나 지각되는 의미라기보다는 대상 자체의 고유한 분위기에서 연상되는 것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 의미체계는 건축가의 주관적 감성에 의한 의미의 한계를 지니게 되며 개인이. 건축의 정서적 힘의 해독자가 되어버리는 "의미의 개인화 (privitization of meaning)" (porphyrios :



- 멘델준의 철도역사 계획안 과 공항터미널 계획안 스 케치(1914년)
- ① TWA 터미널 (1962년) 사리넨 설계
- (3) 레쿠에의 외양간 계획안 (1820년)
- ⑤ 한스 푈지하의 Grosse Schauspiel house 내 부공간과 홀 전경.
- 멘델존의 아인슈타인 타워
 초기안 스케치와 단면도
 (1920 ~ 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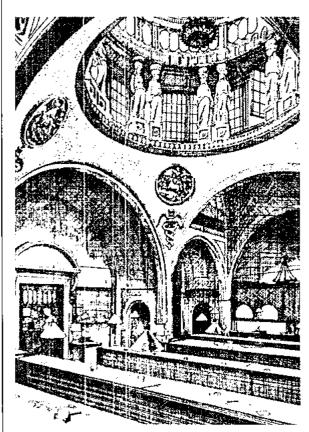
1982, P. 43)에 빠지기 쉽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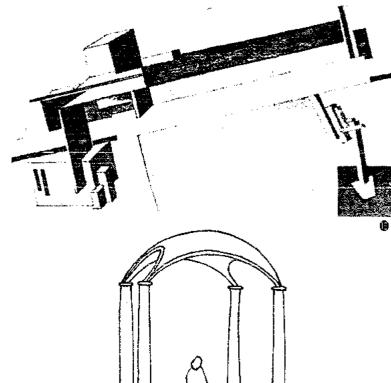
6. 인지 — 형태 지향적 사고유형 (Cognition Behavior - Oriented thought)

이제까지 기술해 온 건축적 사고유형은 건축 대상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인식, 사회문화적 맥락에서의 이해, 또는 인간의 감성적 반응의 측면에서 건축의 표현문제를 탐구해 온 사고유형의 범주이다. 따라서 건축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이 추상화되어 고립된 고전적 개념(기하학적 사고유형, 유형학적 사고유형, 심상적 사고유형)이거나 인간이 분석의 대상이 되는 실증과학적 개념(기능적 사고유형, 구조 - 재료 지향적 사고유형)에 기초한다.

그러나 현대 건축기들 중 일부는 건축공간과 형태가 인간의 지각과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면서 디자인 문제를 탐구해 나가는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어 패러다임의 변화에 의한 건축적 사고의 확장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건축가의 의도와 구조물의 가능성 뿐만 아니라 사용자(관찰자)의 심상(心像), 기억, 이미지 등의 경험구조와 관계된 인지 — 행태적 속성을 건축 공간구성과 형태표현 과정에 고려하여 "인간이 개입된 건축" (U. Raskin: 1981, P. 53)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태도를 취한다. 따라서 지각, 인지, 행태개념들을 디자인의 중심적 개념으로 고려하는 인지 — 행태 지향적 사고유형은, 인간의 경험구조와 작품의 효과구조의 관계를 중시하는 수용미학적 패러다임에 기초하고 있다.

인지와 행태의 개념은 환경 — 행태의 연구분야에서 환경과 인간의 경험현상을 규명하기 위해 사용되어온 개념이지만, 건축가들의 사고와 작품특성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인지는 "과거 및 현재의 외부적 환경과 현재 및 미래의 인간행태를 연결지어주는 앎 (awareness) 혹은 지식 (knowing)을 얻는 다양한 수단"(G. T. Moore & Colledge: 1976, P. 6)으로 이것은 건축의 미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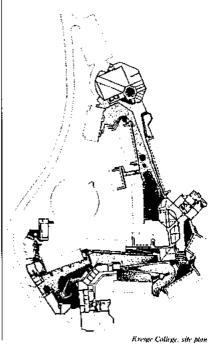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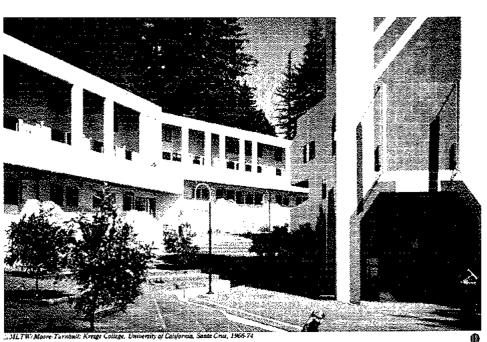
이해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공간 환경 내에서 인간의 행태적 경험을 조절한다. 그러므로 인지 — 행태의 개념은 사용자(관찰자)의 건축적 체험을 예상하고 공간 내에서의 행태를 공간구성을 통해 조절하고자 해 온 건축가들의 창조행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우리는 근대건축사의 흐름 속에서 인간의 경험적속성을 디자인의 다른 개념들보다도 중시해 온건축가들은 쉽게 찾아볼 수가 있다. 죤 소온 (J. Soan) 경은 관찰자의 행태에 따라 발생하는 지각의 위상적 변화를 고려하여 어떤 지점에서도 조각처럼 완전한 전체로 지각되어져는 건축공간을 만들어 내고자시도하였으며 (P. Collins: 1965, P. 23), 리시츠키(E. Lissitzky)는 공간지각에 대한 정신 분석학적인

- ⑤ 존 소온경의 영국은행 내 부(1818진~1823년)
- ⑤ E. 리시츠키의 프로운 IA. 교량 1(1919년)
- 에디큘라의 공간 개념
- 찰스 W.무어의 Kresge College 계획안 (1966~ 74년)

방법에 기초하여 공간이 인간 행태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고찰한 결과 프로운 - 공간 (proun - space)이라는 새로운 공간개념을 제시하였다. (Van de ven: 1980, PP. 216 - 219) 실제로 그는 4가지 공간개념을 ① 2차원적인 측면적 공간 (planimetric space) ② 3차원의 유클라드 기하학적인 투시도적 공간 (perspective space) ③ 4차원의 시ㆍ공간적인 비합라적 공간 (irrational space) ④ 영상의 원리에 의한 영상적인 이미지 공간 (imaginary space)를 제안하였는데 4번째의 공간개념이 현대건축에서 추구해야 할 공간지각의 범주임을 강조하였다. 모홀리나기 (M. Nagy)는 시각, 촉각, 청각, 인제 운동감각, 후각 등 모든 감각적 메카니즘에 의해 체험되는 공간과





형태를 실험하여 이것을 디자인의 구성원리로 채택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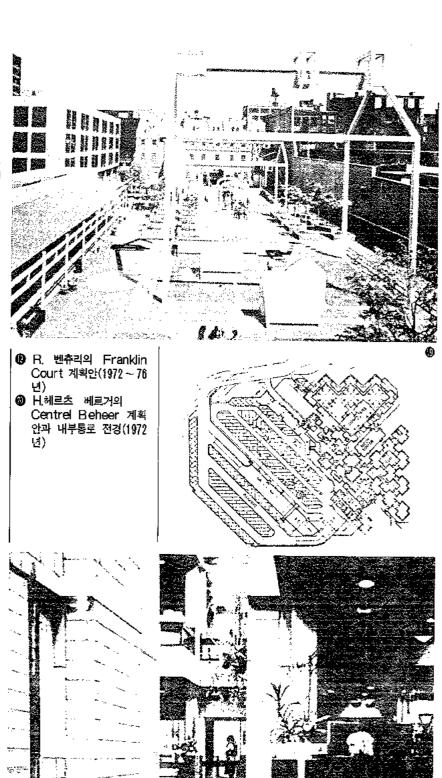
오늘날 활동하고 있는 건축가들 중에서 용거스 (O. M. Ungers)는 인간의 지각적 상관성과 이미지 발달과정을 고려한 형대학적 프로세스에 기초하여 긴축공간과 형태를 만들고자 시도하고 있으며 (schrimbeck: 1987, PP. 118 - 119), 무어 (C. W. Moore)는 단지 시각차원의 의미전달이 아니라 신체의 기억을 통해 장소로 체험되는 건축공간과 형태표현을 탐구한다. 특히 무어는 그의 주택작품에서 가벽의 스크린과 에디큘라(aedicula)를 도입하여 이러한 개념을 건축공간과 형태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에디큘라는 중심을 상징하는 어떤 것이 있기를 바라는 우리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뿐만 아니라, 공간경험의 중심적 마니와 참조점이 되어 다른 경험의 요소를 작용한다.

무어는 Kresge College 기숙사 건물계획에서 중세의 길 이미지에 일상적인 친숙한 요소를(전화박스, 세탁소 등)을 도입하여 이미지의 연속에 의한 공간 경험을 시도한 바 있으며, 다른 많은 건물에서도 병치된 가벽(假壁) 스크린에 의한 공간구성의 개념을 제시하여 왔다. 이러한 원리와 요소는 인간의 공간 정위(定位)와 신체 중심적인 감각을 올바르게 설정하기 위한 의도에서 제안된 것으로 인지 — 행태적 속성과 관련된 디자인 원리이다.

R. 벤츄리(R. Venturi)는 건축적 상징과 인유를 통해 복합성과 대립성이 표출되어지는 지각적 차원의 애매성(ambiguity)을 지난 형태표현의 개념을 제시해왔다. H. 홀라인(H. Hollein)도 현대의 하이 — 데크적인 재료를 이용하면서 인간의 심리적, 생리적 요구뿐만 아니라 촉각적, 시각적, 청각적인 특질을 건축구성 과성에 고려함으로서 그의 건축자품이 정보전달 매체의 형태로 창조된 시각적 이미지로서의 건축적 형태구성임을 강소한다.

구조주의 건축가인 피에트 불름(P. Blom), 헤르만 헤르츠베르거(H. Herzberger) 등은 건축공간 내에서의 사회적 접촉과 감각적 교류의 강화를 통해 공간 안에 인간의 참여에 의한 경험현상을 제공하고자 시도하여 왔다. 이들의 작품에는 기억과 관련된 친숙한 요소의 도입과 공공통로(public street)에 의한 공간경험의 의미부여를 통해 사용자의 인지구조에 상용하는 쉐마와 일치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흔적이 보여진다.

따라서 인지 — 행태 지향적 사고유형의 건축기들은 모두 사용자(관찰자)가 건축을 체험함으로써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심적 이미지를 형성시켜 나가는 과정과 이것을 가능케 하는 건축적 구성을 중시한다. 여기서 인간은 항상 디자인의 중심에 놓여진다. 이것은 근대건축이 체험주체로 가정해 온 "보편적인 이상적 인간"(C. Jencks: 1977, P. 24)과 신체의 탈중심성에서 벗어나 세계의 현상 속에서 지각하는 주체로서 인간의 신체의 중심성의 회복을 의미한다. 이러한 신체의 중심성은 인간의 물리적, 심리적 자극에 대한 고도의 감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수용하여



〈표 +〉건축적 사고유형별 접근개념의 특성비교

	機能的 思考 類型	構造, 材料志向的 思考 類型	幾何舉的 思考 類型	類型學的 思考 類型	心想的 思考 類型	認知行態 志向的 思考 類型
建築的 論理	 실중적, 과학적 합리성 인과론적 혜석 실용성, 유용성, 합목적성 기능의 논리적 분석 	- 논리성, 함리성 - 내부에서 외부로 - 과학적, 실증적	- 이성적 선험적 외부에서 내부로 수학적 유추	 - 정험석, 선험직 * 구범직, 유추적 - 모방의 개념 	- 직관적 - 대상의 분위기 - 외부에서 내부로	경험적인간의 체험구조신체의 중심성
中心 概念	- program (purpose) - utility - fitness - usefuiness - functional zoning - ontological bond - rationality - positivism - biological, mechanical, moral analogy	- techonology - economy - construction - authentic - expression - production - practicality - engineering - empricism - relative aesthetic	- order - geometric form - reason - mathematics - harmony - primitiveness - origins - platonic idea - mathematical analogy - absolute aesthetics	- type(reborn) - association - meaning - representation - iconographic typology - mimesis - allusion - aura - social propiety - codification - context - language analogy	 psychological coercion symbolism emotions empathy imagination synaesthetic sense characteristic space sculputural effect cave theme organic form 	 perceptual mechanism image behavior mind sensation cognitive image meaning context body memory spatial formal relationships schema place
垈地 解析	 자연에 대한 유기적 조화 추구 자연질서의 무시 (기재론적 유추) 	 자연생태학적 질서에의 순용 추구 - 빛, 조망, 수복 도입(자연요소 외 적극적도입) 	 자연의 추상화 된 질서에 조화 (대비적 조화) 무지조건의 수 용 미비 	 대비적 조화 부지와 문화 환 경의 맥락 해석 	- 자연형상의 모 방 유츄(추상화 도상화) - 대지특성 반영	- 대지와 주변맥 락의 수용 (물리적+문화 직)
騰史 脈絡 의 受容	- 주변대지 백락 수용에 국한(물 리적 context) - 역사의 참조기 투(규범, 의미체 개) - bldg, level수용	 역사 '정신'의 추상화 물리적 백목 중시 bldg, level 수용 	 건물 level에서 수용 자연의 법칙과 규병 수용 bldg, level 수용 	- 역사와의 연계성- 문화적 연속성- 규범의 재해석- 유령화 요소- urban level수용	 역사성 무시 주면 context 수용 건축의 자연화 	- 역사의 인용, 수 용 - 의미, 상징요소 의 채택 - urban level 수용
空間 構成 및 平面形式	- 기능×경제성 (bldg. program) - 기능에 의한 공 간 분절 - 개방공간 개념 (open plan) - 유통 공간(free flowing space) - 공간의 유기적 연설 - 유기적 공간 (organic space)	- glass화된 개방 공간 추구 - 가변적 공간 개 님(flexivility) - 균질 공간 -내외공간 관입	 개념화된 공간 경험 Euclid적 공간 구성 탈 큐비적 공간 구성 	- 구심적 공간 구성 성 - 공간의 중심성 - 고전적 대청구성	- 동굴적 공간경 형 - 환상적, 유기적, 기하학적 공간 구성 - 투명성 - 빛, 음영, 색체	 신체경험적 장소성 공간 공간의 경계, 중심성 요소 지각 공간 특성
形態 吳	- 기능과 형태는 하나(본제론적 결속) - 작업성능에서 나온 형태 - 기능의 표현성 - 골직화	- 투명성 추구 (glass) - 대비적 표현 - 구조의 논리적 표현성 - 피막화(skin & bone)	- 수와 비레 - 무장식성 - 원초적 형태 - 매스(mass)화	- 긴축의 재격자 율성 - 전용적 구성범 (3분범) - 대칭, 균세미 - 추상화된 이미지 - 도시적 형태	- 피막화 - 양괴화 - 표면성 - 유기적 관능 형 대 - 다면의 결정체	- 고진적+현대 ² 표현
代表的인 建築家의 分 類	- Semper - Durand - Sullivan - Wright - Gropius - H. Meyer Uring Metabolism - Archigram	- Violet · le · Duc - A. Perret - Berlage - Mies - Nervi - L. Kahn - Brutalism - Piano & Rogers - Frei Otto	- Bullée - Ledoux - Corbusier - V. Deosburg - G. Rietveld (De Stijl) - Neo-Plasticism - P. Eisenman (New York 5)	- Beaux · Art - Quincy - Aalto - (P. Johnson) - A. Rossi - L. Krier - M. Graves	- Art - Nouveau - A. Gaudi - H. Poelzig - (B. Taut) - E. Mendelsohn - R. Steiner - G. Böhm - E. Sarrinen - B. Goff	- J. Soan - L. Kahn - L. Kahn - Lissitzky - M-Nagy - C. Moore - O. M. Ungers - R. Venturi - (H. Hollein) - (P. Blom) - (H. Herzberger - R. Stern - Tigermann

표현하려는 "지각의 건축(Architecture of Perception)"적 속성을 중시하는 것과 관련되며(C. Ray Smith: 1979, P. 77), 이성과 인식의 차원에서의 이해를 강조하였던 근대건축의 "개념의 건축"적 속성과는 그 체험구조를 달리하고 있다.

그러나 인지 - 행대 지향적 사고유형은 인간의 주관적 감정과 관련된 경험현상을 강조하여 대상 자체의 속성을 무시하는 주관적 경험주의나 건축가의 주관성의 표출에 기초하여 표현된 형태의 심리적 반응효과를 의도하는 심상적 사고유형과도 다르다. 건축 디자인에서 인지 - 행태 개념을 중시하는 건축가들은 기능적, 합리적 프로그램과 구조, 재료의 가능성, 그리고 건축가의 직관적 영감에 기초한 접근보다는 인간의 지각차원과 행태적 속성을 디자인의 중심적 태마로 설정하고 접근하기 때문에, 기능의 개념은 물리적, 정량적 차원에서 심리적, 정성적 차원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건축적 사고유형은 현대의 다원론적인 경향의 건축가 집단들 중에서도 소위 탈 — 근대 건축가라고 불리우는 건축가들에게 발견되고 있는데, 이틀 건축가들이 제시하고 보여주는 디자인 특성과 구성원리는 기존 연구의 접근방법이었던 양식론적, 정신사적, 사회경제사적인 측면에서 분석되기 보다는 건축적 사고라는 시각에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소결

이상과 같이 건축가의 건축적 사고유형을 패러다임이라는 개념적 도식에 의해 6가지로 분류하고, 건축가의 사고성향과 작품특성의 관계, 지향하는 표현의 주제와 중심개념들을 살피 보았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전축가의 건축적 문제 해결을 위한 착상과 접근 시각, 태도는 다양하다는 점과 그 다양함 속에는 어떤 공통적인 사고의 범주들이 발견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고찰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건축 디자인에서 패러다임과 건축적 사고유형 및 디자인 특성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건축디자인에의 접근과 그 작품특성의 차이는 패러다임과 관련된 사고모형에 따라 인간의 요구에 대한 해석의차이에서 기인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패러다임과 건축적 사고의 관점에서 볼 때, 근대 건축가들은 표현의 문제에 있어서 실용성, 적합성, 경제성 등의 물리적인 개념과 대상 자체의 내재적인 미적 특절에 근거를 둔 기능적 사고유형, 구조 – 재료 지향적 사고유형, 기하학적 사고유형에 기초한 반면, 오늘날 활동하고 있는 현대의 건축가들은 인간의 감성. 문화적 연속성, 지역성과 인간의 경험 현상을 중시하고 있으며, 유형학적 사고유형, 심상적 사고유형 인지 – 행태 지향적 사고유형에 기초하여 집근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건축적 사고형성에 영향을 주는 패러다임의 변화와 관련되며, 건축적 사고의 변혁과 확장이 요망되어진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준다. 다음 〈표 1 〉은 이들 사고유형별로 사고의 논리체계, 부저해석의 입장, 역사 및 백락의 수용태도 공간 및 평면구성개념, 형태 및 외관표현의도 등음 비교하여 정리한 것이다.

특히 이 중에서도 인지 — 행태 지향적 사고유형은 다른 건축적 사고유형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인간 체험 중심적인 디자인 개념과 의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인간의 요구와 관련된 기능의 개념을 물리적 축면에서 심라적, 상징적 축면으로 확대하여 수용함으로써 인간 요구의 관점에서 가장 기능적인 것은 인지 — 행태적 속성과 관련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의 인식과 더불어 우리에게 필요한 작업은, 동일한 주제의 표현에 대해 건축가들의 건축적 사고의 다양성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설계 경기 작품의 분석을 통해서 한국 건축가들의 작품 속에 나타나 있는 건축적 사고유형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로부터 한국 건축의 디자인 접근태도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길이다.

따라서 다음 호부터는 건축적 사고의 시각에서 설계 경기 작품에 나타난 디자인 의도와 구성원리, 요소 등을 이해하여 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

- Abercrombie, Stanley (1984), Architecture as Art,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Company Inc.
- Averill James R. (1976), Patterns of Psychological Thought, New York: John Wiley & Sons.
- Bloomer, Kent C. & Charles W. Moore (1977), Body, Memory, and Architecture, New Haven: Yale Univ. Press.
- Boulding, K. E. (1956) The Image, Ann Arbor; Univ. of Michigan Press.
- Danby, Miles (1963), Grammer of Architectural Design, London:
 Oxford Univ. Press.
- Deasy, C. M. (1974), Design for Human Affairs, Cambridge, Mass. : Schenkman Publishing Company.

- Gutman, Robert(ed.) (1972), People and Buildings, New York:
 Basic Books Inc., Publishers.
- Jencks, Charles, (1974), Le Corbusier and the Tragic view of Architecture, Cambridge, Mass, : Harvard Univ. Press.
- Le Corbusier (1923, 1978), Toward a New Architecture, Lohdon:
 The Architectural Press
- Pehnt, Wolfgang (1973), Expressionist Architecture, London:
 Thames and Hudson Ltd.
- Snyder James C. & Catanese Anthony J. (ed.) (1979) Introduction to Architecture, New York: Mc Graw - Hill, Inc.
- Venturi, Robert (1966, 1977), Complexity and Contradiction in Architecture, New York: The Museum of Modern Art.

현상설계 2제

국립중앙박물관이 다가올 2천년대의 문화수요중대에 대비하고 명실공히 국제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실시한 국립 제주박물관 지명현상설계공모에서 종합건축사사무소 삼정(대표 : 김기웅)안이 당선적으로 확정 발표하였다.

종합건축사시무소 삼정(대표 : 김가웅), 천일중합건축 사사무소(대표 : 한규봉), 종합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 이승우) 등이 참가한 이번 현상설계에서는 제주 고유의 전통적 요소를 비탕으로한 미래지향적 이미지 조 성과 경제성, 시설의 규모 및 기능의 적정성 등이 주요심 사기준이 되었다.

aremenankarn.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국내 유일의 원자력안전규제 전문기관으로서의 이미지를 참출하고 경제성·안정성에 입각한 미래지향적인 우수한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 청사 건설계획 설계(안) 현상공모를 실시하여 삼부건축(대표 : 이영북)인을 당선작으로 선정 발표하였다.

총 18개 작품이 용모된 이번 현상공모에는 당선작 외에 엄이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 이각표)안이 우수작으로 선정되었으며, 정주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 이길주) 안이 가작으로 선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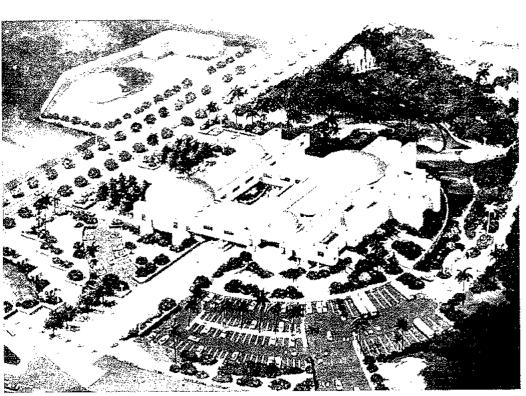
대지 22,300평에 건물 6000평 규모로 건립예정인 원 자력인전기술원 신청사는 당선전 계획설계를 토대로 기 본 및 실시설계를 연내에 완료하고 93년 착공하여 95년 을 완공목표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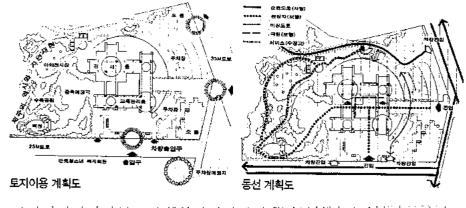
국 ◆ 립 ◆ 제 ◆ 주 ◆ 박 ● 屬 •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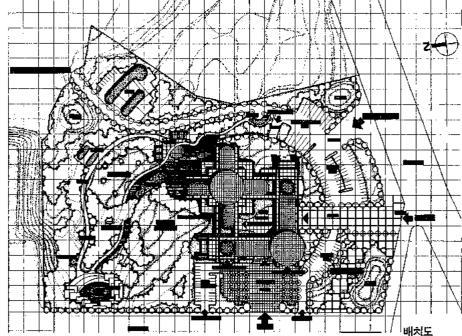
당선작 삼정건축(김기웅)案

대지위치 / 제주도 제주사 건입동 261의 대지면적 / 50,496m² 건축면적 / 4,544m² 연면적 / 8,610m² 건폐율 / 8,99% 용적률 / 11,77% 규모 / 전시동 / 지하 1층, 지상 1층 교육관리동 / 지하 1층, 지상 2층 주차대수 / 133대〈대형버스 15대〉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외부마감 / 화강석버너구이 + 송이 벽돌 지붕 / 동관쇄우기

창호 /16mm 복충유리







조형개념

• 주변자연경관의 형태적 통일과 응집

외부공간 체계

- 제주의 자연과 역사의 조화
- 물의 흐름과 수목을 이용한 상징적 공간체계

배치개념

- 두 접근도로에의 적용
- 사리봉공원 속의 박물관
- 건축가용지에 집중배치
 (장래 중축예정지 확보)
- 경사지특성의 이용

평면개념

- Service Space의 Servant Space
- 내 · 외부공간의 관입
- 목직동선과 전시동선의 구분처리

입면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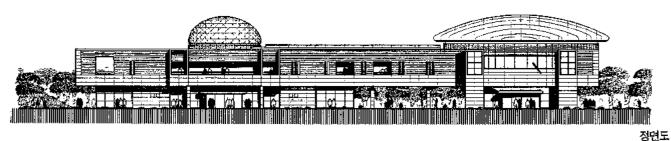
- 제주초가지붕의 형상화
- 제주적 질감(화강석, 송이벽돌)
- 수평성 강조(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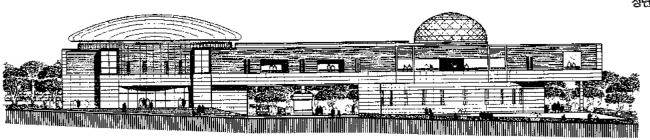
단면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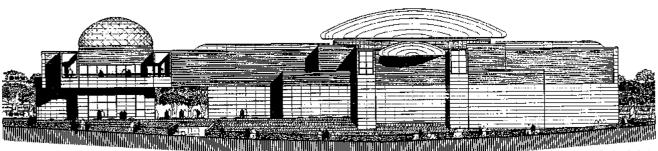
- 지형을 이용한 공간의 다양한 경험유도
- 자연요소의 실내도입

동선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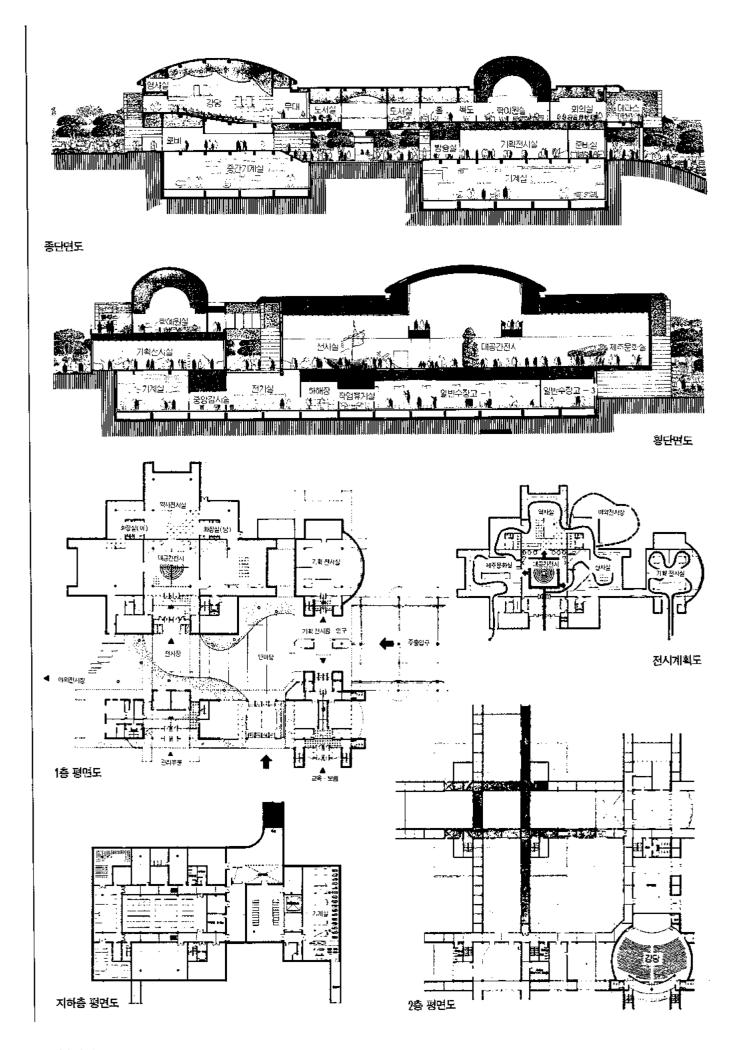
- 보차 분리
- 내부전시동선에서 외부전시동선으로의 연속 성 부여







측면도(전시동)



응모작

천일건축(한규봉)案

대지위치 / 제주도 제주시 건입동 대지면적 / 50,476m² 건축면적 / 4,891,87m² 연면적 / 8,549,21m² 건폐율 / 9,69% 용적률 / 13,17%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외투미감 / 현무암, 화강석

계획개요

- 기능
- 역사, 고고, 미술, 민속자료 등 종합전시시설
- 지역문화시설을 겸하는 박물관 (문화교육보급, 관광자원 및 지역 특수 기능 충족)
- 전시공간과 옥외전시 몇 휴게공 간의 연결
- 주번 유적지 및 관광지와의 연 계

건축형태

- 제주지역 건축의 상징성 부여
- 지형 및 주변 경관 고려
 - 경제성
- 지형의 효율적 이용



- 건물 구조 및 설비의 합리화
- 현지 생산자재의 적극적 활용
 - 장래성
- 제주역사·문화연구·보전의 장(場)
- ~ 전시공간의 중축교려
- 인접주차장의 추가확보 고려

배치계획

- ~도시축, 자연축에 따른 건물 매 소의 방향성 설정
- 공간구성의 위계성 부여

- 과정적 공간 확보
- 선면광장 및 옥외전시공간 확보 (관람·휴식 및 관광 기능 부여)
- 교통소음원에서 이격
- 전통적 남향배치에 의한 지형활 용
- 관료적이고 직선적인 진입배계 Blocksulat

평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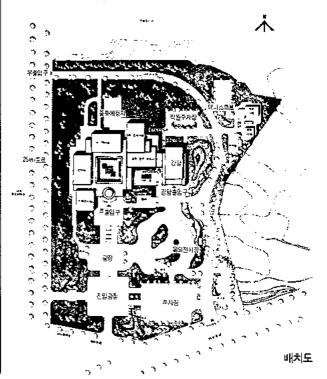
- 전시실의 순환 및 선택동선 부 여
- 중정을 옥의전시공간 및 휴게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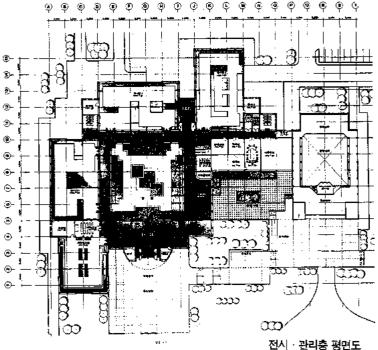
간, 통로공간으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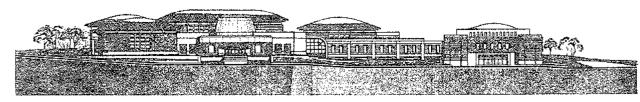
- 전시동선과 강당출입동선의 분리(강당의 시민이용 접근성 고려)
- 중정 및 휴식공간을 통한 내・ 외부의 공간적 관업현상 시도

입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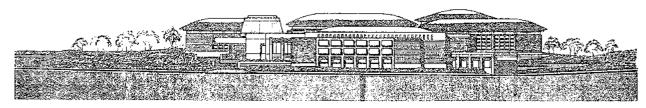
- 제주 전통가옥의 이미지 제현
- 현관 조형에 의한 지역 상징
- 지형에 따른 매스의 분배
- 배면 및 측면에서의 매스의 변화(전통마을의 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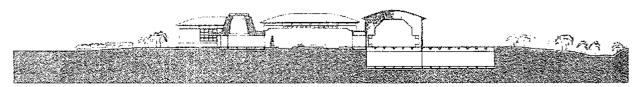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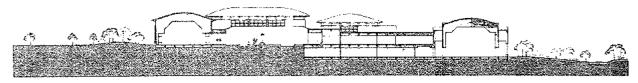
남측 입면도



동촉 입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응모작 종합건축(이승우)案

계획개요

- 2000년대의 문화수요, 국제관 광지로서의 욕구충족가능
- 자연속의 건축유형화 제주전통 구성원리 채용
- 조직적, 합리적 기술계획
- 정보화시대 건축으로서의 하이 테크

배치계획

• 유기적 군집 : 각각의 이용자의



자연스러운 접근

조경계획

- 녹음식재를 통한 그늘 주차 (Shade Parking): 도로연변 상 록수의 방풍식재로 겨울의 북서풍 차단
- 전정의 설치 : 완만한 슬로포와 게단, 키작은 나무로 열린공간구성

도로변의 상록수로 완충지역 (Buffer Zone)형성 : 여름의 남 서풍의 방풍식재및 푸른그늘 제공

 천연소재인 돌 배경과 화계응용 로단식 전시휴게 공간

입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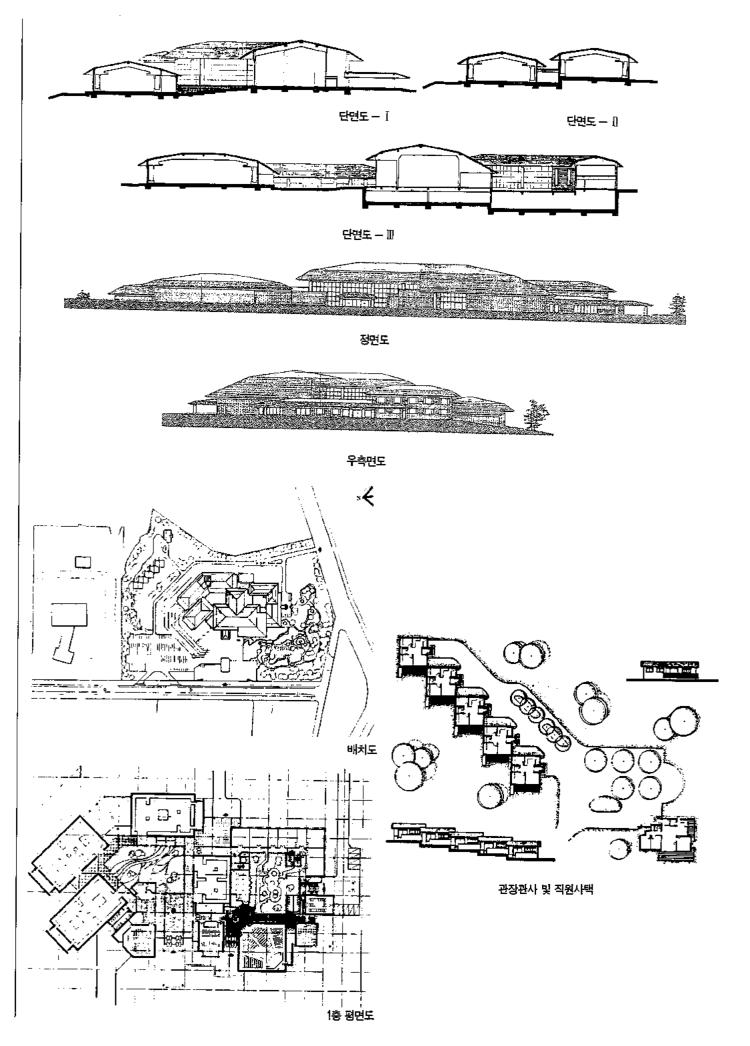
- 장소성 : 대립과 복합
- 문맥전이: 제주전통재료, 공간

언어흡수

- 제주지역의 Scale, Texture사용 매스의 위계(Interlocking Forme)
- 중축시 유연성

단면계획

• ㅁ자집의 안마당개념 : 시야의 확장, 푸른빛의 유입



한 • 국 • 원 • 자 • 력 • 안 • 전 • 기 • 술 • 원

당선작 삼부건축(이영복)案

대지위치 / 대전시 유성부 구성동 19번지

지역 - 지구 / 연구단지, 자연복지 대지면적 / 73.918.5㎡ 건축면적 / 6.675.52㎡ 연면적 / 20.186.83㎡ 건폐율 / 9.04% 용적률 / 22.34% 규모 / 지하 1층, 지상 4층 외부마감 / 알루너늄 박합패될 土스 텐레스 용당

기계설비 / Zoning에 의한 공조사

배치 및 외부공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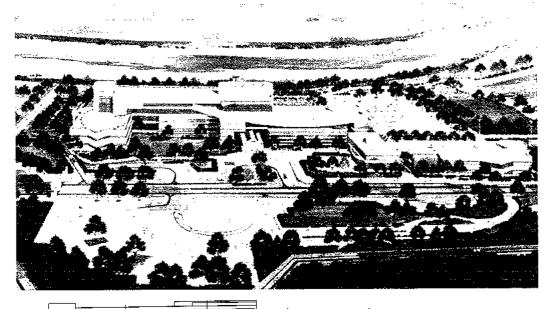
- 전면의 녹지경관을 설내에까지 유입할 수 있는 배치를 유도
- 남항배치에 의한 열효율 향상
- 장래 확장서에도 전체적 흐름 및 형태, 동선에 유리한 계획
- 충분한 녹지공간의 확보로 정적 이미지 유도
- 내방인과의 공용공간과 직원전 용휴식공간의 배치상 분리
- 소공원 · 광장 · 휴개시설 등의 직정 체류공간을 통한 단지내 호 름의 속도조절 및 변화와 시각적 이미지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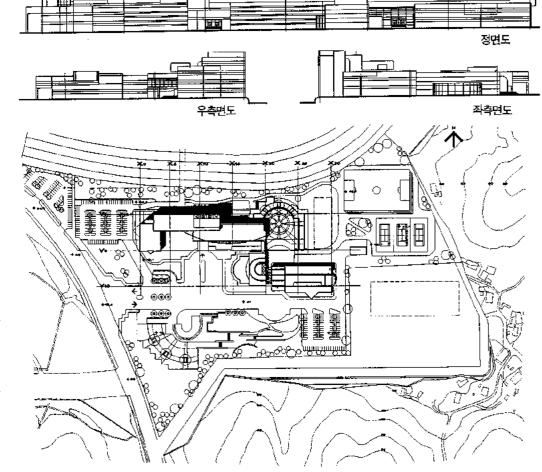
입면계획

- 수직적 위압간 보다 수평적 변화에 의한 안정감 추구
- 변화있는 Massing으로 조항적 스카이라인 형성
- 열효율 향상을 위해남측창내비 북층창을 가능한 적게 계획하였 다.

평면계획

- 모듈화에 의한 경제성 도모 및 실별 변화에 손쉽게 대응할 수 있 는 평면세획
- 시험시설을 위한 기술평가동을 분리하여 소음, 진동, Hot Zone 에 대비하였다.
- 식당, 휴계시설을 증앙에 두어 상시 이용와 편리성을 도모한다.





 강당은 외부인의 사용이 빈번한 것을 고려하여 단지 출입구측에 배치하여 동선 등에 유의하였다.

• 피로디 · Over Bridge의 적절 사용으로 각 공간의 자연적 연계 도보

단면계획

- IBS(Intelligent Building System)에 대응
- 다양한 기능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융통성 고려

◆ 충별 기능분리, 자연채광 적극 유도

외장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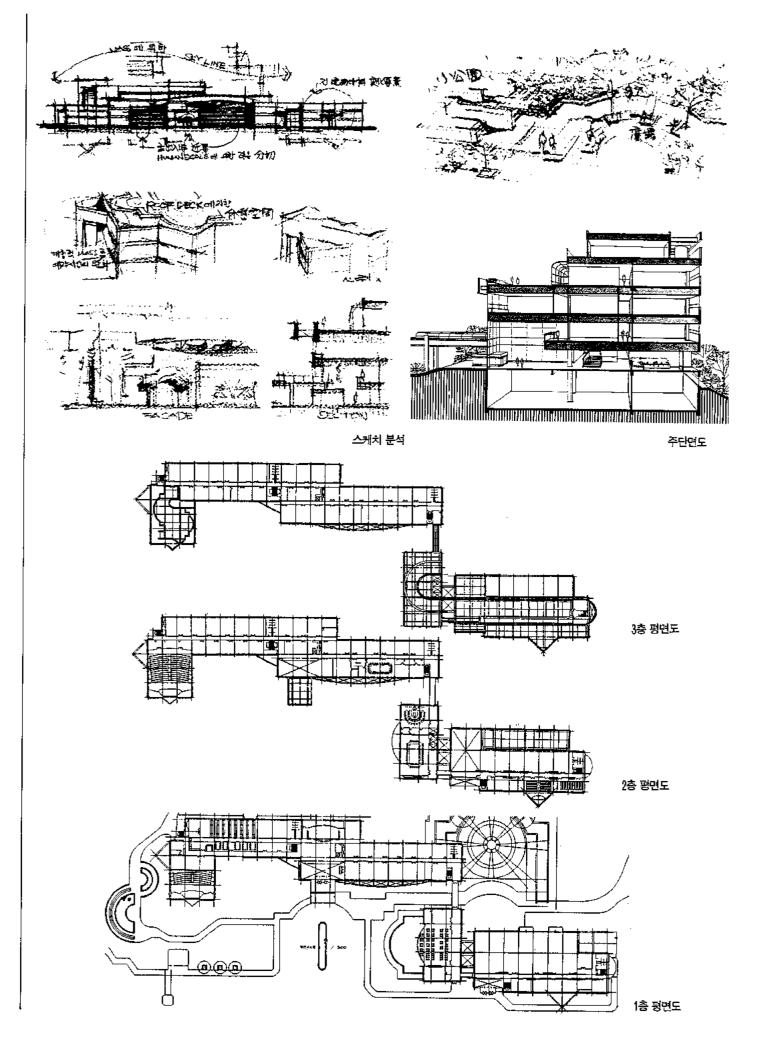
• AL, 복합패널과 칼라복충유리 에 의한 침단건물의 어미지를 표 출하였다.

구조계획

• 철근콘크리트조의 경제성에 부 합될 수 있는 Span 및 모듈을 채 택하였다.

동선계획

- 부지내 활동번위가 보행권내에 들어오도록 한다.
- 자가용 승용차 이용의 증가에 대비하여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 한다.
- 본관과 기술평가동간의 연계동 선을 찾는다.



우수작 엄이건축(이각표)案

대지위치 / 대전시 유성구 구성동 19번지

지역 · 지구 / 작연복자지역, 연구시 설용지

대지면적 / 73.819.5m²

건축면적 / 9,131.3m²

연면적 / 20.899.2m3

건폐율/ 12,37%

용적률/ 24,22%

규모/ 본관 /

행정사무동 -지상 2층 연구동 - 지하 1층, 지상 3층 기술평가동 - 지하 1층.

· 사상 2층

구조 / 칠근콘크리트 라멘조 와부마감/ 화강석±16mm

복중유리

주차대수 / 총 307대 /

외래주차 - 32대 연구원주차 - 275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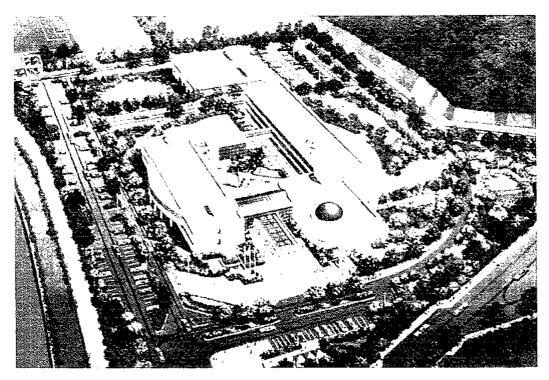
(법정태수 : 67대)

계획목표

- 합리적 계획 : 무지이용의 극대 화, 공간의 적절한 배분, 기능의 편이성 및 동선의 유기적 연결, 및 래대용형 설계 및 융통성 확보
- 인간중심의 계획 : 사용자 위주 의 최적공간 환경부여, 친근감 있 는 공간무성
- 자연에의 순용 : 주민지형에 순 응한 배치, 차연환경의 척극적 내 부도입
- 경제성 있는 건물 : 에너지 절 약, 건물, 보수유지 관리가 용이한
- 창조적 이미지 구현 : 원자력 청 사로서의 첨단 이미지, 대덕연구 단지 내 렌드마크 형성

평면계획

- 행정관리, 연구등선의 혼재지양
- 연구+시설평가동(실험)의 인 접배치
- 코어의 분산배치 -동선의 원활
- 강당·회의·전시 집중배치, 원활한 동선유도



- Heavy Duty Zone OA 7 기의 열. 소유발생을 방지 - 쾌석 한 근무환경 추구
- 식당, 휴게 Zone 동선상 한 리적 위치 배치 - 증축시 고려
- 실험동 장래시설 번경, 증설
- 에 한라적 대응 Duct
- 브리지 연결 기능별로 매스분 할하고 각동간 브리지로 유기적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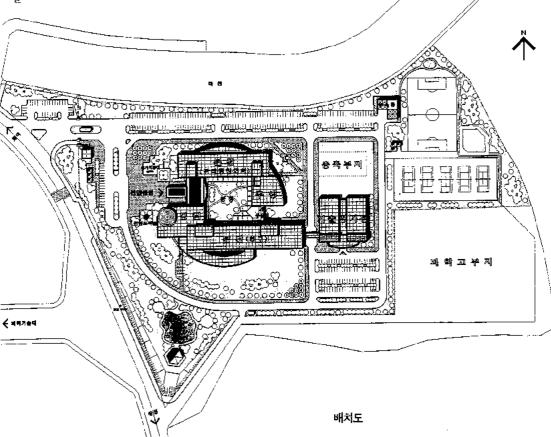
입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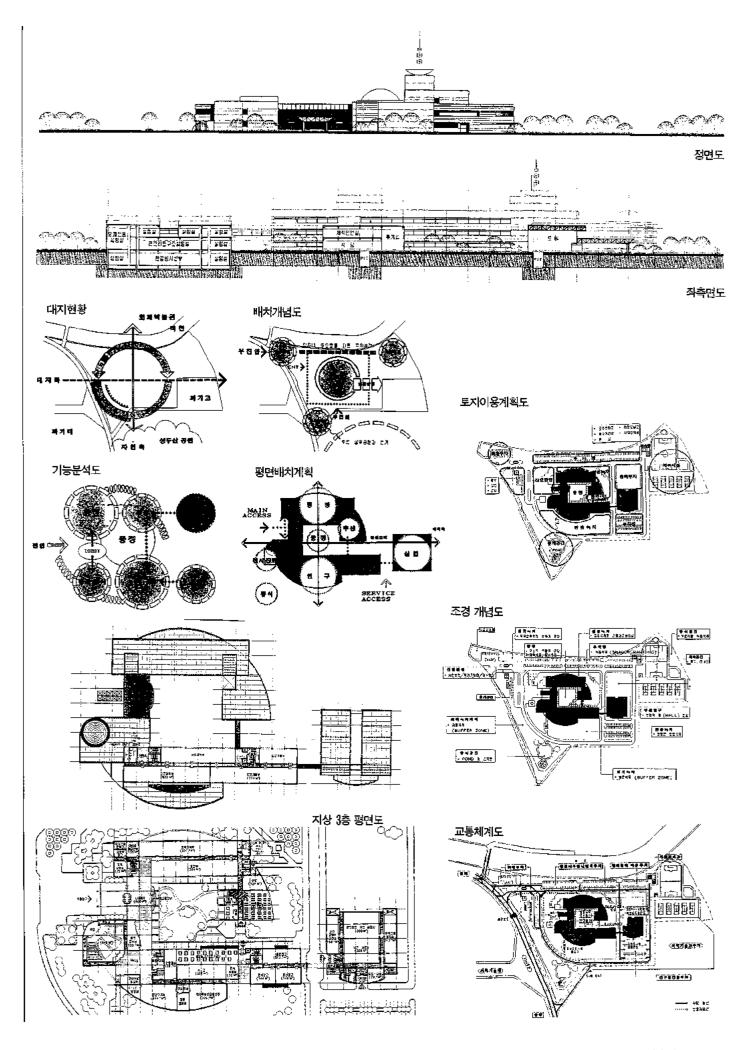
- 자연에 순용하는 스카이라인
- 첨단파학인 원자력이미지 창출 을 위한 조형적 매스 및 돔설정
- 낮은 매스의 수평성 강조 안 정감 있는 아미지 창출.
- 매스를 원형으로 묶음으로 기능 의 분리에 통일간 조상
- 수평강조의 변화 있는 입민구성

- 시각환경에 다양성 제공

단면계획

- 필요공간의 충별분력화
- 층고확보 천정고 2,55M, 층 고 4.2M로 향후 OA, BA, TC의 증가에 능동적 대체
- 실험실 공조 블릭화로 장례증가 에 농동적 대체





가작 정주건축(이길주)案

_____ 대지위치 / 대전직할시 유성구 구성 동 19번지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교육 및 연구시설지구

대지면적 / 73,819.5m²

건축면적 / 6,780.87m²

연면적 / 20,849.91m²

기술평가동 /4,026.28m²

부대시설 /265.5m²

건폐율 / 9.1%

용적률 / 23.16%

규모/ 본관동 /지하 1층, 지상 6층 실험실동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 / 철괄철근콘크리트조 외장재료 / 화강석버너마감및 물갈기 조경면적 / 계획(59,857m²), 법정 (29,527,8m²)

주차대수/ 계획(218대), 범정(139대) 옥외시설/ 만남의 광장, 야외다목 적 운동시설, 잔디광장, POND, 상 경조형물, 주차장, 테니스코트, 정문

계획의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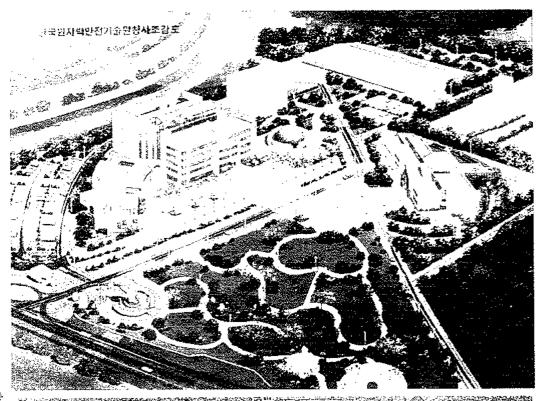
- * 상징성
- 대덕연구단지 내 첨단연구기관 으로서의 이머지 창출
- 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으로서의 대민적 신뢰감 표출
- 대지와 건축물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자연적 조형미 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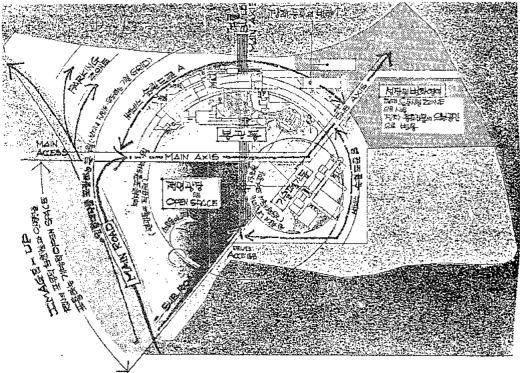
* 기능성

- 사무실의 극대화를 위해 개방적 이고 쾌적한 환경조성
- 매스의 분절과 층수의 변화로 기능별 형태구분, 각 기능의 유기 적 배치 · 조닝
- 행정과 연구동 동선의 독립화 및 합리화
- ◆ 보행자·차량동선의 체계적 분리

* 공공성

• 효율적인 토지이용으로 전 대지 가 조화를 이루어 연구와 휴식이 공존하는 쾌적한 공간구성





- 집회 및 체육활동을 수용할 수 있도록 잔디광장 조성
- 대민 홍보의 장 : 원자력 안전에 대한 이해와 신뢰감을 이룩하기 위 한 개방적 공간조성

★ 경제성

- 정보화시대에 대응하는 초기적 투자
- 경제적 구조, 에너지 절약, 자연 조건을 최대한 살린 건축계획
- 운영관리면에서 환경제어 시스 템의 효율적 · 경제적인 관리 시스 텐

* 융통성

- 장래성장발전 고려(수평, 수직 증축 고려, 피로터 등 유효공간확보)
- 장래의 변황 : 대처평면 계획상 의 플렉시빌리티 도모

배치의 기본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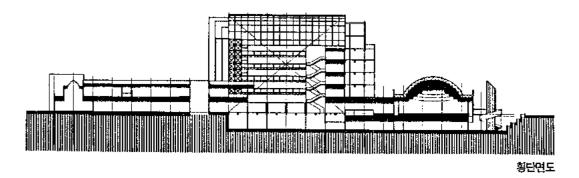
대지의 진입체계: 대지의 영역 은 본관영역, 기술평가영역, 대엔 상징영역으로 크게 분류하고 각각 외 독자적인 장소성을 구현하되 연 계성을 유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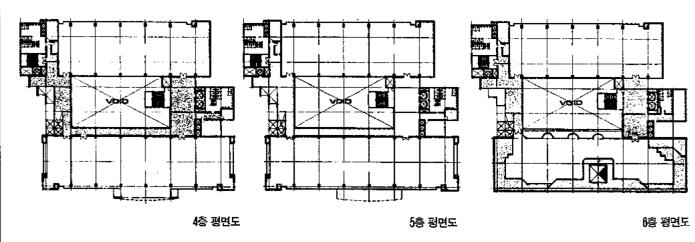
합리적 기능배치 : 본관을 대지의 중심으로 대민 개방공간의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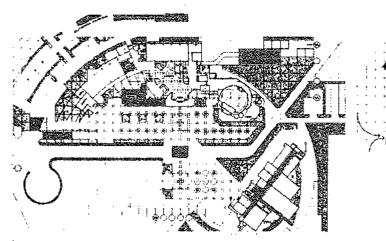
전산영역과 고유의 통제영역인 기술평가동으로 분리한다. 지원시설은 본관 지하에 두어 각동에 대한 연계가 용이하도록 하고, 외부공간은 원자력안진기술원의 대외적 상정공간과 대내적 활성화 공간을 두어 단지 내의 구심점을 형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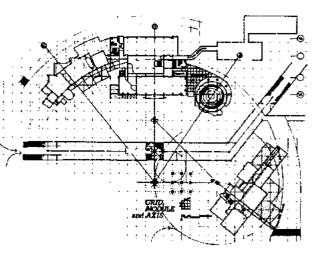
평면계획

- 업무의 형태변화와 인원확장에 대용하는 공간의 융통성 - 실내 무 주공간 형성
- 합리적인 모듈로 경제성 획득하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고 공간의 분할 · 통합 · 확장이 될 수 있는 가변성 부여

입면계획

- 첨단연구기관으로서의 이미지 창출
- 평면의 계획요소를 동일하게 내 포할 수 있는 형태구성
- 최첨단 하이테크 이미지 표출방 법으로 시각적 안정감을 주고, 형 태의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 지원 시설 및 홍보전시 · 전산동 등을 저 층부로 구성하고 고층부는 강한 정 면성을 부각시킴.

단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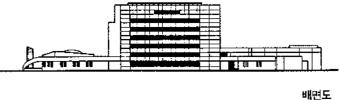
층고: 내부 평면기능 및 적정한 설비공간 확보에 맞는 총고설정, 경제성과 휴먼 스케일에 적합한 구 성

천정고 : 내부공간에 따른 적정 천정고 확보

설비계획 : 효율적인 설비계획으로 적정한 설비 스페이스 확보

로비계획: 출입구의 우아함을 높이고 장중함으로 유도하기 위해 로비를 중심으로 오픈화함. 선큰가 돈의 도입으로 쾌적한 환경조성





개정건축법시행령 2

⊙ 대통령령 제 13,655호

제 9장 보 칙

제 114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사용 및 영업행위의 허용동) 법 제 69조 제 2 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야 정하는 경우"라 함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 미터미만인 축사와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 터미만인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용 창 고를 말한다.

제 115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 시장 동은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법령등에 위반하게 된 건축물의 실대조사를 실시하고,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건축물의 시정조치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 116조(손실보상) ①법 제 70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이 보상하는 경우에는 법 제 70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손실을 시가로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액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등은 그 보상급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의 통지에 불복이 있는 자는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관할 토자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 117조(권한의 위임) ①건설부장관은 법 제 71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 ·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I. 범 제 62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 (도시설계구역의 면적이 1백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의 승인, 다만, 국가 또는 시·도 자사가 작성한 경우를 제외한다.
- 2. 법 제 64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개발사 업구역안에서의 건축물등의 건축에 관한 기본계 획의 사전승인
- 3. 법 제 65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가구정 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건축계획의 사전승인 ②시·도지사는 법 제 71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 여 법 제 36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지정 외 승인에 관한 권한을 사장등에게 위임한다.

- ③시장은 법 제 71 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 1, 총수가 6총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동
- 2.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등 ④시장등은 법 제 71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동상 또는 읍 · 면장에게 위임 한다.
- 법 제 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수리
 법 제 15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
- 법 제 72조의 규정에 의한 용벽등 공작물 축조 신고의 수리

제 118조(용법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①법 제 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 물의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 한다. 이하 여 조에서 같다)에 관하여는 법 제9 조 · 법 제 13조 제 1 항 · 법 제 16조 제 2 항 · 법 제18조(착공신고에 판한 사항 및 제1항 후단을 제외한다) • 법 제 25조 • 법 제 26조 제 1 항 • 법 제30조 제4항 · 범제31조 · 범제34조 · 범제 37조·법제 38조·법 제 45조 제 2항(건축물의 형태 • 색채등의 제현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 • 밥 제47조 · 법 제50조 · 법 제51조 · 법 제53조 ·법 제 70조 · 법 제 73조 · 법 제 74조 · 법 제 76조 · 법 제78조 및 법 제83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이 경우 법 제 45조 제 2항의 준용은 건축조 레가 정하는 바에 의하고, 법 제53조의 준용은 제3호의 공작물에 한하여 준용한다.

-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 2. 높이 6미터를 넘는 장식탑·기념탑기타이와 유사한것
-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 · 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 기타 이와 유사한것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 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8. 높이 6미터이하의 기계식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 9. 제조시설 · 저장시설 · 유회시설 기타 이와 유 사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 ②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에 관하여 법 제45조 제2항 외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당해공작물을 축조할 수 있는 범위는 건축조례로 정한다.
- ③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물의 축 조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공작물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 하여야 한다.

제 119조(면적·높이동의 산정방법) ①법 제73 초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충수 등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 1.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법 제 36조 제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안에 진축선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건축선과 도로사이의 대지면적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2. 건축면적 : 건축물(지표면으로부터 1미터이하에 있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이 호에서 간다)의 중심신(척마ㆍ차양ㆍ부연기타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태양열을 주된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인 경우 그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 3. 바닥면적 : 건축물의 작충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약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 가. 벽 · 기등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에 있어서 는 그 자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무영면적으로 한다.
 - 나.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이하 이 조에서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이를 둘러싼 난간벽 기타 이 와 유사한 것의 면적(공간으로 되어 있는 부 분의 면적을 제외한다)이 바닥의 외곽선으로 부터 그 지붕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이르는 수직면(옥내면을 제외한다)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한 다.

- 다.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등의 설치어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 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 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 라.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은 당 해 부분이 공중의 통행 또는 차량의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를 바닥면적에 산업하지 아니한다.
- 마.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굴뚝 다스트 슈트 · 나락(충고가 1.5미터이하인 것에 한 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옥상 · 옥외 또 는 지하에 설치하는 뿔탱크 · 기름탱크 · 냉 각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설치를 위한 구 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바. 20층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 한 기계실 • 어린이놀이터 • 조정시설의 경우 에는 당해부분의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업하 지 아니한다.
- 4. 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다만, 용적률의 산정에 있어서는 지 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용(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 5. 건축물의 높이 : 지표면으로부터 당해 건축물 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격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 다.
 - 가. 법 제 51 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의 산정에 있어서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의 높이로 한다. 다만, 전면도로가 다음의 (1) 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산성한다.
 - (I)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 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이 집 하는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의 수평거리에 따 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 으로 본다.
 - (2) 건축물의 대자에 자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고저차의 2분의 1의 높이 만큼 올라온 위치에 당해 전면도로의 면이 있는 것으로 본다.
- 나.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의 산정에 있어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다만, 하나의 대지안에 2동이상의 공동주택

차가 있는 경우에는 각동의 공동주택의 지표 면을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하기 위한 지표면 으로 보며, 제 86조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건 축물의 높이의 산정시 인접대지경계선은 당 해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으로부터 산정하 고,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의 지표면은 공 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지표면으로 본다.

- 다.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탐ㆍ옥탐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 축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 분에 한하여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다만, 광고탑 · 광고판의 경우로서 제 103초 의 규정에 의하여 피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높이의 전부를 건축물의 높이에 산업한다.
- 라, 지붕마루장식 · 굴뚝 · 방화벽의 옥상돌춤 부 기타 이와 유사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 (그 벽면적의 2분의 1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03조의 규정 에 의하여 피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 6. 처마높이 :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유사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 · 깔도리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 7. 반자높이 :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동일한 방에서 반자높이가 다 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의 반자의 면 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 8. 충고 :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윗층 바닥아래면 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동일한 방에서 층의 높 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 부분의 높 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 9. 층수 : 승강기탑 · 계단탑 · 망루 · 장식탑 · 욕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 의 8분의 1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총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충으로 산정하며,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 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 많은 충수로 한
- 10. 지하층의 지표면 산정 : 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의 산정방법은 건축물의 주위 가 접하는 각 지표면무분의 높이를 당해 지표면부 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 을 지표면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에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당해 지표면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 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 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당해 고저 을 건축하는 경우에 그 대지의 지표면에 고저 📗 차 3미터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

③제1항 제5호 다목 또는 제1항 제9호의 경우 의 수평투영면적의 산정방법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에 의하다.

제10장벌 칰

제 120조(과태료의 부과) ①건설부장관, 시ㆍ도 지사 또는 시장동(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 82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 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했위를 조사 · 활인. 한 후 위반사실ㆍ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서면 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 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야 경우 지정된 기 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 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건설부렁으로 한다.

제 12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법 제 83조 제 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은 별표 15와 같다.

②제 120 조의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이외 절차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 1조(시행일) 이 영은 I992년 6월 1일부터 시 행한다.

제 2조(건축허가를 받은 것동에 관한 경과조치) 이영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 청을 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 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에 의하여 새로이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당해 건축조례. 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 4조(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건축물에 콴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 96조의 규정 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신청한 건축허가. 가 반려된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는 당해 제한이 해소된 날부터 6월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 5조(건쾌율등에 대한 적용의 특례) ①제 78조 제 1 항의 규정에 외한 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상업 지역의 건폐율과 제 79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은 제78. 조 제1항 및 제79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 하고 1993년 5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다.

②별표 2 내지 별표 7 및 별표 9 내지 별표 14의 규 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안에서 개정규정의 시행전에는 건축이 허용되었으나 개 정 규정 또는 건축조례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는 용도의 건축에 대하여는 별표의 개정규정 및 건축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4년 5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 6조(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민방위기본법시행 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제1호중 "건축법 제22조의 3" 을 "건축법 제44조"로 한다.

②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중 "건축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를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로 하고, 동조제2호중 "건축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4호"를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를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로 하며, 동조제3호중 "건축법 제2조 제5호"를 "건축법 제2조 제7호"를 "건축법 제2조 제6호중 "건축법 제2조 제6호"로 한다.

제2조 제7호중 "건축법 제2조 제9호"를 "건축법 제2조 제7호"로 하고, 동조제8호중 "건축법 제10호"를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로 하며, 동조제9호중 "건축법 제2조 제11호"를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0호"로하고, 동조제10호중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를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로하며, 동조제11호중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로하며, 동조제11호중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조 제9호"를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9호"로 한다.

제4조 제1항중 "건축법 제5조"를 "건축법 제8조"로 하고,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25조"로 한다.

③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2조 제1항 제1호중 "건축법에 의하여 지정 공고된 도시설계구역"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설계지구"로 하고, 제19조 제4항 제2호중 "건축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를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를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로 하며, 제32조 제1항 제2호중 "건축법에 의하여 지정공고된 도시설계구역"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설계지구"로 한다.

④도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중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 23조 제 3호중 "건축법 재 44 조"를 "건축법 제 12조"로 한다.

⑤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사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 51 조 제 2 항중 "건축법시행령 제 66 조"를 "건축법시행령 제 66 조"를 한다.

⑥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 2조의 2 제 2 항 제 12호중 "건축법시행령 제 15조 제 4 항"을 "건축법시행령 제 27조 제 2 항"으로 한다.

⑦토지구휘정리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 31 조 제 1 항중 "건축법 제 39 조외 2 제 1 항" 을 "건축법 제 49 조 제 1 항"으로 한다.

⑧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0조의 2 제 2 항중 "건축법시행령 제 53조 제 1 항"을 "건축법시행령 제 89조 제 1 항"으로 한다.

제 32조 제 2항 제 3호증 "건축법시행령 제 5조 제 1항"을 "건축법시행령 제 9조 제 1항"으로 한다.

⑨득정지역종합개발촉진법시행병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7조 제 1호중 "건축법 제 39조의 2"를 "건축 법 제 49조"로 한다.

⑥공동주택관리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건축법 제5조"를 "건축법 제8조"로 한다.

① 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호중 "건축법 제5조"를 "건축법 제8 조"로 한다.

제 17조 제 1 항제 3호중 "건축법 제 7조 제 1 항"을 "건축법 제 16조 제 1 항 및 제 18조 제 1 항"으로 한다.

제 55 조 제 1 호중 "건축법 제 2조 제 7호"를 "건축법 제 2조 제 7호"를 "건축법 제 2조 제 6호"로 한다.

⑩ 한국토지개발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 28조 제 1 항제 1 호중 "건축법 제 39조의 2제 1 항"을 "건축법 제 49조 제 1 항"으로 한다.

②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7조 제 1 항 제 2호증 "건축법시행령 부표"를 "건축법시행령 별표 1"로 한다.

④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5조중 "긴축법 제 39조의 2"를 "건축법 제 49 조"로 한다.

제 21 조의 2중 "건축법 제 5조"를 "건축법 제 8조"로 하고 "건축법 제 44조"를 "건축법 제 12조"로 한다.

제 34조 제 2 항중 "건축법 제 39조의 2"를 "건축 법 제 49조"로 한다.

⑥ 주치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0조 제 1항중 "건축법 제 7조 제 4항"을 "건축법 제 18조 제 3항"으로 한다.

(f)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 4조 제 6호중 "건축법 제 2조 제 4호"를 "견 축법 제 2조 제 3호"로 한다.

제 6조 제 1 항중 "건축법시행령 제 82조"를 "건 축법시행령 제 76조"로 한다.

재 8조 제 1 항중 "건축법시행령 제 2조 제 2항 제 4호"를 "건축범시행령 제 3조 제 1항 제 4호"로 하다

제 11 조중 "건축법 제 22조의 3"을 "건축법 제 44조"로 한다.

제 15 조 제 1 항중 "건축법시행령 제 53 조 제 1 항"을 "건축법시행령 제 89 조 제 1 항"으로 하고, 동조 제 5 항중 "건축법 제 22 조"를 "건축법 제 57 조"로 한다. 제 16조를 제 4항증 "건축법시행령 제 38조·제 39조 및 제 41조"를 "건축법시행령 제 34조·제 35조 및 제 37조"로 한다.

제 24 준충 "건축법시행령 제 44조 내지 제 46조" 를 "건축법시행령 제 40조·제 42조·제 43조" 로 한다.

제 29조 제 1 항중 "건축법 제 9조의 2제 2 항"을 "건축법 제 32조"로 한다.

제 36조 제 3항중 "건축법시행령 제 33조"를 "건 축법시행령 제 54조"로 한다.

제 37 조 제 1 항중 "건축법시행령 제 51 조 제 1 항"을 "건축법시행령 제 93 조 제 1 항"으로 한다. 제 40 조 제 3 항중 "건축법 재 21 조"를 "건축법시행령 제 103 조"로 하며, 동조 제 5 항중 "건축법시행령 제 58 조의 2"를 "건축법사행령 제 100 조"로 한다.

제 56조 제 2 항충 "건축법 제 9조 및 동법 제 9조 의 2제 1 향"을 "건축법 제 30조 및 제 31조 제 1 항"으로 한다.

⑥ 약국 및 의약품동의제조업 · 수입자와판매업의 시설가준령중 다음파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 재 4 호중 "건축법시행령 제 101 조" 풀 "건 축법시행령 제 119 조"로 한다.

⑩ 전기통신공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중 "건축법시행령 제58조"를 "건 축법시행령 제98조"로 하고, 동조 제5호중 "건 축법시행령 제61조"를 "건축법시행령 제99조" 로 한다.

⑤ 우편법시행병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51 조 제 2 항중 "건축법시행령 제 59 조"를 "건 축법시행령 제 101 조"로 한다.

② 제1항 내지 제19항외에 이 영 시행 당시에 다 본 대통령령에서 종전의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 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1]

<u>건축물의 용도분류</u> (제 2조 제 1항 제 13호 관련)

1. 단독주택

가, 단독주택(가정보육사설을 포함한다)

나. 다중주택(학생 또는 적장인동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받 한다)

다. 공판

2. 공동주택(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 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 주택으로서 가정보육시설 을 포함한다)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

다. 다세대주택

3.기숙사

4. 근린생활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 (1) 슈퍼마켓 · 일용품(식품 · 잡화 · 의류 · 완구 · 서적 · 건축자재 · 의약품류동) 등의 소 배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름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 곱미터마만인 것
- (2) 다꽈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 미터미반인 것
- (3) 이용원 · 미용원 · 일반목욕장 · 세탁소(공 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 (4)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 침술원 · 접골 원 · 조산소
- (5) 탁구장 ·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 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 나. 제 2종 근린생활시설
- (1) 대중음식점 · 다방 · 기원
- (2) 다과점으로서 제 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
- (3) 안마시술소
- (4) 정구장 · 헬스크립 · 볼링장 · 실내낚시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 (5) 종교집회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불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함계가 300제 곱미터미만인 것
- (6) 금융업소·사무소·부동산중개업소·결혼 상담소등의 소개업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미만 인 것
- (7)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제 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이하 "도시형공장"이라 한다)인 제조업·수리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미만이고, 대기환경보진법, 수잘환경보진법 또는 소음·진동규계법에 의한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의 설치하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 (8) 당구장·청소년전자유기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외 합계가 200제곱미터미만인 것
- (9) 사진관·표구점·예능계학원·기술계학원 (주산·부기·타자·속기·경리·속셈· 속독·웅변·변론·언어교정·컴퓨터에 한한다)·독서실·장의사·동물병원기타 이와 유사한 것

5. 근린공공시설

가. 동사무소 · 경찰관파출소 · 소방서 · 우체국
 · 전신전화국 · 방송국 · 보건소 · 공공도서
 관 · 지역의료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용

- 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미만인 것
- 나. 마을공화당·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 판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다. 변전소 · 양수장 · 정수장 · 대피소 · 공중화 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6. 종교시설

- 가. 종교집회장: 교회·성당·사찰·기도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수도장: 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기 타 이와 유사한 것

7. 노유자시설

- 가. 아동시설 : 아동복지시설 · 유치원 · 새마을 유치원기타 이와 유사한 것
- 나. 노인사설: 노인복지사설·경로당기타이 와 유사한 것
- 다.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자시설 8. 의료시설
 - 가. 병 원 : 종합병원 · 병원 · 치과병원 · 한방 병원 · 정신병원 · 요양소
 - 나. 격리병원 : 전염병원 · 마약진료소 기타 이 와 유사한 것

9. 교육연구시설

- 가. 학교 :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 대학교·대학·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나.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한다)
- 다. 직업훈련소
- 라. 학원(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과 자동 차학원·무도학원을 제외한다)
-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사험소 · 계량계측 소를 포함한다)
- 바. 도서관
- 10. 운동시설(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 나. 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로울러스케이트・승마・사격・궁도・골프등의 운동장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재 곱미터비만인 것
- 다.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11. 업무시설

- 가.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및 외국공관의 건축 물로서 근린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 · 사무소 · 신문사 •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는 각 개별실에 일부 숙 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 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2. **숙**박시설

- 가, 일반숙박시설 : 호텔 여관 여인숙 ~
- 나. 관광숙박시설 : 관광호텔·기족호텔·국민 호텔·해상관광호텔·휴 양콘도미니엄·한국전통 호텔
- 13. 판매시설(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를 포함한다)

가, 도매시장

- 나. 소매시장 :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 정에 의한 시장·대규모소매 절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다. 상 점:제4호 가목(1)의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것

14. 위락시설

가. 일반유흥옥식점(전문음식점·간이주점기 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무도유흥음 식점·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기타 이와 유사 한 것

나. 특수목욕장

- 다. 당구장·유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라.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 마. 무도장ㆍ무도학원 및 노래연습장
- 바. 경마장의 장외발매소

15. 관람집회시설

- 가. 공연상: 극장·영화관·연예상·음악당 ·서어커스장 기타 이와 유사한 건
- 나. 집회장 : 회의장 · 공회장 · 예식장 기타 이 와 유사한 것
- 다. 관람장 : 운동경기관람장(운동시설에 해당 하는 것을 제외한다) · 경마장 · 자동차경주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6. 전시시설

- 가. 전시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 · 산업전시장·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나. 동·식물원 : 동물원·식물원·수족판 기 타 이와 유사한 것

17.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세탁·염색·도장·표백· 재봉·건소·인쇄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만, 근린생활시설·위험물저장 및 차리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가. 공해공장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 법, 소음 · 전통규제법의 규정 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 가를 받아야 하는 공장
- 나. 일반공장 :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18.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 축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가, 창고(냉동창고를 포함한다)
- 나, 하역장

1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소방법, 도시가스사업법, 석유사업법, 고압가스안 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 및 사업관리법, 총 포 · 도검 · 화약류등단속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 • 자가발전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에 쓰 이는 저장시설을 제외한다.

- 가, 주유소
- 나, 액화석유가스충전소
- 다. 위험물제조소
- 라, 위험물저장소
- 마. 위험물취급소
- 바, 액화가스취급소
- 사, 유독물판매소
- 아, 총포판매소

20. 운수시설

-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 나. 철도역사
- 다. 공항시설
- 라.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 21. 자동차관련시설(중기관련시설을 포함한다)
 - 가. 주차장
 - 나, 세차장
 - 다. 폐차장
 - 라. 검사장
 - 마, 매매장
 - 바, 정비공장
 - 사, 운전학원 · 정비학원

22. 동물관련시설

-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등 을 포함한다)
- 나. 기축시장
- 다, 도축장
- 라. 도계장
- 마. 동물검역소
- 23. 분뇨 · 쓰레기처리시설
 - 가, 분뇨·페기물처리시설
 - 나, 고물상
- 24. 식물관련시설
 - 가, 버섯재배사
 - 나, 종묘배양시설
 - 다. 화초 및 분재등의 온실
 - 라, 기타 식물과 관련된 가목 내지 다목과 유사 한 시설(식물원을 제외한다)
- 25. 발전소(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포함한다)

26. 교정시설

- 가, 교도소(구치소ㆍ소년원ㆍ소년감별소를 포 함한다)
-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호ㆍ교육ㆍ 보건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27, 군사시설

28. 방송 · 통신시설

-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제작시설 및 송ㆍ중계 시설을 포한한다)
- 나, 전신전화국(근립공공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다. 촬영소

29. 묘지관련시설

- 가. 화장장
- 나. 납골당
- 다.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 30. 장례식장

31. 관광휴게시설

- 가, 야외음악당
- 나, 야외극장
- 다. 어린이회관
- 라. 관망탑
- 마. 휴계소
- 바.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건. 축물

32. 청소년시설

- 가. 생활권청소년시설(청소년회관·학생회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나. 차연권청소년시설(심신수련장·야영장· 자연학습원 · 학생교육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다. 유스호스텔

[별표2]

전용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제65조제1항제1호 관련)

-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 가, 단독주택
 - 나, 근린공공시설
 - 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에 한한다)
- 2. 건축조례가 정하는 비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 가, 노유자시설
 - 나, 종교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 다. 국민학교
 - 라,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한한 다)
 - 마. 전시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인 박물관ㆍ머술관 에 한한다)
- ※ 제 1호 및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외의 건 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별표3]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제 65조 제 1항 제 2호 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 가, 단독주택
- 나 공동주택
- 다. 기숙사
- 라. 노유자시설
- 마. 종교시설
- 바. 근린공공시설
- 사,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 설(종교집회장에 한한다)
- 아, 교육연구시설(국민학교 · 중학교 및 고등학 교에 한한다)
- 자, 판매시설(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 을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시장의 면적 이 종전의 면적의 2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의 건축물에 한한다)
- 2.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 가. 제 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를 제외한
 - 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 다. 교육연구시설 (국민학교·중학교·고등 학교를 제외한다)
 - 라, 운동시설
 - 마, 업무사설(너비 12미터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 마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 바. 판매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 사. 관람집회시설
 - 아, 전시시설
 - 자. 공장(인쇄ㆍ봉재ㆍ필림현상ㆍ자동자료처 리장비제조업 · 반도체 및 관련 장치제조업 · 컴퓨터프로그램매체제조업 및 두부제조업 의 공장으로서 배출시설기준의 2배이하인 것 과 아파트형공장에 한한다)
 - 차. 창고시설
 - 카,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충전소 에 한한다)
 - 타. 교정시설
 - 파. 자동차관련시설
 - 하. 동물관련시설
 - 거, 발전소(열병합발전소에 한한다)
 - 너, 방송 · 통신시설
 - 더, 군사시설
 - 러, 청소년시설(유스호스텔을 제외한다)
- ※ 제 1호 및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외의 건 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벌표4]

준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제 65조 제 1항 제 3호 관련)

- 1.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 가. 단독주택
- 나. 공동주택
- 다. 기숙사
- 라. 근린공공시설
- 마. 종교시설

- 바, 노유자시설
- 사, 근린생활시설
- 2.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 가. 외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 나, 교유연구시설
 - 다. 운동시설
 - 라. 업무시실
 - 마, 판매시설
 - 바, 관람집회시설
 - 사, 전시시설
 - 아. 공장(도시형 공장으로서 배출시설기준의 2 배이하인 공장 및 아파트형공상에 한한다)
 - 자, 창고시설
 - 차, 위험불저장및 처리시설
 - 카, 자동차관련시설
 - 타 동물관련시설
 - 파, 식물관련시설
 - 하 발전소
 - 거, 교정시설
 - 너, 군사시설
 - 더, 방송·통신시설
 - 러. 청소년시설
- ※ 제 1호 및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외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閏五5〕

중심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제 65조 제 1항 제 4호 관련)

-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 가. 근린생활시설
 - 나, 근립공공시설
 - 다. 종교시설
 - 라. 업무시설
 - 마, 숙박시설
 - 바. 판매시설
 - 사, 위락시설
 - 아. 관람집회시설
 - 자. 전시시설
 - 차. 방송 · 통신시설
- 2. 건축조례가 정하는 비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 가. 단독주택(하나의 건축물로서 단독주택의 용도와 다른 용도가 복합된 경우에 한한다)
 - 나, 공동주택
 - 다. 기숙사
 - 라, 노유자시설
 - 마, 의료시설
 - 바 교육연구시설
 - 사, 운동시설
 - 아, 창고시설
 - 자, 공장(인쇄공장으로서 배출시설기준의 2배 이하인 공장에 한한다)
 - 차. 위험물저장및 처리시설
 - 카. 운수시설
 - 타, 자동차관련시설

- 과, 청소년시설
- ※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외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遺표 6]

일반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제 65조 제 1항 제 5호 관련)

-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 가. 기숙사
 - 나, 근린생활시설
 - 다. 근린공공시설
 - 라. 종교시설
 - 마, 업무시설
 - 바. 숙박시설
 - 사, 판매시설
 - 아, 위락시설
 - 자, 관람집회시설
 - 차. 전시시설
 - 카. 창고시설
 - 타, 의료시설
 - 파, 방송 · 통신시설
- 2.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 가, 단목주택(하나의 건축물로서 단목주택의 용도와 다른 용도가 복합된 경우에 한찬다)
 - 나, 공동주택
 - 다. 노유자시설
 - 라. 교육연구시설
 - 마. 운동시설
 - 바, 공장(도시형 공장으로서 배출시설기준의 3배 이하인 공장에 한한다)
 - 사, 위험물저장및 처리시설
 - 아. 운수시설
 - 자, 자동차관련시설
 - 차, 동물관련시설
 - 카, 발전소
 - 타. 군사시설
 - 화 교정시설
 - 하. 관광휴계시설
 - 거, 청소년시설
- ※ 제 1호 및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외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별표 7]

근린상업자역인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제 65조 제 1 항 제 6호 관련)

-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 가, 단독주택(하나의 건축불로서 단독주택의 용도와 다른 용도가 복합된 경우에 한한다)
 - 나. 기숙사
 - 다. 근린생활시설
 - 라, 근립공공시설
 - 마. 종교시설
 - 바, 판매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 사 의료시설

- 2.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 가, 공동주택
 - 나, 노유자시설
 - 다. 교육연구시설
 - 라. 운동시설
 - 마, 업무시설
 - 바, 숙박시설
 - 사, 관매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 다)
 - 아, 위략시설
 - 자, 관람집회시설
 - 차. 전시시설
 - 카, 공장(도시형 공장으로서 배출시설기준의 3배 이하인 공장과 아파트형 공장에 한한다)
 - 타. 창고시설
 - 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하, 운수시설
 - 거, 자동차관련시설
 - 너, 동물관련시설
 - 더, 발전소
 - 러. 방송 통신시설
 - 미, 교정시설
 - 버, 군사시설
 - 서, 청소년시설
- ※ 제1호 및 재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외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岩莊8]

유통상업지역인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제 65조 제 1항 제 7호 관련)

-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 가, 근립공공시설
 - 나, 판매시설
 - 다. 운수시설
- 라. 창고시설 2.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 가. 근린생활시설
 - 나, 종교시설
 - 다. 노유자시설
 - 라. 위락시설
 - 마, 업무시설
 - 바, 전시시설
 - 사. 관람집회시설
- 아,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 자동차관련시설
- 차. 발전소
- 카. 군사시설
- 타. 청소년시설

파. 방송 - 통신시설

※ 제 1 호 및 제 2 호외 규정에 의한 건축물외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별표9]

전용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제 65조 제 1 항 제 8 호 관련)

-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 가. 근린생활시설
 - 나, 근린공공시설
 - 다. 공장
 - 라. 창고시설
 - 마.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바. 자동차관련시설
 - 사, 분뇨 쓰레기처리시설
 - 아. 발전소
- 2.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 가, 운수시설
 - 나, 노유자시설
 - 다. 교육연구사설(기술계학원 및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에 한한다)
 - 라. 군사시설
 - 마, 기숙사(공장종업원용에 한한다)
 - 바, 의료시설
 - 사, 전시시설(산업전시장·박람회장에 한한 다)
 - 아. 방송 · 통신시설
- ※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와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별표 10]

일반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제 65조 제 1항 제 9호 관련)

-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 가. 근린생활시설
 - 나, 근린꽁꽁시설
 - 다. 공장
 - 라, 창고시설
 - 마,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바. 자동차관련시설
 - 사. 분뇨·쓰레기처리시설
 - 아, 발전소
- 2.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 가, 단독주택
 - 나, 기숙사
 - 다. 종교시설
 - 라. 교육연구시설(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기술계학원·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 및 직업훈련소에 한한다)
 - 마, 전기시설
 - 바, 운수시설
 - 사, 노유자시설
 - 아, 방송 통신시설
 - 자, 군사시설
 - 차, 교정시설
 - 카, 청소년시설
 - 타 동물관련시설
 - 파, 의료시설

※ 제 1호 및 제 2호의 규정에 외한 건축물외의 건 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별표 11]

준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제 65조 제 1항 제 10호 관련)

-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 가. 기숙사
 - 나, 근린생활시설
 - 다. 근린공공시설
 - 라. 창고시설
 - 마.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바. 자동차관련시설
 - 사, 분뇨 · 쓰레기처리시설
 - 아. 발전소
 - 자. 공장(당해 용도에 쓰여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5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 2.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 가. 단독주택
 - 나. 공동주택
 - 다. 종교시설
 - 라. 노유자시설
 - 마. 교육연구시설(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기술계하원·직업훈련소 및 도 서관에 한한다)
 - 바, 운동시설
 - 사, 업무시설
 - 이, 관람집회시설
 - 자. 판매시설(농·축·수산물판매시설에 한한 다)
 - 차, 전시시설
 - 카. 공장(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를 넘는 것에 한한다)
 - 타. 운수시설
 - 파. 방송 · 통신시설
 - 하. 군사시설
 - 거, 교정시설
 - 너, 청소년시설
 - 너, 동물관련시설
 - 러. 의료시설
 - 머, 묘지관련시설
 - 버, 장례식장
- ※ 제 1호 및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외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별표 12]

보전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제 65조 제 1항 제 11호 관련)

-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 가, 근린공공시설
 - 나. 교정시설
 - 다. 군사시설
- 2.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 가, 단독주택

- 나. 근린생활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 석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한 다)
- 다. 노유자시설
- 라. 교육연구시설(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 교에 한한다)
- 마, 종교시설
- 바, 전시시설
- 사. 창고시설(농업 · 축산업 · 수산업용에 한한다)
- 아. 식물관련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 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한 다)
- 자, 묘지관련시설
- 차, 장례식장
- 카. 청소년시설
- 타. 의료시설
- ※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외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별표 13]

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제 65조 제 1항 제 12호 관련)

-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 가, 근린공공시설
 - 나. 노유자시설
 - 다. 의료시설
 - 라, 운동시설
 - 마. 동물관련시설
 - 바. 식물관련시설
 - 사. 교정시설
 - 아 군사시설
 - 자, 청소년시설
- 차. 방송 · 통신시설 2.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 건축물의 종류 가, 단독주택
 - 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다. 근린생활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 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 다)
 - 라, 종교시설
 - 마. 전시시설(동물원 및 식물원과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재곱미터이하 의 박물관·미술관에 한한다)
 - 바. 교육연구시설(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농업 · 입업 · 축산업 · 수산업과 관련된 교육 시설 및 직업훈련소에 한한다)
 - 사, 공장(도정공장, 식품공장, 제1차산업생산 품의 가공공장 및 읍 · 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첩단산업공장에 한한다)
 - 아, 창고시설(농업·축산업·수산업에 한한 다)
 - 자. 자동차관련시설(중기 및 자동차계 학원에 하하다)
 - 차, 분뇨 · 쓰레기처리시설

- 카, 묘지관련시설
- 타. 상례식장
- 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판매취급소 에 한한다)
- 하. 판매시설(농·축·수산물 판매시설에 한 하다)
- ※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외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별표 14]

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제 65조 제 1 항 제 13호 관련)

-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 가. 근린공공사설
 - 나, 노유자시설
 - 다. 의료시설
 - 라. 교육연구시설
 - 마. 운동시설
 - 바, 동물관련시설
 - 사. 식물관련시설
 - 아, 묘지관련시설
 -
 - 자. 장례식장
 - 차, 판광휴게시설
 - 카. 교정시설
 - 타. 군사시설
 - 파. 청소년시설
 - 하. 방송 · 통신시설
 - 거, 분뇨 쓰레기처리시설
- 2.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 가. 단독주택
 - 나.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한한 다)
 - 다. 가숙사
 - 라. 근련생활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 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 다)
 - 마. 종교시설
 - 바, 숙박시설
 - 사, 관람집회시설
 - 아. 전시시설
 - 자. 공장(아파트형공장, 도정공장, 식품공장과 읍 · 면의 지역에서 건축하는 제재입의 공장 및 첨단산업공장에 한한다)
 - 차. 창고시설
 - 카.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타. 자동차관련시설
 - 파.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 장에 한한다)
 - 하, 발전소
- ※ 제 1호 및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외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별표15]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의 금액(제 121조 관련)

위반건축물	해당법조문 (건축법)	이행강제금의 금액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 하고 용도를 변경한 건축물	법 제14조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여
2.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	법 제 18조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3. 유지·편라상태가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 지 아니한 진축물	법 제26조 제1항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4. 도로에 돌출된 건축물	법 제34조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5. 건축선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법 제 37조	파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6. 구조내력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법제38조제1항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7. 피난시설·소화설비 및 통로의 기준이나 건축물의 용도·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화장실의 구조, 계단·거실의 반자높이·거살의 채광·환기와 바닥의 방습등이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법 제39조	과세시가표준액와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의 기준에 적합하시 아니한 건국들 8. 내회구조 및 방화벽이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법 제40조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9. 방화자구안의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법제41조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10.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진축재료 콜 사용한 건축물	법 제 42조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11.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부 마 감재료를 사용한 건축물		: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12. 지하층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지하 층을 설치한 건축물	법 제 44 조	과세사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규역
13.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 및 지구 안에서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위반하거나 공원·유원지 또는 그 예정지안의 건축물 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위반한 건축물 14.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법 제 45.준 범 제 50조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4. 건축선 및 인접내시경제선으로부터 되어야 할 거리를 띄지 아니한 건축물 15. 높이제한에 위반한 건축물	법 제 50조 법 제 51조	파세시가표군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16. 일조등의 확보쿌 위한 높이제한에 위반한 건축물 12. 건축서비의 서울 . 그곳에 따라 기즈과 그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고세시가프폰에의 100분의
17. 건축설비의 설치·구조에 관한 기준과 그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법령등의 기준에 위반한 건축물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18.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온돌을 설치한 건축물	법 제 56조 }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19. 비상급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 한 비상급수설비의 규모·기술기준이 법령 등의 기준에 위반한 건축물	범제 58조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0. 열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 자 아니한 건축물	법 제 59조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1. 도시설계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법제61조	과세사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22. 특정가구정비지구안의 건축물로서 법령동 ·도시계확 또는 건축물의 높이 · 규모 · 모 양 및 벽면의 위치에 관한 제한에 위반한 건축물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23.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외한 명령이나 처 분에 위반한 건축물	법제15조동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1992년 5월분 전국도서신고현황

종합평가

가. 전년동월비 전년도 5월분 1천3백16만4천7백

14m² 보다 10.24% (1백34만8천7 백15m²) 감소 한 1천1백81만5전9

백99m²의 실적을 보였다. 나, **전년동기비** 전년 5월누계 6천1백17만9백49m²

보다 19.76% (1천2백8만9천5백 91m²) 감소한 4천9백8만1천3백

58m²의 실적을 보였다.

다. 전월비 전월 4월분 8백73만3천m² 보다

30% (3백8만2천9백99m²) 증가 한 1천1백81만5천9백99m²의 실적을

보였다.

TATISTICS

全國 圖書申告 槪況(地域別 增減狀態)

(연면적 기준 - 전년동월비)

(단위/m²)

(6.6.4.4.4.6		ro F.	- 7 7			(44) 111)
구	Ė	로	1991년도	1992년도	증·감	비율(%)
	인	천	333,436	357,224	23,788	7.13%
증가지역	경	기	1,887,498	3,821,513	1,934,015	102.46%
 	전	뿍	370,353	433,265	62,912	16.99%
	전	남	280,646	495,565	214,919	76.58%
	제	주	103,466	143,256	39,790	38.46%
	서	울	3,541,130	1,689,944	(1,851,186)	-52.28%
감소지역	부	산	1,485,592	1,204,215	(281,377)	- 18.94%
	대	구	368,263	346,173	(22,090)	-6.00%
	광	주	581,547	298,985	(282,562)	- 48.59%
	대	전	705,253	597,835	(107,418)	- 15.23%
	강	원	341,332	214,581	(126,751)	-37.13%
İ	총	북	526,901	317,712	(209,189)	-39.70%
	충	남	491,905	490,278	(1,627)	-0.33%
	경	북	678,643	578,642	(100,001)	-14.74%
	경	남	1,468,749	826,811	(641,938)	- 43.71%
할	7	#	13,164,714	11,815,999	(1,348,715)	- 10.24%

全國 圖書申告 概況(用途別 增減狀態)

(언면적기준)

(단위 / m²)

(1111111111				(ゼカ / ル)
총 별	4월분	5월분	증 <i>·</i> 감	비율(%)
단 독 주 택	1,024,638	1,108,436	83,798	8.18%
다세대주택	226,369	269,430	43,061	19.02%
연립주택	76,677	147,497	70,820	92.36%
아 파 트	2,485,343	5,409,672	2,924,329	117.66%
근린생활시설	1,566,242	1,567,509	1,267	0.08%
종 교 시 설	80,557	121,350	40,793	50.64%
의 료 시 설	65,363	30,895	(34,468)	- 52.73%
교육연구시설	200,370	332,683	132,313	66.03%
업 무 시 설	764,895	685,447	(79,448)	- 10.39%
숙 박 시 설	58,676	81,625	22,949	39.11%
콩 장	1,222,467	857,229	(365,238)	-29.88%
기 타	961,403	1,204,226	242,823	25.26%
계	8,733,000	11,815,999	3,082,999	35.30%

市道別 全國 圖書申告 概況(5月分)

	구분	신	 축·개축·제	 대축	증		축	대수	·선 및 용도	 변경	합		계
시도별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통 수	연 면 적	건 수	통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서	울	3,805	3,878	1,573,791	131	143	116,153	0	0	0	3,936	4,021	1,689,944
부	산	1,251	1,491	1,136,640	159	215	33,246	58	64	34,329	1,468	1,770	1,204,215
대	구	574	618	296,124	331	376	30,896	44	47	19,153	949	1,041	346,173
인	천	403	559	336,779	47	47	14,464	29	29	5,981	479	635	357,224
광	주	258	305	25 9, 253	76	87	35,515	13	13	4,217	347	405	298,985
EH	전	361	423	527,162	57	57	22,005	105	1 12	48,668	523	592	597,835
경	기	1,721	2,662	3,655,141	213	241	106,261	88	88	60,111	2,022	2 ,99 1	3,821,513
강	원	635	711	180,324	106	125	28,559	23	23	5,698	764	859	214,581
충	મ	582	691	272,145	127	150	36,949	85	85	8,618	794	926	317,712
충	남	538	591	402,514	139	145	59,298	30	30	28,466	707	766	490,278
전	북	504	569	376,073	105	122	40,998	20	20	16,194	629	711	433,265
전	남	515	684	452,538	120	172	38,762	26	29	4,265	661	885	495,565
경	북	897	1,077	436,580	218	260	119,638	31	32	22,424	1,146	1,369	578,642
경	남	1,139	1,359	721,740	219	301	81,730	43	45	23,341	1,401	1,705	826,811
제	주	250	286	136,716	81	81	6,540	0	0	0	331	367	143,256
합	계	13,433	15,904	10,763,520	2,129	2,522	771,014	595	617	281,465	16,157	19,043	11,815,999

市道別 全國 圖書申告 概況(1~5月 合計分)

	구분	신	축ㆍ개축ㆍ제	대축 -	증		축	대수	선 및 용도	변경	활	-	계
시도별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둉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통 수	연 면 적
서	울	10,551	10,942	5,786,533	495	533	296,463	1	1	0	11,047	11,476	6,082,996
부	산	5,837	7,213	4,596,343	725	925	255,376	249	277	150,081	6,811	8,415	5,001,800
CH	구	2,280	2,519	1,622,577	1,171	1,281	137,914	205	214	108,226	3,656	4,014	1,868,717
인	천	1,847	2,573	2,128,920	148	153	112,597	119	122	51,330	2,114	2,848	2,292,847
광	주	1,312	1,536	1,115,612	309	357	103,506	63	63	18,159	1,684	1,956	1,237,277
CH	전	1,421	1,737	2,199,195	206	221	116,600	355	374	150,118	1,982	2,332	2,465,913
경	7	7,887	11,086	12,330,874	887	1,030	391,440	462	462	318,882	9,236	12,578	13,041,196
강	원	2,638	3,148	1,911,316	465	556	205,546	102	105	23,707	3,205	3,809	2,140,569
충	북	2,734	3,284	1,238,889	576	740	197,355	340	353	38,861	3,650	4,377	1,475,105
충	먀	2,262	2,427	1,650,104	572	585	191,152	108	127	81,262	2,942	3,139	1,922,518
전	북	1,974	2,290	1,665,711	389	451	131,406	120	120	47,699	2,483	2,861	1,844,816
전	計	2,527	3,075	1,336,997	592	788	229,371	107	115	25,733	3,226	3,978	1,592,101
경	북	3,683	4,413	2,678,686	838	999	417,485	152	147	164,994	4,673	5,559	3,261,165
경	吓	5,128	6,333	3,858,396	862	1,244	365, 187	200	205	113,982	6,190	7,782	4,337,565
제	주	976	1,163	488,695	374	374	28,078	0	0	0	1,350	1,537	516,773
합	계	53,057	63,73 9	44,608,848	8,609	10,237	3,179,476	2,583	2,685	1,293,034	64,249	76,661	49,081,3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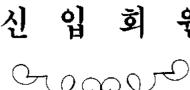
用途別 全國 圖書申告 槪況(5月分)

구분		신축ㆍ개최	·재출	Ē		증			축		대수	선 및 용도	변경	합		계
용도별	건 -	- 동	수 8	연 면 적	건	수	통	수	연면적	건	수	똥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단 독 주 택	6,65	5 6,8	47	1,052,119	6	572		710	50,986		63	63	5,331	7,390	7,620	1,108,436
다세대주택	46	1 !	57	263,925		31		31	5,061		3	3	444	495	591	269,430
연 립 주 택	ε	9	15	146,390		4		4	1,107		0	0	0	73	119	147,497
아 파 트	. 19	6 1,2	86	5,383,218		16		30	11,708		5	10	14,746	217	1,326	5,409,672
근린생활시설	3,95	0 4,0	191	1,376,772	5	37		583	98,115		306	310	92,622	4 , 7 9 3	4,984	1,567,509
종 교 시 설	9	2	10	74,803		60		65	40,532		10	10	6,015	162	185	121,350
의 료 시 설	. 1	1	13	18,431		13		13	7,130		4	4	5,334	28	30	30,895
교육연구시설	ϵ	6	75	198,066		59		74	105,771		29	32	28,846	154	181	332,683
업 무 시 설	11	8	34	596,167		62		64	59,550		30	31	29,730	210	229	685,447
숙 박 시 설	3	4	35	56,837		13		15	21,165		10	10	3,623	57	60	81,625
공 징	50	8 8	376	589,616	2	286		471	226,267		46	48	41,346	840	1,395	857,229
기 티	1,27	3 1,7	65	1,007,176	3	376		462	143,622		89	96	53,428	1,738	2,323	1,204,226
합 겨	13,43	3 15.9	04 10	0,763,520	2,1	29	2	,522	771,014		595	617	281,465	16,157	19,043	11,815,999

用途別 全國 圖書申告 槪況(1~5月 合計分)

구분	션	축 · 개축 · 2	 대축	증		 축	대수	-선 및 용도 [*]	 변경	 함		계
용도별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통 수	연 면 적	건 수	통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작
단 독 주 택	24,950	26,328	4,221,030	2,994	3,201	234,823	257	260	23,604	28,201	29,789	4,479,457
다세대주택	1,860	2,351	955,068	111	113	11,864	16	17	2,667	1,987	2,481	969,599
연립주택	247	366	523,280	17	17	4,237	3	3	369	267	386	527,886
아 파 트	842	5,081	22,743,735	53	97	81,435	19	25	33,474	914	5,203	22,858,644
근린생활시설	16,705	17,507	6,057,537	2,205	2,339	425,220	1,312	1,329	439,627	20,222	21,175	6,922,384
종 교 시 설	341	409	261,485	221	248	95,881	32	32	13,352	594	689	370,718
의 료 시 설	29	31	92,218	38	47	84,392	12	12	9,557	79	90	186,167
교육연구시설	253	339	741,397	210	263	371,309	140	154	119,506	603	756	1,232,212
업 무 시 설	519	568	2,259,652	219	244	192,401	109	112	128,360	847	924	2,580,413
숙 박 시 설	100	106	192,331	53	59	36,820	47	49	89,450	200	214	318,601
공 장	2,157	3,701	3,241,735	1,053	1,773	954,887	268	307	211,560	3,478	5,781	4,408,182
기 타	5,054	6,952	3,319,380	1,435	1,836	686,207	368	385	221,508	6,857	9,173	4,227,095
합 계	53,057	63,739	44,608,848	8,609	10,237	3,179,476	2,583	2,685	1,293,034	64,249	76,661	49,081,358







嚴洪福(59年) 영남대 건축공 도시건축 (종합) 대구 수성 범이 1-7 751 - 0721



孫允洛(60年) 영남대 건축 우진건축 (종합) 대구시 중구 동인 289-1 426 - 1602, 424 - 2396



金註植(58年) 건북대 건축 가원건축 전주 완산 고사 1 - 13 253 - 0413



朴基烈(57年) 동아대 건축 현대아트 건축 강원 강릉 포남 1179 41 - 0091



崔孝淑(56年) 인덕공전 건축 도인건축 서울 성동 구의 243-51 458 - 4181



金鍾一(59年) 계명대 건축 시원건축 경남 진해 중앙 8-1 $545 - 4025 \sim 6$



成宰慶(58年) 부산대 건축공 한길・창우・구상건축 (종합) 부산 부산진 부전 406-68 804 - 7292



李南學(57年) 연세대 건축 우미건축 서울 서초 잠원 9-6 517 = 2074



金興洙(60年) 경상대 건축 조형건축 (종합) 부산 동구 초량 1194-2 $469 = 8471 \sim 2$



朴燦政(59年) 부산대 건축 삼동·신동호·예원건축(종합) 부산 금정 부곡 22-1 517 - 1544



朱景浩(59年) 부산대 건축공 (주) 동방엔지니어링 (종합) 부산 부산진 부전 168-451 817 = 3931



朴永基(62年) 경상대 건축공 조형건축 (종합) 부산 동구 초량 1194-2 $469 = 8471 \sim 2$



趙正來(63年) 동아대 건축공, 同대학원 (주)태평양엔지니어링(종합) 부산 동구 초량 1213-17 463 - 8000



李光培(51年) 서울대 건축, 同대학원 인우건축 (종합) 서울 강남 청담 76-6 543 - 4119



金喜坤(59年) 계명대 건축 대웅건축 경북 김천 황금 2-11 32 - 6688



崔陽東(59年) 부산대 건축 동서건축 부산 동구 초량 1163-10 463 - 9845



鄭鈗太(61年) 조선대학원 건축 미래건축 광주 북구 우산 554 - 36 527 - 7107



李鍾珉(60年) 경기대 건축 (주) 진화건축 경기 부천 도당 5-2 678 - 3997



鄭世暎(61年) 연세대 건축공 정세영건축 충북 충주 문화 1584 $851 - 1587 \sim 8$



金正謙(60年) 한사실전 건축 구일건축 경북 구미 송정 461 - 3 455 = 9180, 9190



河琴鉉(58年) 강원대 건축 산건축 강원 춘천 중앙 1 $56 - 2994 \sim 6$



李虎聲(63年) 충북대 건축공 공간 · 구성건축 (종합) 충북 청주 봉명 1052 62 - 7859



張錫南(58年) 원광대 건축공 동진환경건축 (종합) 서울 서초 양재 275-6 589 - 1850



朴池夏(60年) 성균관대 건축공 원정건축 (종합) 서울 용산 한남 605 798 = 6066



金貞浩(61年) 부산대 건축공, 同대학원 금립건축 부산 부산진 부전 404-3 806 - 0584~5



安孟俊(62年) 부산공대 건축 일안건축 부산 사하 당리 429-3 204 - 4972



河鳳秀(58年) 한양대 건축 민 우건축 (종합) 서울 강남 논현 241-8 547 - 0151



李泰震(60年) 부산대 건축공 시공인·씨알·사문건축(종합) 부산 동구 초량 46 - 11 463 - 7368



金性樂(58年) 부산공대 건축 연제·초석·신재건축 (종합) 부산 동래 명륜 326-2 555 - 6671



朴明圭(58年) 서울시립대 건축공 성진·환경·예장·명우(종합) 서울 서대문 연회 133-1 337 - 7957



金承翼(58年) 부산대 진축공 시공인·씨알·시문건축(종합) 부산 동구 초량 46−11 467 − 5391



李宗翰(58年) 부산대 건축 청건건축 부산 동구 초량 1204~15 469 ~ 2775



吳鍾一(62年) 국민대 건축 범한건축 (종합) 서울 중구 총무로 19-9 279 - 8151



姜相燮(60年) 부산대 건축 항도건축 (종합) 부산 중구 대창 1가 23 469 - 9757



安賢浩(59年) 서울대 건축, 同대학원 거일건축 부산 남구 남천 358-6 628 - 7111



李學明(59年) 연세대 건축공 전건축 (종합) 서울 강남 역삼 769-9 566 - 1906, 1909



洪秉台(59年) 부산대 건축 거일건축 부산 남구 남천 358-6 628 - 7112



朴喆水(61年) 인하대 건축, 同대학원 상자건축 (종합) 부산 중구 남포 5가 92 247 - 0208



鄭榮朝(60年) 동아대 건축공 광장건축 경남 진주 본성 2-7 746 - 9063



朴炯奎(55年) 동의공고 건축 삼송건축 부산 동래 안락 751-7 525 - 7555



李誠均(60年) 충남대 건축 동인건축 대전 중구 대흥 1동 249-2 254 - 7269



孫成大(58年) 부산동고 건축 도심·모아·세종건축(종합) 부산 급정 부곡 64-33 514 - 3957~8



姜 勳(63年) 부산대 건축 중원건축 (종합) 부산 동구 초량 1동 1205 - 1 469 - 5880



崔 珍(56年) 대전공전 건축 탑 건축 (종합) 대진 대덕 오정 486-11 632 - 0886



南基基(56年) 동의공전 건축 도심·모아·세종건축(종합) 부산 금정 부곡 64 - 33 516 - 5961 ~ 2



宋基春(56年) 유한공고 건축 居美건축 경기 부천 중구 원미 88-1 664 - 3731





金台原(63年) 부산대 건축공 금립건축 부산 무산진 무전 404 = 3 806 = 0584 ~ 5



金興栢(47年) 한양대 건축 (주) 우전건축 (종합) 서울 강남 역삼 799-5 563 - 2527



李根泳(58年) 영남대 건축 정우건축 (종합) 대구 남구 대명 5동 30-5 624 - 1550

建築許可規制 緩和建議・貫徹

본 협회는 지난 '90년 5월 이후 10차에 걸쳐 계속되고 있는 건축하가 규제조치의 장기화에 따른 회원의 기중되는 피해는 물론, 이로 인한 국민경제 전반에 파급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경제안정과 건전한 건축활동을 조성하기 위해, 본 사안에 대한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趙相鎬 理事)구성과 실무작업반(지휘 朴景煥 상근부회장)을 운영하여 우리나라 경제현상을 보다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자료를 토대로하여 조직적이고 체계화한 현실적인 접근 방법으로 개선안을 마련, 적극적으로 정부, 여당에 건의한 결과, 본 협회 의견이 100% 수용・반영되어 7월 1일부터 규제조치의 일부해제의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본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별대책반

위원장 趙 相 鎬 本協會理事

위 원 李文雨 서울建築士會會長
ハ 李一潤 경기建築士會會長
ハ 成 勳 燮 부산建築士會會長
ハ 徐廷 珉 광子建築士會會長

실무작업반 朴景煥 본협회 상근부화장

金 海 銓 본협회 건축법령연구소장

鄭 明 秀 기술과장李 默 총무과장

※ 특별자문: 國土開發研究院

건의서

건설경기의 과열로 건설자재가격 및 노임의 급통현상이 나타나는 등 우리 국민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초대하게 됨에 따라 정부가 건축 허가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데 대하여 우리 전국 3천8백여 건축사 일동은 현 경제 여건하에서는 바람직한 조치였다고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와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경제안정과 바람직한 건축행정을 동시에 기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면서 아래와 같이 건의드리오니 이에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 제한조치 현황

1. 기간 : 1990. 5. 15 - 1992. 6. 30(10차)

2. 대상 : 재건축주택, 근린생활시설, 판매사설, 위락 및 숙박시설, 업

무시설, 관광·집회·전사시설 등 전반.

※ 주택건설물량할당제 실시. (실질적 허가제한 효과)

문제점

1 사회적인 측면에서

- 가, 건축시사무소의 경영난 악화.
- -, 건축사사무소의 업무량 격감.

('91, 1/4분기 대비 '92, 1/4분기 건축물 설계도서신고 연면적 23% 감소)

1991. 1 /4 분기		1992. 1 /4 분기
37,219,358m²	7	28,532,359m²

- ※ 건축하가제한 직전 건축경기 활황시 신규 개업한 건축사사무소의 타격이 큰 실정임,
 - '90. 1 ~ 5월중 개업 건축사 수: 153명
 - 건축사사무소 종사자 및 가족생계위협 : 약 27만명 추정.
 - 건축사사무소 종사자 현황

		사무소형태별				
구 분	계	단독	종 합	용역		
계	53,886	10,806	42,840	240		
건축사	3,856	1,801	2,040	15		
건축사사무소 종사자	50,030	9,005	40,800	225		

※ 건축사사무소 종사자 및 가족 : 269,430명 추정 (53,886 × 5인 가족)

- 나. 건축관련업체의 경영난 심화.
- 공영택지 매입대금 납부, 건축허가제한으로 인한 분양시기 지역으로 자금난 악화.
- 중소영세업자의 업무량 격감으로 경영난 심화.
- 다.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적시 적소공급이 제한됨에 따라 국민 복지정책에 역행하는 결과 초래,
- ○'91년 1 / 4분기 대비 '92년 1 / 4분기 건축물설계도서신고 연면 적 증감비교

용도별	'91년 1 / 4분기	'92년 1 /4분기	중 감 비 율
단독주택	4,282,262m²	2,346,383m²	- 45%
다세대주택	2,688,544m²	473,800m²	- 82%
연립주택	696,551 m ²	303,712m²	- 56%
근린생활시설	6,599,385m ²	3,788,633m²	- 43%

2. 경제적인 측면에서

- 가, 주택가격 및 임대료의 재상승 우려.
- 일반 주거용 건축하가의 급격한 감소→수요·공급의 불균형 초래.

주택가격 하락국면에서 상승국면으로의 전환 우려.

- 나. 건설자재수급의 불균형 심화.
- 건설자재산업의 건설경기에 대한 적응력 미흡.
- 건설경기 활황 → 자재부족현상(자재파동)
- 건설경기 문화 → 자재의 재고급증, 결과적으로

★일부 자재생산업체의 도산

★ 자재생산시설 중설계획 연기

'94년경으로 예측되는 건설경기 회복시 자재폭등의 재연 우려.

건의

국가 시책을 수용하면서, 이상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원활한 민간 건축계획을 도모하며 소규모 건축사사무소의 경영악화 현상을 조금이나마 완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우선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

계에 있는 건축물 중 전체 국민경제에 큰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대에서 단계적인 완화조치를 건의합니다.

1. 다세대, 다가구추택, 연립주택(재건축분 포함)

다세대, 다가구, 연립에 대한 허가 제한이 없었을 경우를 가상한 '91년도 주거용 건축사 업무량 (연면적 최대추정)

81,523,185 m²



허가 계한으로 인한 '91년도 주거용 실제 건축사 업무량

78,790,741 m²

감소면적	2,732,444 m²
감 소 율	4.99%
'91 총건축사 업무량대비감소율	2%
'91 총건축사 업무랑	136,297,607m²

- ※ '92년도 건축동향은 건설경기의 침체, 허가규제의 계속으로 인하여 '91년도와 비교 건축사 업무량이 동일 또는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다세대, 다가구, 연립(재건축포함)에 대한 허가제한을 해제할 경우라도 '91년도의 감소치 이상으로 증가될 우려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주거용 건축허가등 주택공급은 주택가격보다 1년~1년반정도 늦은 시차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자료로 미루 어 보아 '91년 하반기 이후 주택가격 하락추세의 영향은 '92년 하 반기 또는 '93년 상반기부터 건축허가제한조치가 없더라도 주거 용 건축허가는 점차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92년 하반기 부터 인위적인 규제는 점차 해제하기 시작하여 '93년 이후에는 대 부분의 규제를 해제하는 정책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됨.

연도별 주택가격 및 주거용 건축허가추제

년도	주택가격('90. 1 2월 = 100)	주거용건축허가 (천 m²)
1981	47.5 (-)	10,308 (\$\psi 30.1)
1982	48.4 (2.0)	16,651 (61.5)
1983	59.0 († 21.8)	21,706 (30.4)
1984	61.0 (3.5)	20,551 (↑ 5.3)
1985	60.7 († 0.5)	20,606 (0,3)
1986	59.0 (↑ 2.8)	22,518 (9.3)
1987	62.6 (6.1)	21,639 (↑ 3.9)
1988	71.2 (13.8)	29.136 (34.6)
1989	81.3 (14.2)	47,509 (63,1)
1990	100.0 (23.0)	70.928 (49.3)
1991	98.1 (↑ 2.0)	59.060 (↑ 16.7)
1992	86.9 (↑ 1.3)	46,607 (↑21.1)

- ★ ()속은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 ★ 주택가격은 연도발 기준.
- ★ '92년도 자료는 국토개발연구원 추정치임.

2. 근린생활시설

- 660m² 이상의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제한한 결과 근 린생활시설에 대한 건축사업무가 약 2.58% 정도만이 감소 되었 을 뿐이며, 그 면적은 2,234,581m² 정도로 이는 총 건축사 업무 대비 1.6%의 감소에 불과한 것임.
- ※ 건축하가규제도 일반적인 경제정책운용과 마찬가지로 경제상황에 따라 신축성있게 운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다음의 건 축물에 대하여는 착공시기를 정하여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 요망.
 ※ 업무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과 기타 관람, 전시, 관광휴게시설.

이상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근린생활시설은 건축허가제한 대상 건축물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중요도에서 앞서고, 규제를 해제했을 경우 예상되는 증가면적 또한 총 건축허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불과 약 3.6% 정도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의 건설경기가 침체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적을 것으로 판단되어 건의드리오니 이에 대한 건축허가제한 조치를 조속히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 6월 일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오운동외 전국 3천8백여회원 일동

* 지면관계상 참고자료는 생략함.

協會消息

이사회 개최

'92년도 제 5회 이사회가 오운 동 회장의 주재로 지난 27일 (토) 10시 본 협회 회의실에 서 개최되어 협회 주요현안과 부의안건을 처리하였다. 이날 처리된 부의안건의 주요 처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993년도 예산편성위원회 위원 선임
- 1993년도 예산 편성위원회 는 위원장 조상호, 부위원 장 김무언, 위원 이외구, 강 대석, 김영수 이사를 선임 키로 하며, 각 시 · 도건축 사회별 위원선임은 각 시ㆍ 도건축사회 회장에게 위임 하되 가급적 새로운 위원을 선임해주도록 요청키로 함.
- 윤리 규약상의 덤팡기준 결정
- 설계공사, 감리업무에 따른 보수액 결정은 정부예산편 성 지침서상의 공사비 단가 를 적용키로 함.
- 경북건축사회 영천분회 신 설 승인

- 원안대로 증인
- 직원 정원조정(안) 승인
- 원안대로 승인(대전건축사 회)
- 건축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감라제도 및 조사, 검사 대행 업무 수행지침건의(안) 증인
- 조사, 검사 영역의 설계와 감리 분리 시행건은 향후 1 년간은 종전 규정과 같이 2 충이하로서 1.000m²미만 에 대한 모든 건축의 설계, 감리를 분리 시행하고, 엄 격한 감리제도(건축사법시 행령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 6.25)에 따른 성과를 평 가하여 4층이하로서 2,000 m²미만인 모든 건축물(아 파트 제외)로 확대 여부 결 정토록 건의키로 결의함.
- 직원 인사발령(안) 증인
- 조병은 총무부장을 사무처 장 직무대리로 임명하는 등 사무처 직원 약간명을 인사 발렁키로 결의함.





서울 · 동경건축사회 교류 각서 조인

서울건축사회(회장 이문 우)는 지난 6월 9일 본협화 대 회의실에서 동경건축사회(회 장 淸家 淸)와 양국 건축사 상 호간의 이해 및 우의 중진과 상호 기술 교류 및 정보 짜료 교환 등을 목적으로 「서울・ 동경건축사회 교류 각시 조 인 |식을 가졌다. |

이날 조인식에서 양 건축사 [

회는 가술 교류 및 간행물 등 정보 자료의 교환, 외국의 제 도, 시책 및 기타 자료의 교환, 학술 발표회 또는 전시회 등의 상호 참여 및 공동 개최 등 실 절적인 교류 협력 추진을 위한 사항등의 내용을 포함한 각서 를 조인 함으로서 상호 교류의 교두보를 마련하게 되었다.

경로 소연 개최

경기도 건축사회(회장 이일 유)에서는 지난 6월 18 · 19일 양일간에 걸쳐 충남 예산군 소 재 수덕사에서 웃어론을 공경 하는 기풍을 조성하여 경로 효 친 사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 해 경기건축사회 소속 65세 이 상원로회원 32명을 초청하여 경로 소연을 베풀었다.

건축허가 제한조치의 해제에 대한 건의

본 협회는 지난 6월 4일 '90 년 5월 이후 10차에 걸친 건축 허가 제한조치로 인한 회원들 의 어려움이 다소나마 완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본사안에대 한 특별 대책반을 운영하여 이 의 해제를 위한 건의서를 관계 기관에 제출하고, 이를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활발한 접촉 을 벌였다.

청와대, 경제기획원, 건설 부, 민자당 등에 제출한 이 건 의서에서는 근린생활시설, 다 세대, 다가구(재건축분 포함) 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조치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위락, 숙박, 휴게, 관람, 전시 시설에 대한 착공시기지정 허 가방안의 검토를 요청하였다.

한편, 정부는 저난 6월 19일 자로 오는 7월 1일부터 연면적 1천 5백m² 미만의 근린생활시 설과 가구당 전용면적 135m². 미만의 재건축 다세대, 다가구 주택, 재건축 및 재개발 아파 트, 관광호텔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조치를 해제하였다.

임인혁 전사무처장 퇴직

'74년 2월 24일부터 '92년 6 월 5일까지 약 18년간 본협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 임인혁 전 사무처장이 지난 6월 5일자로

의원 사직하고, 6월 8일 정안 종합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본 협회 회원으로 입회하였다.

메가테크아시아 대표 내방

세계적으로 건축설계프로 1 그램 분야에 권위가 있는 목 일 매가테크사 아시아 지역 대표인 요한 토스씨가 지난 2 일 새로 개발된 프로그램을 | 개발에 관한 협회가 있었다.

소개차 본 협회 吳雲東 회장 을 내방하였다. 이 자리에는 건축전산위원화 안영준이사 가 함께 배석하여 건축전산

'92 한국건축전 광주전시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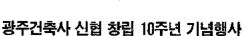
'92한국건축전 광주전시회 가 지난 6월 17일부터 5일간 남도예술회관 전시실에서 개 최되어 지역 건축계의 높은 관 심을 불러 일으켰다.

본협회가 주최하고 광주건 축사회(회장 서정민)가 주관 한 여번 전시회에는 전국의회원 작품 60여점을 비롯하여 신인 · 햑쟁 수상작 등 총 90여점이 진시되어 건축관계 전문인뿐 아니라 각급학교 건축전공 학 생 등 연인원 2천 5백여명의 │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관람객이 찾아와 성황을 이루 었다.

광주지역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개최된 이번 광주전시회 의 17일 개막식에는 본 협회 오운동 회장을 비롯한 협회 관 계자와 광주작할시의회 산업 분과 위원장을 위시한 각계 지 도급 인사 2백여명이 참석하 여 성황을 이루었다.

한편 KBS, MBC TV를 통 한 보도를 바롯한 지역언론의



광주 건축사회(회장 서정 민)에서는 지난 26일 고창 선 운사에서 회원 상호간의 친목 과 우의를 돈독히 함으로써 본 회 및 신협 발전을 도모코자 광주건축사 신협 창립 10주년 기념행시를 개최하였다.

광주지역의 회원 94명이 참 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기념

행사에서는 신협 발전을 위하 여 노력하신 송양석(한미 건 축사 사무소) 회원을 비롯한 5 명의 회원에 대한 공로패 및 상품수여를 하는 한편,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레 크레이션을 개최하고 참석회 원 전원에게 기념품을 증정하 기도 하였다.





'92 건축사 보수교육 실시

본 협회에서는 지난 6월 5 일 본 협회 대강당에서 서울판 내의 건축사 463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을 필두로 하여 전 국 사 · 도 건축사회 회원을 대 상으로 '92 건축사 보수교육을 실시하였다.

한편, 이번 보수교육에 앞서 우리나라 건축 풍토 쇄신을 통 한 국민 편익 증진과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정부 시책에 적극 동참하고, 일부 건축사 업무에서 일어나는 부 조리 척결의 일환으로 건축사 업무쇄신 다짐대회를 병행 개 최하였다.

각 시 · 도 건축사회 별로 실시된 이번 교육의 일정 및 참석인원은 다음과 같다.

기별	일 정	참가건축사회		대상	51 0.71 4 1	50.714	비고
		구분	인원	인원	교육진행 	교육장소	(교육협조)
1	1992. 6. 5 (급)	서울	670	463	본협회	본협회 대강당	건축사업무 쇄신 다 검대회 병 행
2	1992. 6. 8 (월) ~6. 9 (화)	인천 경기 제주	108 321 41	471	본협회	본협회 대강당	경기도
3	1992. 6. 11 (목) ~6. 12 (금)	서을 강원	319 55	465	본협회	본협회 대강당	서울시
4	1992. 6. 15 (월) ~ 6. 16 (화)	대전 충북 충남	113 78 58	247	대전 건축사회	대전 카톨릭 문화회관	대전시
5	1992. 6. 18 (목) ~6. 19 (금)	광주 전북 전남	125 80 49	254	광주 건축사회	광주 어린이 대공원 대강당	광주시
6	1992. 6. 22 (월) ~ 6. 23 (화)	대구 경북	258 96	354	배구 건축사회	대구 시민화관 소강당	대구시
7	1992. 6. 29 (월) ~6. 30 (화)	보산 경남	426 20 4	629	부산 건축사회	경성대학 강당	부산 지
8	1992. 7. 2(목) ~7. 3(雷)	서울	372	463	. 본협회	본협회 대강당	서울시
9	1992, 7, 6 (월) ~ 7, 7 (화)	서울	414	463	본협회	본협회 대강당	서울시
	계	15개건축사회		3,809			



손명문 회원 개인 건축전 개최



본협회 경복건축사회 손명 문(건축사사무소 건ㆍ환)회 원의 개인 건축전이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7일까지 자신의 사무소인 경주 건 • 환사옥 전 시장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전시회는 경주를 비롯 한 주변 지방의 문화행사적 이 슈가 되었을 정도로 많은 호응 과 갈채를 받았으며, 작가 자 신의 평소 작품과 계획안들이 패널과 모형으로 구성되어졌 다.

이 전시회에는 건축인은 물 론 김태웅 경북건축사회 회장, 손경호 경상북도의회 의장, 이 동천 경주시의회 외장 및 시내 주요 기관장들을 비롯하여 학 생으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 지 각계 각층에서 다양하게 참 식하여 성황리에 마쳤다.

손명문 회원의 이번 건축전 은 몇가지 이유에서 크고 작은 현실적 의미를 갖는다. 첫째는 공식적인 건축가의 개인 건축 전이 풍성치 못한 우리의 건축 계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전시 회를 열었다는 그 자체만으로 도 하나의 의미있는 성과라는 점이며, 둘째는 국내 건축가들 보다는 외국건축가들의 국내 전시회가 더 의미있고 가치있 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일종의 작은 대응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며, 셋째는 서울이 아닌 천년고도의 역사 도시인 경주에서 열렸다는 점 인 바, 이는 경주라는 역사적 지역적 주제에 대한 하나의 암 중모색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의 건축가의 사회적 역할을 제 시하고 있다는 점이며, 넷째는 이번 전시회가 경주를 비롯한 주변 지방의 건축문화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끌어올리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점이 며, 다섯째는 이제 30대 후반 에 이른 도상 건축가의 조심스 런 자기선언이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건축가의 전시회는 자기 자 신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작업 이며,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을 대중 앞에서 발가벗기는 무대 이기에 상당한 용기를 필요로 한다. 지금까지 한국 현대 건 축가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 는 작업에 인색했다.

이러한 건축가의 전시회야 발로 건축계의 내용을 풍부하 게 하고 논쟁을 야기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을 것이기에 오늘의 우리 입장에 서 가장 관심을 쏟아야 할 '건 수'이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정정합니다.

되었던 이용재씨의 "21세기 건축 올 향하여"의 내용중 64, 65 페이 │ 에 정정합니다.

지난 6월호 "건축사"지에 게재 │ 차와 66, 67 페이지의 순서가 제 작상의 착오로 연하여 바뀌었기

제1회 韓國建築文化 大賞 作品公募

서울경제신문사와 건설부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건축사협 회 • 대한건설협회 • 한국주택 사업협회 · 한국중소주택사업 자협회 등 유관 4개단체가 후 원하는 제 1회「한국건축문화 대상 |의 작품응모가 8월 30일 까지 계속됩니다.

「한국건축문화 대상」은 우 리 고유의 건축문화 창달과 쾌 적한 생활공간 조성을 목표로 제정된 건축문화 분야에 관한 국내 유일의 시상제도로서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인간」 이 중시된 건축물」을 빚어낸 설계자 • 시공자 • 건축주를 발 굴, 시상함으로써 건축을 문화 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견 인차 역할을 한 주인공들을 격 려코자 합니다.

「한국건축문화 대상」은 누 구나가 참여할 수 있는 전국민 의 시상제도로 자리잡기 위해 작품 제출 서류를 크게 간소화 하는 대신 국내 최초로 현장심 사제도를 도입한 것이 특징입 니다.

찬란한 우리 고유의 건축문 화를 이어 받아 민족이 살아 숨쉼 수 있는 건축공간을 창조 해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은 우 리시대의 역사적 책무이자 사 명이기도 합니다. 또 경제성장 에 발맞춰 건축이 문화의 차원 으로 올라서 실제 삶의 공간을 풍요롭게 가꾸어 줄 때 우리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 게 될 것입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 응모요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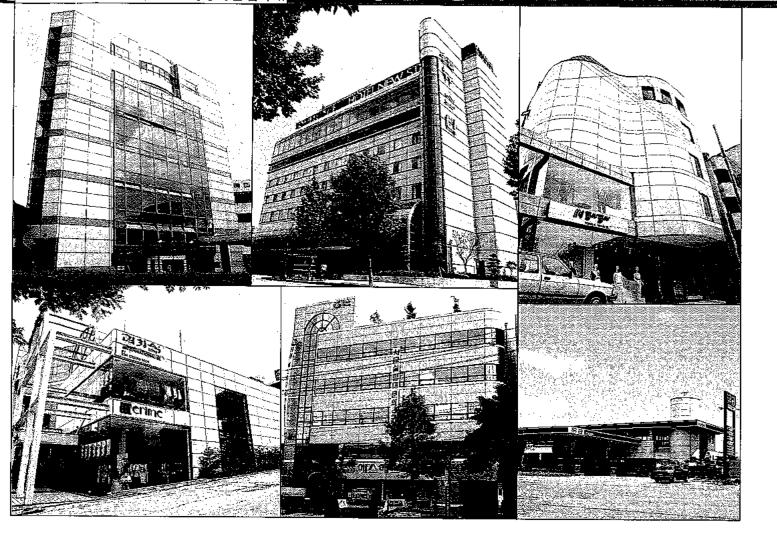
- 當의 종류
- 大賞 1점(천건축물 대상)
- 本賞4점(주거용·非주거용 각 2점)
- 공로상(건축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 입선작 다수
- 시상시기: 10월초(연1회)
- 시상대상 : 시행연도 및 전년 도에 준공 또는 준공예정인건축물
- 응모기간:6월10일~8월30일
- 응모자격 : 설계자, 시공자 또 는 건축주
- 제출서류
- 작품설명서와 기본설계도면 이 포함된 B₄ 규격(25.6 × 36 cm)의 작품사진첩(8 × 10인치 사진 10장내외) 2부
- · 작품의 설계자 · 시공자 · 건 축주 간이소개서 2부
- 패널은 입선작에 한해 추후제 출 통보(제작비 일부 지원예정)

- 접수 및 문의처
- · 우편빈호 110 792 서울 종로구 중학동 19 서울경 제신문사 편집국사회부
- $(\mathbf{m} 724 2457 \sim 8)$
- 본협회 출판사업부
- $(2581 5711 \sim 4)$
- 제출방법 : 접수처에 직접 또 는 우송 제출
- 심사 : 관계전문가 및 사회각 분야 저명인사들로 심사위원회 구성, 1차 서류심사후 현장방문 심사.
- 시상내용
- · 본상이상 설계자 · 시공자 및 공로상수상자 - 상폐수여 및 해 외시찰(중국 예정)
- 건축주 상패 및 동판(건축 물부착용)수여
- · 임선작 설계자·시공자-상패
- 시심자 : 건설부장관 · 서울 경 제신문사장 및 후원 4개 단체장
- ◆ 특전 : 전응모작 보도홍보 및 | 상설전시

주최: 서울경제신문사 · 건설부

후원:대한건축사협회·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사업협회 · 한국중소주택사업자협회



아름다운 도시환경의 장조

우리 기술로, 우리가 만든 건축 내·외장재의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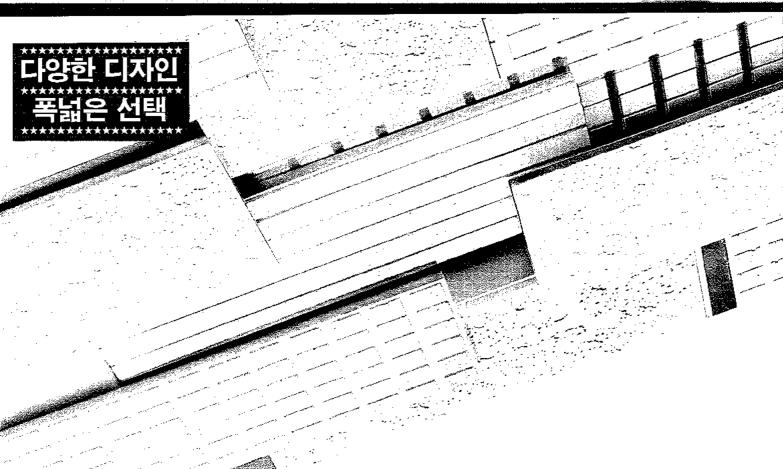
알미늄판, 이연도철판, 동찰판 등 각종 금속판 $(0.1 mm \sim 0.5 mm)$ 을 양면으로 하고 코어부의 일정 두깨를 강력한 접착력과 보강력이 있는 기열경화성 합성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 도성국에 AC / 대표성관성 답장T가를 구성포프로 입 혼합물로 항성하여 중으로써 금속함판 진체의 보강은 율론 단열, 방진, 방음 및 처음의 효과를 낼 수 있고 변질이 되지 않는 특수 금속함판의 건축재입니다.



■ 서울사무소 : 서울·강남구 대처동 1007-3 총회회관 1층 TEL.(02) 562-1264, 568-3474~6, FAX.(02) 566-0856

■본사 및 공장 : 경기도 이천군 내월면 사동리 산78-2 TEL. (0336) 34-5119, 32-1903~4, FAX. (0336) 34-9316





고급 천정만-급강마()톤

품질과 디자인에서 앞서갑니다.



초고층, 대형화, 고급화 되어가는 현대건축 천정재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고급 천정판 금강 마이톤— 암면을 주원료로 만들어 흡음력이 뛰어나며 가볍고 불에 타지 않습니다. 디자인이 다양한 금강 마이톤은 실내분위기를 더욱 우아하게 연출합니다.

- 흡음력이 뛰어납니다.
- 디자인이 다양합니다.
- •불에 타지 않고 단열성능이 좋습니다.
- 가볍고 시공, 보수가 간편합니다.





조차 금 김
Keumkang Limited

■ 본사ㆍ서울 543-2101 ●부산 512-3211~5 ●대구 252-4321~4 ●대전 284-4934~6 ●광주 523-1505~9 ●전주 74-3005~7 ●마산 65-3211~3 ●수원 35-5001~3 ●인천 428-8451~3 ●원주 44-6821~3 ●안동 55-0555 ●순천 741-8005~7

●청주 52 - 2021~3 ●포함 81 - 5138 ●울산 87 - 9868 ●강릉 43 - 8148 ●진주 55 - 5800 ●제주 52 - 8935